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신학과 신앙 (*The Theology and Its Faith of Restoration of God's Image*)

제 3 권



2018 ITCS campus

전화령

캄보디아 국제 신학대학 대학원

목 차

목차/2

머릿말 / 5

D. 소선지서/9 -

호세아/9,

요엘/18

아모스/21,

요나/29,

스바냐/33,

하박국/32,

학개/34

스가랴/39

말라기 / 75

E. 포로 귀환 후/81 -

에스라/82,

느헤미야/88,

에스더 / 100

F. 시가서 /107-

욥/107, 시편,/122

잠언/167, 전도서 / 207

머릿말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안지 50 여년 (목회사역 30 여년, 교육사역 20 여년 선교사역 10 여년) 필자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신학과 신앙”이란 주제를 우리 시대에 표현하고 싶어했다. 이것은 여러 고난의 밤을 지나오면서 필자의 가슴 속에 성령이 새겨 놓으신 진리의 확신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처음 믿어 한 감리교인의 열심을 가지고 시작한 복음주의적 신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캄보디아에 사역하신 위대한 목회자와 설교자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세계적 개혁주의 거성들, 엠지 클라인, 클라우니, 제이 아담스, 테니슨, 가프리, 후레임 그리고 나의 박사학위 논문 멘토인 조셉 파이프 박사님을 만나면서 필자의 주제는 더욱 견고해졌었다. 그 후 캄보디아에서 교육과 선교사역을 하는 중, 동료교수들과 후학들과 캄보디아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떤 유익을 주려고 이것을 정리하게 되었다.

막연히 캄보디아 25 개도에 브니엘장로교회 지교회를 세운다는 목표와 에베소서 교회의 부흥운동과 캄보디아 목회자들의 자립사역을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려는 새로운 비전아래 소형세미나를 통해 필자가 깨달은 진리를 서로 나누고 싶은 열망이, 킬링필드, 물의 나라,

더운 나라 그리고 푸른 초원의 나라 위에 성경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려는 도구로 이 교제를 제시한 것이다.

13 년동안 인생 길에서 수많은 눈물, 곤고 그리고 절망의 수렁에
거하게 하신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두운 병상에서 비참함 속에 있는 나에게 “너를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합 3:19)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책을 정리한다.

본 내용은 필자가 따랐던 구속사적 신학과 청교도신학을 근간으로
설교 신학과 30 년 이상의 목회경험과 20 여년 개혁신학 교수로서의
사역이 녹아있고 개인적으로 파라치취 운동의 성경공부 교재연구,
평신도를 위한 기독교 교리 및 각권 성경 세계를 집필 하는 중,
캄보디아의 개혁주의 신학교 ITCS 와 성경장로교 교회 노회
(CBPCP)와 브니엘 교회(CPPC)와 캄보디아 25 개도의 브니엘 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현장감을 가지고 다루게 될 것이다.

평소 이 땅 위에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필자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이기에 매우 고무적이다.

이 일을 위하여 오랜 세월동안 나의 전공인 구약신학, 설교신학
그리고 청교도신학에 관한 주제를 매 학기마다 질문 대답을 통해

건고하게 한 캄보디아 국제신학대학교 신학생들과 동료교수들의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미국 브니엘 장로교회 성도들과 캄보디아 브니엘 장로교회 성도들 그리고 10 명의 캄보디아 스태프들의 변함없는 기도와 격려에 감사드린다.

캄보디아에서나 미국 어디서나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 편집을 위하여 기도와 침묵과 격려로 협력한 사랑하는 가족, 아내 전중임, 세 딸들, 에스더, 샤론, 메리에게 감사하며 이 선교 사역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여러 선교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외에도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하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신 고마운 마음과 격려의 손길들을 생각하며 감사한다.

12 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강원도 산간 겨울 들판에서 무릎을 꿇고 “나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바로 전하게 해주소서”라고 한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도록 이끄실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돌린다.

2017 년 6 월 30 일

미국 캘리포니아 포모나 서재에서

A. 소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우리는 호세아서와 스가랴서를 구별있게 다루면서 오바다, 나훔, 미가 외에 다른 일곱 선지자의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검토한다. 호세아서를 통해 특이한 방법으로 그 형상을 보게 되고 스가랴서에 나타난 7 이상 속에 구속적 흐름에서 우리는 신약의 완성된 빛아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의인신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표현되며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속의 영광으로 나타나는가를 본다.

1.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회복

1. 호세아 서론 (호 1:1-9) - 호세아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첫째,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창녀와 결혼하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역설적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리라는 명령처럼 무조건적 순종으로만 용납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말, 라합, 밋세바 같이 불미한 혈통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용납해야 한다. 둘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가르친다. 고멜의 반복적인 음란 행위를 책임지며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타났다. 여러 차례 불륜의 아이를

낱고도 바람을 피운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그 사랑은 율법의 차원을 넘어 한없이 용서하라는 복음의 풍성한 사랑을 보여준다.

2.회복의 은총 (호 1:10-2:13) - 하나님은 배은망덕으로 떠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나? 첫째, 그의 큰 사랑으로 회복하신다. 이스르엘 (4), 로루하마 (7), 로암미 (9)라는 불륜의 자녀를 낳은 고멜을 용납하는 호세아를 통해 보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를 구했다. 10 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바로 그 사랑을 잘 보여준다. 본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이 친히 회복시키신다. 이제 “로(not)”가 빠진 암미 (내 백성),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김)의 회복과 죄된 습성을 막으시려고 장벽 쌓는 일(6-7)을 친히 하시겠다는 것이다.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랑으로 이루시기에 아주 든든하다. (빌 1:7)

3.배은망덕의 죄 (호 2:9-16) - 이방 죄의 심판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경고로 이어졌다. 어떤 죄악인가? 첫째, 배은망덕의 죄이다. (9-10) 아모리 사람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첫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에베소 교회의 첫 사랑 회복이 우리가 힘쓸 일이다.(계 2:5) 둘째, 선지자의 길을 막은 죄이다. 이스라엘의 양식이며 등불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여 스스로 어두움을 선택한 것이다. 성경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운동도 마귀의 일이다. 셋째, 나실인의

길을 막는 죄이다. 성결본위의 삶을 막는 마음은 우상에게 헌신하는
무서운 자리에 떨어지게 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 신실치 못한 데서 시작되었음을 볼 때 성경에 착념해야 한다.
바빠 돌아가는 세상에서도 은혜를 보답하려는 사랑의 응답만이
풍성한 삶의 묘약이다.

4. **은혜의 날 (호 2:14-23)** - 원수에게 포로가 된 이스라엘 회복의
날이 약속되어 있다.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 첫 언약이
회복되었다. 애굽에서 나온 날(15,19)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었다. 우상을 향해 “내 바알“이라고 하던 악한 마음이 중단되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하는 친밀 관계로 치유하시겠다는 것이다.
(16) 그것은 창세기 3:15 절의 원시 복음이 회복된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이 은혜 됨을 찬양해야 한다. 둘째,
주님과의 연합이 회복되었다.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반복해서 보이는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 연합에 집중하고
있다.(21-23) 그 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포도주와 곡식과
이스라엘에 응하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은혜 베푸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이다. 이 행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히 6:1-2)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

5. **구속의 사랑 (호 3:1-5)** - 본문은 왕이시며 절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보여주신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 우상숭배를 즐겨도 용서하는 사랑이다.(1-3) 다른 신을 섬겨 우상제물을 즐길 정도로 깊이 젖어있는 그들을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사랑이다.(4-5) 사랑 관계가 단절된 사람처럼 영적 공허 속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가게 하시는 사랑이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비로소 궁핍하여 스스로 돌아가는 참 회개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셋째, 경외 신앙으로 나가는 사랑이다.(5) 참 회개는 참 믿음으로 나가게 하듯이 (행 20:20) 타락한 이스라엘이 경외신앙을 회복하는 자리로 스스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한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 (롬 8:30)

6 사랑의 경고 (호 3:1-8) -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은 어떻게 보여주는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 대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을 아셨다”(2)는 말씀이 언약백성에 대한 구원사랑을 보인다. 둘째,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다.(7-8) 중보자를 세워 말씀하심으로 그 사랑을 쉽게 받게하셨다. 셋째, 재앙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셨다. 영적으로 둔해진 마음을 깨우치려고 비상수단으로 재앙을 사용하셨다.(6)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맞춤형 구원대상자이며 참 중보자로 모든 것을 드러내신 시대에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받은 특권이 크기에 책임 또한 크다. 이 큰 사랑을

등한히 여기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히 2:3)

7. **하나님 아는 지식 (호 4:1-10)** - 호세아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지식에 관한 문제였다. 그 지식이 없이 진실과 인애를 결코 생각할 수 없다.(1) 신지식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저주받은 이스라엘이 되며 영적 권위를 뺏기며(6, 9) 이미 얻은 번성이 욕이 되어버린다.(7) 신자는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통하여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바로 알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영생의 내용이며 구원의 골자이다.(요 17:3) 더욱이 그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엡 1:14) 그러고 보면 신자의 생애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둘째, 그러면 어떻게 신지식을 회복하는가? 율법으로 돌아가(6) 그 말씀을 잘 받아야 한다.(10)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등경 위에 둔 등불이나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날마다 그를 알아감으로 영생을 즐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8. **이스라엘의 죄악 (호 4:11-19)** - 죄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불의와 불법과 불경건에 속한 어두움이다. 본문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죄악은 “연합(union)”의 문제이다.(17) 에브라임의 우상과의 연합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첫째, 음란한 마음으로

나타났다. 신실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12) 마귀의 유혹은 항상 신실성에서 벗어나게 한다. 진실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 진리인 성경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14) 둘째 자기 충만한 행동이었다. 13-14 절에 보면 딸, 며느리, 남자가 다 행음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완강한 암소처럼 되었다고 말한다. 그 죄악은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이다. 세상 경영원리를 이용하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과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성령의 법칙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갈 5:22-23)

9. **하나님의 엄한 심판 (호 5:1-14)** - 이스라엘과 부부관계로 생각하신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첫째, 심판의 죄목은 영적음행이었다.(7)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자기 질고를 치료하기위해 다른 신을 찾은 것이 그들의 영적음행의 깊이를 보여준다. 마음과 육체의 음행은 모두 영적 음행에서 나온다. 그래서 음행 곧 불신실이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심판의 참상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떠나심으로 시작되었다. (6)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일이 무너진다. 사람의 명령을 좇다가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 것이 은혜가 떠난 자의 비참한 모습이다.(11) 셋째, 그 심판의 목적은 자기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려는 것이다.(14) 하나님은 젊은 사자처럼 절대권능으로(14) 배반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빼앗아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절대 은혜로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를 더욱

더 의지할 수 밖에 없다.

10. **진정한 회개 (호 5:15-6:11)** - 이스라엘 죄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시작되어 그 영향력이 가정 사회에까지 미쳐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여기서 호세아가 요구하는 회개는 어떠하였는가? 첫째,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다. (3) 번제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6) 부활의 주를 만남으로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앎이 진정한 회개이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 무덤에 갈 때까지 회개하는 생명이다. 이 지식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눈 뜨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인간적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한계성이 있지만 (4) 하나님은 제사보다 나은 사랑 곧,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절정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겨울비와 봄비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

11. **나의 왕의 다스림을 받자 (호 7:1-16)** - 죄악에서 자유와 해방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왕되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자유의 길임을 보인다. 첫째 그들의 죄악상은 어떠했는가? 에브라임의 죄 곧, 사마리아의 악은 꾀사, 도둑질, 간음으로 점철되어 화덕처럼 죄 짓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방법과 정도가 다를 뿐,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는 교회의 생명을 잃게하는 치명적 죄악이다.

여리고성의 승리 속에서 아간 한 사람의 탐욕이 전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져온 것처럼 교회는 탐욕 때문에 망한다. 둘째, 자유의 길은 왕이신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와 그의 다스림을 받는 일뿐이다. (10, 14, 16) 그의 주되심이 인정되는 시간과 장소에 참된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의 통치를 받기위해 우리의 거센 마음을 주께 내어 놓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엡 5:18)

12. **언약파기의 결과 (호 8:1-14)** -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근본인 언약 파기로 생긴 결과와 그 회복의 길이 무엇인가? 첫째, 언약 파기자에게는 그의 대적이 성전을 파괴하며(1) 영권을 무너지게 한다고 했다.(4) 바람과 광풍으로 줄기만 남아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해(7) 쇠퇴하며 조롱거리가 된다고 했다.(8-9)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13) 하나님 심판의 불을 맞볼 수 밖에 없게 된다.(14) 둘째, 회개와 순종으로 언약관계가 회복된다. 회복의 방법은 처음 요구한 내용 그대로이다. 불순종한 요나가 회개할 때 또다시 말씀은 처음 받은 사명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자로 여기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의 여정에 항상 점검해야 될 진리이다. 파기된 언약을 다시 회복하여 준비된 은혜를 누려야 한다. 어디에 머물렀든지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언약에 신실할 수 있다. 이 복을 향유해야 한다.

13. **말씀 교제의 결과 (호 9:1-17)** - 성경이 정말 기이한 것은 성경자체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할 뿐 아니라 성경과 친밀 관계로 영혼이 밝아지고 힘을 얻으며 세상보화보다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다.

첫째, 그들의 죄악상은 어떠했나? 작은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한 처지가 된 이스라엘은 절망의 노선을 걷다가 실족하게 되었다.(1-7) 둘째, 그 참상의 원인은 말씀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며 (7-8) 선지자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풀려지고, 풀려지면 적용할 바를 알게 된다. 엠마오 제자의 뜨거운 체험이나 바울의 분별하는 체험은 모두 말씀과의 깊은 교제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성경을 사랑하는 일은 성경 말씀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이며 말씀과의 친밀한 증거가 나타나는 일이다. 시편 119 편에 나온 시인의 말씀체험이 내게도 일어나도록 규칙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

14. **회개의 기회 (호 10:1-15)** -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는 지금이라고 한 것처럼 (12) 신자가 회개하여 은혜받을 때는 바로 “지금(now)”이라는 기회인식이 필요하다. 첫째, 이스라엘은 무슨 죄를 범했는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3) 두 마음을 품었다. (2)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외세로부터 패망을 당했다.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은 원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군사와 전략을 더 의뢰했기 때문이다. 둘째, 어떻게 회개하나? 이런 불신앙적 패망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갈 때 의의 소낙비가 임한다고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의가 인정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 믿음의 의만이 율법의 의에서 불가능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은혜받을 만한 때에 믿음으로 마음을 주께 토하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15. **불붙는 사랑 (호 11:1-12)** -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맹렬한 것은 그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첫째, 준비된 사랑이다. (1-3)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의 사랑은 애굽과 가나안 7 족속에게서 구원하심으로서 벌써 준비된 사랑임이 드러났다. 더욱이 창세 전, 사랑의 대상으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은 최고 최대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엡 1:3-4) 둘째, 불붙는 사랑이다.(8-9) 천인공노할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긍휼이 불붙어 맹렬한 진노를 다시 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본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셋째,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이다..(10) 그 사랑은 이스라엘로 아예 하나님만을 자원해서 사랑하게끔 만들었다. 출 바벨론으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신자는 그만을 사랑할 수 밖에 없다.

16 **고난이 주는 유익 (호 12:1-14)** - 하나님을 떠난 에브라임의 죄는 변화받기 전의 야곱의 탐욕주의 우상숭배였다. 그 야곱에게 주어진 은혜처럼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첫째, 고난을 통한 영적 변화가 허락되었다. 야곱이 압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울며 회개한 일이나(4-5), 또 야곱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 당한 일련의 고난으로 변화된 것처럼(13) 그들은 앗수르의 큰 고난의 구덩이에서 탐욕이 부서져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탐욕이 주님 사랑으로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둘째, 고난을 통해 공의와 사랑을 행하게 하셨다.(6)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절기에 하던 것처럼 해주시겠다는 것이다.(9) 성도가 고난당할 때 괴로워 보여도 주 안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때 기이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17. **하나님의 구원 (호 13:1-16)** -우상숭배는 자아 욕심에서 나오지만 하나님 구원은 전적으로 일방적이며 주권적이다. 이 사실을 본문은 어떻게 보인가? 첫째, 이스라엘의 범죄과정, 에브라임의 죄악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시작되었다.(1-2) 그 결과, 아침구름, 이슬, 쪽정이 같았다.(3)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배반함으로서(9) 징계를 받은 것이다.(6-7) 이 범죄과정은 에덴동산의 하와의 길과 같다. 그들을 에덴동산에 두신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김으로 뱀의 주파에 걸려들어 배은망덕하여 넘어진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절대구원, 그러나

하나님은 만신창이가 된 고멜 같은 에브라임을 일방적으로 속량하여 구속하겠다는 것이다. (14) 애굽에서의 구원에 이미 보인대로 나 외에 너의 신이 없다는 사실을 만 천하에 드러내시겠다는 것이다. 절대 주권적 은혜로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한다.

1. 요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1. **요엘의 탄식 (욥1:1-20)** - 북 이스라엘 선지자로 부름 받은 요엘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 시대에 왜 탄식했으며 어떻게 하라고 권했는가? 첫째, 탄식, 메뚜기 재앙으로 농작물을 모두 먹어치우듯이 외적 침략으로 파멸할 것을 내다보고 탄식했다.(4) 경제적 여파는 모든 방면 특히 가정에 영향을 미쳐 혼인의 노래가 사라지고(8) 인간 희락이 슬픔으로 바뀌지게 되었다.(12) 제사장 등이 제사에 사용할 제물이 없어 고민하게 되는 비참한 시대가 된 것이다. 평안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는 상황을 감사해야 한다. 둘째, 회복 방법, 선지자는 탄식 속에 희망의 빛을 보는데 바로 진실된 회개이다. 제사장들이 먼저 부끄러움을 느끼고 굶은 베를 입고 회개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13) 그 정황을 아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것처럼 이 비상한 시대를 지나는 신자들은 더욱 더 책임진 자로서의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2. **여호와의 날(욥2:1-32)** - 역사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자기 백성의

불순종을 징계하시기 위해 앓수르를 침입케 하시는 사건을 가리킨다. 그 날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첫째, 그 날은 에덴동산을 황무지로 바꾸는 날이다.(3) 외적의 침략은 강포하고 무자비하여 흑암과 같이 되며 (2) 백지장처럼 참혹하게 될 것이다.(4-6)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회복은 진실된 회개에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아가면 된다. (12) 금식 일을 선포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반드시 소망의 길이 생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방면뿐 아니라 모든 일의 중심인 영적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28-32) 오순절 역사의 재현을 사모해야 한다.

3.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욥3:1-21) - 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요엘의 예언에서 우리는 주님 교회의 장래를 본다. 첫째, 남은 자의 회복을 본다. 앓수르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예언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교회를 보인 것이다. 둘째, 열국을 심판하심을 본다. 그 회복은 일시적으로 사용된 열국 심판으로 나갔다. 만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받는 교회를 보인 것이다. 셋째,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진정한 회복은 민족 독립과 육적부요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겠다고 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단번에 이루셨다. 시온이신 그리스도안의 복을 아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II. 아모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1. 작은 죄 (암1:1-8) - 웃시야와 여로보암의 경제적 부요와 함께 갑자기 일어난 지진으로 어수선했던 때, 하나님은 드고아 목자 아모스를 통해 일하셨다. 그가 받은 일은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을 회개케 하는 것이다. 첫째, 어떤 경고를 받았는가? 이방의 다메섹(3-5), 블레셋(10)을 향한 심판 메시지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권위를 꺾기 위해 강국의 침략으로 사로잡히고 불로 망케하시겠다는 것이다. 존폐가 달린 심판이기에 매우 두려운 것이다. 둘째, 심판 원인은 작은 죄 때문이다.(6,9,11) 우상숭배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여호와 경외가 없는 모든 것이 죄의 근본이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나온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성경을 통해 들려오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

2.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암1:9-15) -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형제 계약을 배반한 그들을 원수에게 팔아 넘긴 죄이다.(9) 형제 약점을 이용하여 원수에게 붙이는 인신매매 같은 죄를 경계해야 한다. 둘째, 형제에 대한 무자비한 행위 때문이다. (11) 도망가는 형제를 칼로 죽이는 맹렬한 분노를 버려야 한다. 셋째, 탐욕을 채우

기 위해 무자비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죄이다.(13) 아이 밴 여인의 배를 가르는 무자비함으로 욕심을 채우는 죄를 갚으셨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이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자기 백성에 대한 형제 사랑의 결핍은 더 큰 심판이 따른다. 주님의 피 값으로 산 형제의 연약을 대신 담당하는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3. **경건의 회복 (암2:1-8)**- 하나님은 모압과 에돔의 죄보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더 심각하게 다루셨다. 첫째, 어떤 죄를 범했는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 정도로 의를 경홀히 여겼으며(6)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가 학대를 당하며(7) 부자가 경건으로 가린 탐욕과 외식이 만연한 사회였다.(8) 더욱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짓을 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 관계의 도덕적 부패가 일어나도록 되어있다.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시킨 더러운 영(계16:13)은 우리 시대에도 크게 일하고 있다. 둘째, 어떻게 이기는가? 경건 회복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자기를 지키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보는 참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약1:27) 경건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4. **죄의 보응 (암3:9-15)** - 북 이스라엘의 중심, 사마리아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어떠하였는가? 첫째, 세 가지 죄악 즉 요란과

학대가 있었고(9) 약한 자를 억압하는 팽배한 강포와 하나님의 자비와 의가 무시되었고 포학과 겁탈이 난무하여(10)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탐욕이 가득 찼다. 더욱이 최악의 뿌리인 우상숭배가 팽배하여(14) 도덕적 부패가 충만했다. 둘째, 그들을 대적에게 넘기어 수치를 당케 하시며(11) 벤엘의 제단을 헐어버리려고 불을 보내신다고 하셨다.(14,15) 세상 심판의 서곡인 이스라엘 심판은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이뤄질 세상 심판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계16:17-20)

5. 하나님 사랑의 능력 (암4:1-13) - 죄의 결과로 가뭄, 흉년, 병충해, 염병 그리고 전쟁 참화의 징계를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첫째,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비의 여지를 남기셨다. 사랑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셨다. 우리 구원도 우리 공로가 가미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만 된다. (엡2:8-9) 둘째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여 비로소 궁핍하여 돌아왔을 때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받았듯이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 사랑의 힘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롬5:5) 이 크신 사랑 안에서 참된 능력을 누려야 한다.

6. 회개와 믿음 (암5:1-17) -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별다른

사랑을 가지셨다. 그래서 경고와 아울러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회개와 믿음이다. 첫째, 회개해야 한다. 신부가 신랑을 맞아할 준비를 하듯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이 회개이다.(4-6) 이 회개만이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것은 세례요한을 위시한 여러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골자였으며 예수님 복음의 내용이다.(막1:4, 15) 통회하는 마음이 신자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둘째, 믿어야 한다.(14-15) 참 회개는 반드시 참 믿음을 전제로 한다. 믿음만이 회개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를 믿을 때 회개할 용기가 생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행20:20)을 전한 바울 복음은 그 뿌리가 깊다. 이 복된 길에 들어선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언제나 복음의 빛 아래 살아가야 한다.

7.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암5:18-27) -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둘이 있다. 첫째 공법(justice)을 원하셨다.(24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모든 일을 그르쳤다. 사회의 공법이 무너짐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문제 때문이란 것이다. 도미노현상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명(1-4)이 바로 되지 않으면 이웃 계명(5-10)도 세워질 수 없다. 공법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정의(righteousness)를 원하셨다.(24하) 이스라엘의 구원의 의는 모든 사회 정의의 기초이다. 의가 무너진 가정과 사회는 믿음의 의를 잃은 증거이다. 이 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앗수르의 포로 생활의 쓴 맛을 허락하셨다. (25-27) 그

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얻은 신자의 의가 생활 저변에 강같이 흐르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의를 세워야 한다.

8. **자만에 대한 징벌 (암6:1-14)** - 하나님의 요구하는 공법이 쓸개와 정의가 인진으로 바꾼 이스라엘의 죄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12) 첫째, 안일한 마음에서 나왔다.(1)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한 저들의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며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었다. 요셉의 환난을 생각지 않고 자기 탐욕만 채우는 원수의 발아래 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다. 신자에게 위험한 것이 수동적인 마음, 영적 게으름이다. 이것이 우리로 자만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기 힘을 의지하는데서 나왔다.(13) 우리의 뿔을 우리 힘으로 얻었다고 자화자찬하게 하는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자기 신뢰로 나가는 것은 영적법칙이다.(렘17:5-6) “주여, 내 마음을 겸손의 영으로 채워 주소서!”

9. **먼저 의를 구하자 (암7:1-9)** - 본문에 보이는 세 가지 이상들은 무엇을 의미하나? 첫째, 새싹을 싹쓸이 한 황충이 이상에서 약한 이스라엘을 향해 뜻을 돌이키시는 긍휼을 보였다. 진노 중 긍휼이 남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때문이다. (히4:15-16) 둘째, 타오르는 불 이상에서 바다를 삼킨 불이 땅까지도 사르려는 심판의 맹렬함에서 뜻을 돌이키심은 선지자의 중보 사역 때문이었다. 셋째, 그러나 다림줄 이상에서 측량하신 제단의 주님은 우상숭배의 죄를 징계하기로 작정

하셨다.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리라는 예언대로 그 나라는 앓수르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보인 그의 의를 세우는 열심은 지금도 계속된다. 주 안에서 거저 얻은 의를 따라 그 의를 세워야 한다. (마6:33)

10. **소명의 본 (암7:10-17)** - 주의 부르심은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주의 사역을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직 부른 자만을 통해 자기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아모스의 부름은 어떠했는가? 첫째, 그는 부르심에 응답했다. 북방 이스라엘 초기, 목자며 농부인 아모스를 예언자로 부르자 즉시 응답하였다.(14-15) 하나님 부르심은 절대적 효력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다. 또 응답하는 사람도 자원해서 응한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이다.(마4:19-20) 둘째 사명에 충실하였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는 사역에 대한 부르심도 포함된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관한 회개와 경고를 알리는 예언이기에 핍박을 예상했지만 사명에 충실했다. 소명 문제가 점점 소홀히 되는 이 시대에 아모스의 사역을 본받아 부르심을 굳게하는 신자가 되어야한다.

11. **진정한 문제 (암8:1-14)** -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심으로 이스라엘의 종말이 어떠함을 알려주셨다.(1-2)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첫째, 가난한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4) 소자에 대한 경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박한 마음을 반영한다. 경건의 분위기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며 인간 존엄성이 사라진 부패한 사회가 되어버렸

다. 둘째, 말씀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11) 양식과 식수의 기근도 심각하지만 말씀의 기갈이 더 급함을 아모스는 탄식했다. 하나님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기 때문이다.(요6:63) 말씀을 잘 받는 옥토에 100배의 결실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겸손한 마음을 경호히 여기고 일락과 물욕과 염려로 채워진 가시나무 마음이 우리 시대의 문제이다. 성경마저도 인간 말로 취급하기 좋아하는 치명적 위기에 떨어졌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성경묵상의 세계로 속히 나가야 한다. (시1:1-3)

12. **회복의 하나님 (암9:1-15)** - 마지막으로 보인 그림 계시는 기둥을 쳐서 문지방을 흔드는 이상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나? 첫째, 종말론적 경고를 본다. 2-4절까지 “내가”라는 말을 6회나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다.(4) 심지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다루시겠다고 하셨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은 종말론적 회복을 약속하셨다.(8)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8) 황무한 성읍에서 건축하며 들판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이다.(14)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뽑을 자가 없는 근본적 변화를 약속하셨다.(15) 우리 구원은 첫 복음(창3:15)에서 약속한대로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시고 이루는 절대적인 것이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빌1:7) 이 약속을 주장하며 살아야 한다.

IV. 요나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1. **신실한 복음사역 (욥 1:1-6)** - 이스라엘 북 왕국, 여로보암 2 세(782-753 B. C.) 때의 앓수르 수도, 니느웨 성을 향한 요나 사역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 한 개인에게 말씀이 임해야 한다.(1) 빈들에 있던 세례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요나에게도 먼저 부르심이 있었다. 모든 신자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대위임 령을 받은 소명자이다.(막 16:15) 둘째, 받은 말씀을 외쳐야 한다.(2) 여기서 외친다는 것이 오늘날 설교(to proclaim)를 가리킨다. (딤후 4:2) 신자는 설교사역을 존중히 여기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셋째, 부름에 순종해야 한다. (3-4) 요나의 불순종은 위험한 행동이었다. 요나의 도피행각에 일어난 대풍은 하나님의 손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신실한 복음일꾼이 되어야 한다.

2. **요나의 참 회개 (욥1:7-17)** -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증거가 요나의 회개로 나타났다. 참 회개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첫째, 책임지는 마음이 있었다.(12) 제비에 걸린 요나는 풍랑으로 인한 위험이 자기 때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다.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눅24:35)”는 십자가 우편 강도의 책임의식과 같은 것이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책임에서 시작된다. 둘째, 또한 그는 여호와

만을 의뢰하는 마음에 사로잡혔다. 자기는 추하나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았다.(9) 전혀 도움 없음을 깨달은 영적 가난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은 것이다.(마5:3) 참 회개는 가난에서 애통함으로, 애통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17)

3. **능력의 기도 (욥2:1-10)** -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복된 사실이 그의 기도로 나타났다. 요나 기도에서 무엇을 배워야하는가? 첫째,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합니다. 대풍을 만나 제비에 당침되어 조롱거리가 되어 물에 던지워져 깊은 물 속에서의 고생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그가 당한 최대의 고통이었다.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절망의 자리라도 숨쉴 틈만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 기도가 시작되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 둘째, 믿음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 요나는 이미 구원 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찬양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이미 응답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감사와 서원이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심정을 토하고 이미 받은 줄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다. 이 기도가 모든 일을 이기게 한다.

4. **부흥의 참 증거 (욥3:1-10)** - 연단 받은 요나는 느느웨 성의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 그 안에 일어난 부흥의 불

이 12만명의 영혼을 구원시켰다. 이 부흥이 왜 놀라운가? 첫째, 말씀의 능력이 과급되었기 때문이다.(2-3) 하룻길을 행하며 외친 메시지가 왕에서부터 신하 심지어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6) 성경말씀이 부흥의 핵이다. 둘째, 악에서 돌이키는 회개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7-8) 선포된 경고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왕에서부터 금식하며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셋째, 여호와와의 임재가 있었다. 그 증거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고 겸손히 었었기 때문이다.(9-10) 하나님은 그들의 참 회개에 뜻을 돌이키셨다. 부흥의 심령을 구해야한다.

5. 사역보다 인격을 (욥4:1-5) - 니느웨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은 불편했다. 자기 과거의 행동을 정당화하였기 때문이다. (1-2) 어째서 니느웨의 회개를 싫어하는 모순이 일어났는가? 첫째, 사역이 앞섰기 때문이다. 요나 사역은 역사상 위대한 부흥의 본이다. 베드로는 한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지만 요나는 12만명이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민족의 한 성 전체가 송두리째 구원받은 변화는 특이한 일이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허탈했다. 소나기가 쏟아져도 었어진 그릇에 물이 담기지 않는 것과 같다. 사역과 업적을 앞세우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둘째, 인격의 연단이 사역보다 앞서야 한다. 요나의 고난이 그를 연단했어도 그의 마음은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뜻을 수용하기에

연약한 인격이었기 때문이다. 자아를 부인해야 주를 따를 수 있는 진리는 만고불변한 것이다.

6. 하나님의 구령열심 (욥4:6-11) - 일연의 유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구령에 대한 불타는 열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 열심은 어떤 것인가? 첫째, 전도자 자신의 변화를 위해 한 실물교육으로 가르치셨다.(6-9) 박넝쿨의 말라죽음으로 일시적 시원함을 잃었다하여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구령의 소원을 보여주신 것이다.(10) 둘째, 한 영혼을 회개시키려는 열정이 자신을 삼키는 열심이었다. 잃은 한 마리 양, 잃은 한 드라크마, 잃은 작은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허비하시는 열심이 보여지기 때문이다.(눅15:) 셋째, 잃은 영혼을 찾은 즐거움으로 가득 찬 열심이다. 찾은 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요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없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의 가치가 깨달아질 때만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

V. 하박국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1. 계시가 대안이다 (합1:1-10) -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7세기말)의 사역자로 알려진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그 멸망을 예

언한다. 첫째, 그들의 죄악상. 그 시대의 두 가지 죄악은 불의(3-4)와 불신이다.(11)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불의와 불신과 불경건 시대 위에 임했다.(롬2:18-19)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 밖에 없는 시대였다. 둘째, 해결책, 이 때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계시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선지자에게 임한 계시는 그 실상을 알게 하고 회개케 하며 믿게 하는 것이었다. 그 선지자처럼 책임진 사람이 있을 때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두움을 계시의 빛으로 밝힐 책임이 있다. 계시인 성경에 깊이 착념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시대 유일한 대안인 성경을 깊이 깨닫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2. 믿음으로 사는 의인 (합1:12-2:4) - 하박국 선지자는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근시안적 안목으로 현실을 탄식한다.(13) 그때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응답하셨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는 낚시, 초망, 열국을 삼키는 것으로 표현된 무자비한 그들의 광포를 안타까워하며 성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모든 일에 그의 주권을 인정함이 믿음이다. 둘째,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줄 알고 기다리며 주의 뜻에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박국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이 되었음을 가리킨다. 하박국이 받아 로마

서가 확인한 바울의 구원관(롬1:16-17)을 내 것으로 삼아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VI. 스바냐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1. **여호와 만을 섬기자(슌1:1-13)** - 스바냐 선지자는 아몬 왕의 죄를 개혁한 요시아 왕 때 일한 선지자로 시작부터 우주적 심판을 고하며 유다의 예루살렘이 우상숭배로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째, 말씀으로 임하시는 여호와이시다. (1) 스바냐 개인에게 임한 계시의 하나님은 창조(창1:1)와 섭리(창1:3)와 구속(요1:14)의 역사를 통해 일하시다가 주님 승천 후,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 항상 말씀하신다. 종말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교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소망이 있다. 둘째, 주 여호와이시다.(7) 온 천하가 잠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우상숭배한 자들을 심판하심은 그의 주권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일에 주되심을 드러내시는 주(여호와) 예수님께 겸손히 엎디어 그의 뜻대로 되기를 구해야 한다.

2. **회개하려면 (슌1:14-2:3)** - 수치란 절대 표준과 비교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에 무지함으로 매우 둔한 심령으로 회개할 줄 몰랐다. 성경, 선교를 무수히 외치는 시대

라 할지라도 성경을 표준으로 삼지 않는 자는 자기 배만을 위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아야 한다. 15절의 분노는 자기백성에 대해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그는 푸른나무인데도 꺾여 그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내셔서 마른나무인 우리를 푸르게 만드셨다.(눅23:31) 또 그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어졌다.(롬5:5) 둘째, 겸손히 그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 그럴 때 환난 날에 절대 보호를 받는다. 영적불황이 더해 가는 시대를 지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작은 일부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통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사랑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3. **여호와 교훈을 잘 받자(습3:1-8)** - 심판 중에서도 공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구원을 베푸셨다.(8) 왜 그들이 멸망했는가? 첫째, 명령과 교훈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명령에는 순종이, 교훈에는 깨달음이 따라야 하는데 율법을 범한 탐하는 제사장들과 교만한 방백들과 간사한 선지자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그들을 풍전등화 같이 되게 했다. 둘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뢰하는 마음은 그 대상이 누구냐를 알 때 생겨지는 반응이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알, 아세라, 그모스, 밀곰의 우상이 더 크게 보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아라(7)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이 결국 멸망으로 나가게 했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려는 바울의 목표를 내 것으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빌 3:10)

4. **회복의 역사 (슥3:9-20)** -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열정으로 섬기는 큰 회개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다.(9) 그 약속은 스바냐를 통해서 다시 보이셨다. 첫째, 유다가 회복되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하셨다. 역사적으로 성취된 출 바벨론 사건은 큰 구원을 어느 정도 성취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구원은 범세계적 완전한 구원이다. 둘째, 이 구원은 사중적 성격을 갖는다.(17) 임마누엘의 약속과 전능자가 친히 구원하시며(창3:15) 하나님의 기쁨과 노래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그림이다. 주님의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로 만유의 중심에 우뚝 선 교회로 자기 백성들이 몰려와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새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이처럼 겸손히 주를 의지할 사람들이다.

VII. 학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1. **고마운 책망 (학1:1-11)** -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지연한 것은 하나님의 정한 목표를 역행하는

일이었다. 그 결과로 하늘 문이 닫혀 한재와 흉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첫째, 선지자를 통해 친히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셨다. 성경 계시는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뚫고 임하였다. (1)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최선의 방법이다. 인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친히 말씀하시는 효력을 나타내심은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다. 둘째, 지도자들을 일깨우셨다. 그 시대에 세운 학개,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적 지도력을 회복시키셨다(1). 영적지도자의 가치는 정말 중요하다. 셋째, 책망으로 나타났다. 수술하는 의사처럼, 안일로 병든 그들에게 책망하심으로 찾아 오셨다(4- 5) 그 꾸밈음이 안일을 일깨워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했다. 교훈뿐 아니라 책망으로 임하는 말씀을 잘 받을 때 새 역사가 시작된다.(딤후3:16)

2. **부흥의 조건 (학1:1-15)** - 성전 재건에 불을 붙인 선지자 학개는 진정한 부흥에 관해 산 메시지를 보여준다. 통회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부흥을 본문은 어떻게 보여주는가? 첫째, 책망이 있었다. 게으름(2)과 이기주의(9) 죄를 지적하며 그 결과로 찾아 온 허무와 절망(6-9), 중단과 중별(10-11)의 참상을 드러내셨다. 말씀을 따른 책망이 생명 얻는 양약이 된다. 둘째, 성실한 청종이 따랐다. 12절에 학개의 말을 잘 받은 그들은 여호와 경외의 마음으로 변화되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천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참된 경외심을 소유하는 길이었다. 셋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14절의 “마음의 흥분”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한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

이 일어나도록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 말씀의 순종에서 임하는 성령의 부흥을 본 삼아 성경적 조건을 가지고 사모하는 신자가 되어야한다.

3. **청중하는 마음 (학1:12-15)** - 학개를 통해 주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 성전을 재건했다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냥한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 (12)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들을 때 부흥이 일어나며 또 말씀이 임하는 곳에 겸손히 듣는 마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을 성령이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둘째,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마음 곧 영혼에서 시작된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성령님이시다(14). 학개의 책망을 듣자마자 즉각 순종한 것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순간이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믿음의 사건을 기대해야 한다.

4. **진동시키시는 하나님 (학 2:1-9)** - 학개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평강의 통치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6) 세상을 진동시키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셨나? 첫째, 말씀하신 분은 선지를 통해 말씀하시며(1) 순종자와 동행하시는(2,5)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4,8,9) 무엇보다 그는 온 세상을 진동시키시는 만국의 보배(the desired of the all nations),

그리스도(6,7)를 보내셨다. 둘째,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재건하여(7) 하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9) 진정한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참 성전 안에 거할 때 누려진다.(고전 3:16) 셋째,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것을 권하셨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담대히 일하라고 하신다. (4-6)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성된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자로 살아가야 한다.

5. **만국의 보배 (학2:1-17)** - 목회 사역처럼 학개가 전한 계시는 하나님 백성의 외식을 깨우는 그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인가? 첫째, 책망을 들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 했으나 성전 건물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 속에 하나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 형상을 가진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다 (5). 건물이 아닌 마음에 초점을 두는 것은 신구약 어디서나 같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둔 우리는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고 마음 성전의 거룩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전 3:16). 둘째, 만국의 보배가 임하신다고 했다(7).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골 2:3).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영광을 알게 된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은 오직 예수께로만 오기 때문이다 (요1:18). 셋째, 이 우리에게 들지 않은 이방의 양들의 구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구원의 스케일은 천하 모든 민족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모아 그들 위에 임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교회이다.

6. **학개의 목회사역 (학2:10-23)** - 성전재건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함으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의 마음에 부흥의 불을 붙인 그의 메시지는 어떠하였는가? 첫째, 죄를 지적했다. 제사장의 생명인 거룩을 상실한 죄를 책망했다. 아담이 잃은 거룩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기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거룩을 회복한다. 둘째, 그 결과를 보여주었다. 거룩 상실로 징계받아 포로가 되었음을 날카롭게 드러냈다. (1:6,9, 2:17) 그리스도인의 믿음 상실은 모든 일의 불가능을 가져온다.(빌4:13) 셋째,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임하는 소망을 보여주었다. 1:21절의 진동의 약속은 당대의 성전재건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나타났다. 학개 시대보다 더 행복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완성된 영광을 늘 누리기 위해 죄를 멀리하는 삶을 구해야 한다.

7. **성전건축 (학 2:6)** -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 재건이었다. 그 중 성전건축이 중심인데도 그들은 안일에 빠져 자기 집은 견고하게 세우는 데 성전건축은 기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뒤로 미루었다. 학개의 계시는 그들의 외식을 깨우치는 목사의 사명이다. 그 책망을 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성전을 재건했으나 건물 성전을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 속에 하나님 임재로 충만한 참 백성의 형상을 가진 민족이 되게하는 것이다. 언제나 이 일은 마음의 부흥으로

시작되었다.(1:14) 그리고 그 우리에게 들지 않은 이방 양들을 통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 구원의 스케일은 천하 모든 민족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모아 그들 속에 임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교회이다.

8. **종말의 구원 (학2:18-23)** - 종말론적 구원을 지향하는 성경의 흐름은 학개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어떤 구원인가? 첫째, 새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성전재건은 여호와 경외 신앙의 회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의 새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한 것이다. 성전 건축보다 그 위에 임할 영광을 더 강조하기 때문이다(5). 둘째, 열방의 구원을 말한다. 학개는 열방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계속 말하고 있다(22). 그 예언대로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맛보며 모든 민족 중, 자기 백성이 예수를 통해 구원 받는 현장을 보고 있다. 셋째, 만유 구원을 말한다. (21). 더 나아가 그 구원의 폭은 하늘과 땅 끝, 만물을 진동시키는 구원이 될 것을 미리 본 것이다. 모든 날의 마지막에 그 아들이 계속 일하시는 종말 시대에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IX. 스가랴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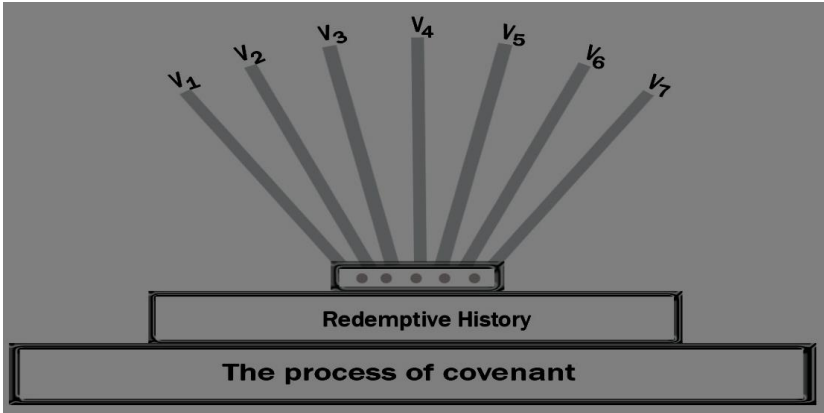
1. 스가라의 개요:

스가라는 바벨론 포로 귀환 1 세대의 배경을 가진다. 그의 밤 이상은 다리우스 2 세 때이다. (520-519 주전)

스가라의 일곱이상은 그리스도 구속의 영광 곧, 하나님 형상회복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부분의 해석은 MG Kline 의 스가랴 강해서, “ 보좌에 있는 영광 (The glory in the midst) “ 에 근거를 두었다.

- 1) 붉은 말 탄 자의 이상 (슥 1:7-17)
- 2) 역사의 심판자의 이상 (슥 1:18-21)
- 3) 측량줄을 가진 사람의 이상 (슥 2:1-13)
- 4) 나의 종, 나의 줄기의 이상 (슥 3:1-10)
- 5) 금 촛대의 이상 (슥 4:1-14)
- 6) 하나님의 심판의 지혜의 이상 (슥 5:1-11)
- 7) 네 병거의 이상 (슥 6:1-15)

2. 스가랴서의 구조



설명:

1. 일곱이상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는 구속 역사를 보인다.
2. 일곱이상은 그리스도의 구속 과정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동시에 나타낸다.
3. 일곱 이상은 교회 안의 하나님의 형상인 의인신의 회복과 그 영광을 포함한다..
4. 일곱이상은 히브리문학의 Chaostic method 으로 4 번째 이상을 중심으로 양쪽의 3 쌍씩 발전적 주제를 가지고 본스가라의 주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속의 역사의 흐름속에 언약의 과정을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강림, 고난, 죽음, 부활, 성령강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의 배경 속에 의인신의 영광을 나타낸다.

5. 일곱이상은 구속의 칭의 성화 영화를 나타낸다.

6. 스가랴 일곱이상의 비교표

이상	본문	주제	상징	해석	구속적성격
1	1:7-17	불은 말 탄 자	말탄 자 깊음 화석류 나무	성육신전 그리스도	구속의 중심, 중보자
2	1:8-21	열방의 심판자	네 뿔 네 일꾼들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시리아 그리스도	구속의 기준 하나님의 의
3	2:1-13	측량줄을 가진 사람	여호와와의 사자	성육신전 그리스도	절대 보호와 구속적 사랑
4	3:1-10	종	순	그리스도의 속죄	속죄
5	4:1-	금등대		성령의 적용적 사역	성령의 역사

	14				
6	5:1-11	주님의 심판의 지혜		하나님의 의	구속의 의
7	6:1-15	네 병거의 이상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구속의 중심 심판주

1) 의미

- 1) 일곱 이상은 구속사의 흐름을 나타낸다.
- 2) 구속 방법은 그리스도의 속죄이다.
- 3) 구속자는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이다.
- 4) 구속적 성격은 의 인 신 곧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열매로 이루어진다.

2) 적용

- 1)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
- 2)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3)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의인신의 연합으로 나타난다.

4)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은 영광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된다.

1. 첫째 이상, 붉은 말 탄 자 (슥 1:7-11)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구속역사로서 잘 배워야 한다. 동양의학의 관찰처럼 우리가 성경의 어떤 파트를 해석할 때 강약의 흐름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선지서를 해석하는데 더욱 더 우리는 그런 예민함을 필요로 한다.

스가랴의 일곱 이상 속에 구속 역사의 흐름을 알기 위하여 첫 이상에 집중함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이 비전을 잘 이해한다면 성경 속에 상징주의를 해석하기 위한 열쇠를 얻기 때문이다. 스가랴 1:8은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했다. 여기에 우리는 한 이상 속에 3가지 특징, 붉은 말 탄자, 계곡, 그리고 화석류 나무를 발견한다.

첫째, 붉은 말 탄 자가 누구인가? - 붉은 말이 먼저 나오고 다른 말들 즉, 다른 붉은 말, 갈색 말, 흰 말을 통제하기 때문에 대표하는 말이다. 10-11 절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라고 했다.

1)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1) 말탄 자의 행동은 “승리”를 의미한다. (계 6:1-3)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룡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쌍을 이룬 7 이상 속에 보여진 것이 해석한다.

(2) 말탄 자는 초자연적인 분으로 묘사된다. 8 절에 그 사람은 계곡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10-11 절에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이고 그는 구약에 나온 성육신 전 그리스도로서 특이한 천사이다.

(3) 그는 왜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골짜기 속에 있는가? 그리스도는 구속을 2000 년 전에 완성하셨다. 그는 성육신전 그리스도인 여호와의 사자이셨다. 그가 스가랴가 본 이상의 참된

실체이다. 신약의 그리스도는 600 년 후에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나셨다. 지금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구속자를 미리 본다. 히브리서 1:3 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다. 지금 예수는 어디있는가?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다.

그래서 그의 비전은 우리 구원의 영광스러운 실체를 나타낸다. 우리가 그것에 접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속 역사적 은혜를 볼 수 있다. 이미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그 풍성한 구속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대로 우리는 여러 사건 즉, 창조,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의 정착 속에서 같은 은혜에 속한 내용을 발견한다.

창세기 1:2 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로 나타난 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우리에게 구속의 실체 곧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주는 영이시다 (고후 3:17)” 고 말할 수 있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은 후 임재의 장소인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마 28:19-20 고전 5:17)

그리고 출애굽기는 더욱 중요한 사건 곧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 광야의 성막과 초자연적 기적을 나타낸다.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가 통제했던 현현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그리고 가나안 점령은 역시 실체를 가리킨다. 참

가나안은 젖과 꿀이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가리킨다. 정착자들은 사방으로부터 곧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안식을 얻었다.

우리가 스가랴 이상과 관련시켜볼 때 구속, 구원, 속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 여호와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풍성한 구속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격려하기 원하셨다. 우리가 개인의 죄와 나쁜 상태 속에서 절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요 1:14) 선지자가 본 것은 은혜와 진리인 독생자의 영광이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누구인가? 붉은 말탄자인 그리스도 뿐이다.

둘째, 깊은 골짜기를 본다. - 말탄 자는 깊은 계곡, 혹은, 골짜기 속에 서 있다. 무슨 뜻인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메술라(깊음)의 어원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곡은 깊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파멸, 죄, 영적 어두움을 가리킨다. 스가랴는 동일한 이상 속에서 죄와 정죄를 보는 것이다. 실제로 깊음은 여러 계시 속에 나타난다.

창세기 1:2 절에 창조 전에 본래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것은

깊음, 혼돈, 흑암 등이다. 창조가 혼돈, 깊이와 흑암의 배경에서 시작된 것 처럼 재창조인 구속도 죄, 저주, 지옥, 죽음에서 시작되었다. 깊음은 계시록에 무저갱 같은 지옥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깊음이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도 나타난다. 그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 구출 정도가 아니고 죄와 저주에서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 계시이다. 창 8:1-2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라고 했다. 여기에 홍수는 깊음이라고 불리워졌다.

출애굽기 사건 속에 또 나타나는 깊음에 대하여 미리암은 이스라엘이 깊은 홍해에서 구원을 받을 때 노래했다. 출 15:5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인대로 본 이상은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구원을 선포한 것이다. 한마디로 스가랴는 놀라운 구원을 본 것이다.

요약하면 구주는 여호와와 사자, 그리스도이고 구원은 절대적 파멸에서의 건지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속에 전적 부패성의 상태를 인정해야 한다. 참된 구원은 두가지 일 곧, 영광스러운 구원과 절대적 죽음의 상태를 기본으로 한다. 이것이 참된 구원의 진면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이 이사야 6:5의 경험과 같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천사가 서 있는 화석류 나무 -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화석류 나무는 에덴의 영광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그리스도가 내려 간 곳이 절대 어두움이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 그의 임재가 그곳을 다스린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 즉
빛, 자유, 소망 그리고 변화하는 생활을 가리킨다. 성령이 어떤 때나
어디서나 일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임재, 영생, 영적 은혜 그리고
신령한 풍성함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이고 우리의 재창조이다.
스가랴는 구속의 풍성함과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
구속을 보고 있는가?

주님의 변화산에서의 변형 사건이 영광스러운 구속을 보인
장면이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변화되었다. 그 때 베드로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종사오니” 라고 고백했다. 그가 구속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오늘 사건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구속과 그 영광을 가리키는
스가랴의 영광을 본 자이다. 우리 목회사역 속에 우리는 동일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내가 여기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자발적으로 행해야 한다. 우리는 그 이상을 가져야 한다. 역시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 때 우리는 참 위로, 참 구주 그리고
참 구원을 알게 된다.

2. 둘째 이상, 역사의 심판자 (속 1:18-21)

서론:

그 선지자는 “네 공장의 이상”을 보았다. 계속적으로 스가라는 세상 역사를 통제하는 다른 이상을 본다.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이상을 애해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섭리 하시는 전능자의 손이 라고 말할 수 있다. 킬링필드 중 하나인 캄보디아의 역사도 이 속에 포함된다.

캄보디아 선교역사 속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볼 수 있다. 그 속에 캄보디아 정부가 프랑스 아래서 어떤 선교사의 입국을 거절했다. 그때 미국 몬타나 주에 살았던 한 크리스찬이 25 년 간을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때 프랑스 왕의 공주, 그녀의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외국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들어오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때 캄보디아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 주님은 그의 뜻을 위하여 국제적인 상황 속에 일하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관찰해야 한다. 이 손이 우리 마음에 일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 학교 생활 그리고 목 회 생활에 일하신다. 여기에 나온 네 공장장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 가?

I. 하나님은 세상의 절대 심판자이시다.

누가 네 공장장들에게 명령했는가? 넷은 양 사방에서 사역한 일꾼의 반경이 지엽적이 아니고 세계적이란 말이고 공장장이는 계획된 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심판의 사자들을 가리킨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발리지 않은 집안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전 애굽에 일어나고 동시에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심판의 칼 날을 피하여 보호를 받은 사건은 온 세상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며 동시에 건설하시는 분인 여호와와 사자들 혹은, 그들의 주관자이신 일곱 영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섭리의 영이시고 심판의 영이시다. 그 영으로 불택자는 심판을 당하나 택자는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 바벨 론의 억압아래 주권의 하나님이 이 큰 일을 명하신 것이다. 그의 명령은 그만이 창조자, 심판자 종결자이 시기에 절대적이다.

그리고 둘째 이상이 첫 이상의 내용과 연결될 때 여기 네 공장장자들은 여호와와 사자들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에 이 두 사역을 집행하는 주의 천사들, 혹은 성령 혹은 종말론적 복음증거의 사명을 받은 교회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막 16:43)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징계를 받는다해도 하나님의 변함 없는 사랑은 게 속되었다. 그의 불타는 진노 중에서도 그는 자기 백성에 대한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다. 그 사랑이 징계로 나타났 다. 공장장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네

빨들인 이방 강국을 부숴뜨리고 이스라엘로 그들을 다스리는 자리로
우뚝 세우기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보여준다. 집나간 둘째 아들을 다시 자기 아들로
회복시키는 성부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 (눅 15:) 그래서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의 징계를 필요로 했다. 히 12:7-11 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
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 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 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다. 징계가
있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란 것이고 이것이 없 는 무관심은 무서운
저주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호와와 사자가 보낸 네 공장장들(craftsmen)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보내신 분의 명령을 절대 적으로 집행한다.
길잡이는 왕의 권위를 가진다. 기독교의 설교자는 왕의 헤랄드로서
왕적 권위로서 일하는 사람 들이다. 만일 그 사람이 그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는 왕과 그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설교자는 그가 왕
의 권위를 가진 집에서 이 세상 중심에서 새 역사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 중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사야 56:8-11 절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이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 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 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절대 권위이다. 네 공장장은 네 뿔, 곧 바벨론 메대 페르샤 그리고 헬라를 떨어뜨린다. 그들이 역사상 강한 민족이 었다해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패망했다.

그 예로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는가? 벨사살 왕이 궁정에 있는 성전기구를 이용하여 그의 대신들과 술잔 치를 베풀 때 갑자기 한 손이 나타나 벽에다 글을 썼다. “(단 5:25-27) 마침내 그 날밤 그 나라는 다른 사람에 의 해 파멸되었다. 하나님이 그 왕을 자신의 손으로 멸하신 것이다. 역사 속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통제되었다.

우리 시대에 캄보디아의 모든 사람, 모든 경제, 모든 문화 그리고 모든 정치적 상황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가운데서 일

하시기 때문이다. 지난 주 내가 다 까다 마을에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 나는 그 일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5 명만이 모였다.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50 명까지 늘어났다. 갑자기 한 순간에 한 교회가 만들 어졌다. 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 현재 우리는 모든 마을을 복음화하려는 기대를 해야한 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같이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II.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자이시다.

- 1) 절대 심판자는 완전한 심판자이시다. 완전한 심판자만이 모든 것을 파멸하시고 자신의 전능한 능력 때문 에 제언하실 수가 있으시다.
- 2) 우리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다. 비록 그가 모든 죄, 모든 죄책 그리고 모든 처벌을 처리했어도 그는 우리안에 만물을 새로운 일로서 회복하셨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 (롬 5:17-19)
- 3) 우리는 적극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로 이루어진 참된 구원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세상 에서 완전한 구원을 따르기 원한다. 역사는 문화에 대하여 네가지 태도를 가진 기독교를 보여준다 1) 모든 문화 를 파멸하는 기독교 2) 문화를 떠나지 않는

기독교 3) 문화와 타협하는 기독교 4) 문화를 과멸시키고 재건하는 개혁적 기독교가 나타난다.

청교도들이 집을 세울 때 주님이 사시는 집을 세우려는 마음으로 건축했다고 한다. 그들은 모든 것에 주님이 완전한 심판자로 믿기 때문에 백성들에 의해 환영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비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그가 어떤 일에 불평만 한다면 그는 부정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III. **하나님은 세밀한 심판을 수행하신다.**

1)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심판자이시고 완전한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그는 작은 일과 큰 일을 자상하게 다스리시는 심판자이시다. 그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사상을 다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 목회 사역에 우리는 세밀한 분명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원조를 얻는 알량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 속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 때 우리는 강한 남자 강한 여자가 될 수 있다. 그 때 우리가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도움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깨어있어야 한다. 우리는 감사한 생각을 해야 한다. 가난한 이웃을 도우려는 꿈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나? 돈이나 권력이나 지혜인가?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건한 생활로 변화시켜야 한다.

결론: 캄보디아가 우리를 부르고 동남아시아가 우리를 부른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그늘아래 복음의 깨달음없이 지낸다. 우리는 급히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속의 흐름에 던져야 한다. 그는 절대적 하나님이고 자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3. 세제 이상, 측량 줄을 가진 사람 (눅 2:1-3)

서론:

여기에 붉은 말을 탄 자는 성육신 전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성취하실 것인가? 우리는 거기서 구속과 관련된 세가지 중요한 이슈를 발견한다. 먼저 우리는 그가 여호와 사자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스가라는 자기 백성을 위한 여호와와 사자의 구속을 보기 때문이다. 그 비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낸다.

I. 그것은 예루살렘을 우리의 절대 피난처로 만드는 것이다.

1) 3-5 절의 비유의 초점은 성벽없는 도시로 불 성곽으로 예루살렘의 보호에 놓여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구속의 풍성한 실체를 제시한다. 그들은 무엇인가? 그들은 에덴동산의 절대 보호(창 3:24)와 북 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시리아로부터 보호 받음을 가리킨다. (왕하 6:15-19)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이중적 보호자이시다. 후에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이중적 보호를 약속하셨다. (요 10:28-29)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보호 받은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불 성곽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것이 불 성곽이다. 이사야는 하나님 백성의 절대보호를 강조한 바 있다. (사 41:8-10) 구약은 이런 상징적인 사실을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무장 속에 산다. (엡 6:10-11) 임마누엘은 보호 중 보호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길 때 우리는 이런 보호를 주장해야만 한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장래에 돈, 건강, 그리고 관계에 이 이슈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 그 때 우리는 풍성한 구속의 요소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본다.

II. 하나님은 왕국을 다스릴 것이다.

1) 6-9 절에서 우리는 우리 구속의 특징으로서 그 나라의 또 다른 요소를 발견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주권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상태에서 부터 자유를 줄것이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네 바람)원수를 파하실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시온을 사랑하신다. 그의 심판의 손은 주님을 깊이 알게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그 나라의 통치로서 땅에 넘치게 될 것이다.

2) 지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땅에서 그의 통치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도 이런 다스림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통치를 곧 성경의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구해야 한다. (마 6:33)

III. 열방이 그 도시에 연결될 것이다.

역시 구속은 놀라운 다른 특징을 가리킨다. 그것은 민족적 시온 이외에 보편적 구속을 가리킨다. 그래서 10-13 절은 구속의 보편주의를 강조한다. 즉,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된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그 예언은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사도행전은 모든 나라의 백성이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섭리적 손에 의한 세밀한 구속 성취이다.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산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속에서 영광스러운

구속, 절대적 보호 그리고 주권적 통치를 보아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분께 바쳐야 한다.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선포하기를 마친 후 영원한 세계로 가야 할 것이다.

결론: 이 세상의 비참한 이상을 보지말아라.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비전을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의 뜻에 던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충만이고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원천이고 그리고 세상 안에서의 우리의 능력이다.

4. 넷째 이상, 내 중, 순 (슥 3:1-10)

서론:

그 이상은 죄 즉, 새 일을 방해하는 거침들을 해결하는 구속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더러운 옷 속에 있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상징한다. 먼저 하나님은 사탄의 고소를 묵살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옷과 새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그리고 장차 나올 새 순은 땅에서 나올 것을 보이셨다. (8)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새로운 순으로서의 우리 주님의 구속을 즐기기 위하여 더욱 풍성한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누가 새 순이며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 새 순의 역사를 안다면 영광스러운 복을 알 것이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복인가?

I. 그는 모든 죄를 영원히 제하셨다.

1) 본문은 욥 1:1-3 절에 나온 광경과 같다.(1) 하늘법정에 서있는 여호수아는 사탄에 의해 고소를 당한다. 여호와와 사탄을 두번이나 꾸짖었고 그가 걸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과 새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4-5)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법을 지키며 내 집과 내 마당에 고할 것이라고 했다. (6-7)

2) 여기서 우리는 죄 사함에 관한 두가지를 배운다. 하나는 죄는 우리에게 절대적 파멸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파멸은 죄 때문이다. 둘째 오직 여호와와 사자만이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실 수 있다. 여호와와 종을 죄 때문에 고소한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또다시 비난할 수 없도록 책망했다. 천사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3) 여호와와 사자 혹은, 여호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주님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히 10:17) 우리는 때로 능력과 기쁨을 잃는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 때로 우리는 자극적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른다. 그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실패없는 사랑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험이 없는 기도로 우리의 이웃을 도와야 한다.

II. 그는 우리의 순으로 오셨다.

1) 8-10 절에서 우리는 그 이상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종말에 그리스도가 오심의 이상인 새 순의 사역이다. (8, 사 11:1 렘 23:5)

2) 순은 무슨 일을 하시나? 1)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둘째 사람 혹은 마지막 아담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때 불구덩이에서 건지신 부지깽이가 아니라 새순의 운동, 거자씨 운동 그리고 누룩 운동을 완성하실 것이다. (고후 5:17) 2)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는 풍성한 열매를 생산할 수 있다. (요 15:5)

3)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효과적인 죄사함이 영원히 만들어 질 수 있다. 여호수아 앞에 세워진 돌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9 절에 세겨진 돌과 비석은 온 세상에 보내어진 성령을 가리킨다. 그는 그리스도의 장점을 효과적이게 하신다.

4) 일곱 마귀의 역사는 대피하고 일곱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될것이다. 참된 영적 교제는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어질 것이다. 10 절은 그 날에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말했다.

5) 그 백성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날은 성령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타낼 것이다. 여호와와 종으로 표현된 여호와와 여호와 혹은 여호와와 사자는 2000 년전에 일하셨고 지금 성령 안에 새역사를

이루신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스도 안의
풍성한 교제를 기대하라. 이 복된 장소로 가야 한다.

III. 우리는 순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1) 연한 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기
위하여 세상에 그 땅에 왔을 때, 비록 그가 약하고 못생긴
얼굴일지라도 그는 땅과 하늘에 그렇게 강하고 아름다웠다. 그의 작은
가지 곧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에 풍성한 열매를 가져와야 한다.
(요 15:5) 그 상태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친숙한 것이다. 무슨 종류의 열매인가? 그 속에 두
종류의 열매가 있다. 하나는 인격의 열매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세상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이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전도의 열매이다. 세상에서 제자 삼는 일이다.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가? 그것은 그 순에 붙어있을 때 맺는다.
특별히 우리는 종말론 시대에 산다. 우리의 목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의인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많은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다.

결론: 스가라의 예언에 의하면 마른 땅에서 나온다. 그는 우리 주권적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신다. 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을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나아가야만 한다. 주의 부름에 응답해야만 한다.

5 다섯째 이상, 금 등대 (속 4:1-14)

서론:

1) 우리는 계속 스가랴의 6 이상 속에서 놀라운 구속의 풍성함을 보았다. 그리스도를 강조한 넷째 이상을 비교함으로서 그 그림 계시는 성령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구속의 실체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본다. 우리는 스가랴의 이상 속에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보는가?

2) 특히 본문의 이상은 성령만이 큰 산을 평지가 되게함을 강조한다. 7 절에 황금등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황금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리고 올리브나무의 두가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I. 성령은 큰 산을 평지같이 만드신다.

먼저 우리는 그 이상에서 등대(모래나)를 본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순수한 황금등대의 이미지는 교회의 부흥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일어남을 가리킨다. 이 일은 구약과 신약의 양쪽에

보여진 것이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일이 상징 혹은, 직접적 사실 속에 표현된 성령에 의한 구속에 집중했음을 믿는다. 사도행전을 살필 때 우리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취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행 1:8)

오순절날에 성령은 교회에 임했다. (행 2:1-2)

성령이 임하실 때 무리가 또 다른 권능을 받았다. (행 4:26-29)

성령이 교회에 의존했을 때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졌다. (행 10:45)

그리고 성령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어떤 지침을 주셨다. (행 3:2)

복음의 문이 유럽에 열릴 때도 교회는 성령의 지침을 받았다. (행 16:6-7)

모든 문제가 그 땅 위에 정치적, 종교적, 영적 모든 문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었다. 교회 앞의 모든 거친 장벽은 평지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구속을 일곱 주의 역사로 증거하신다. (10, 3:9) 모든 지역으로 보냄받은 성령이 평지가 되게하셨다. 모든 것을 감독하는 천사의 역사는 뿔을 제하는 능력,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 그리고 모든 죄를 제하는 능력(3:9)으로 성령의 전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것은 종말론적 역사이다. (사 40:4, 42:16 마 17:20 21:21-22 막 11:22-23 록 17:6 고전 13:2) 우리 죄의 모든 산들은 우리 앞에 무너졌고 모든 문제는 벌써 멸망하였다. 그대가 어떤 문제의 산을 만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한다. 그 때 당신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II.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성취하신다.

성령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어떤 영적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확고하게 서 있는 백성들이다. (14 절) 영적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령의 통로이다. 수천볼트의 전기가 흘러도 그것이 전깃줄이 없다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본문은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약속하시나? 그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신다. (목적- 성취) 그리고 성전건 축을 시작하시고 (동기, 금기름, 성령) 성전을 성취하셨다. (방법- 신실함) 그들의 영적지도력에 의해서 우리의 사역 속의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고 기도해야만 한다.

III. 성령은 기도의 복종을 통해 일하신다.

스룹바벨의 사역에 대하여 무리들은 복종, 조화 그리고 협력으로 응답했다. 주님은 선언하기를 스룹바벨에게 은총 은총이라 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응답을 요구하신다.

7, 10 절은 성도의 복종은 놀라운 일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보인다. 그래서 복종은 제사 이상이다. 특히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도구이다. 기도 없이 사역도 없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종을 점검해야만 한다. 그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성취되어질 것이다.

결론: 성령을 통하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흐르도록 모든 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자. 그대 앞에 평지로 변하게 하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는 모든 산이 교회 앞에 평지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6. 여섯째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지혜 (슥 5:1-11)

서론:

본문은 두 내용 즉, 한 이상 속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예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보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지혜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두 상징주의가 심각한 죄(우상숭배와 음행)로 타락한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을 설명한다. 하나님이 수행하신 심판의 지혜란 무엇인가?

I.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방 여인은 세상의 죄를 의미한다. 6 절과 7-8 절에 낚 텃개는 유대

백성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현재 세상에 악한 죄를 금하시는 지혜이다. 노아 홍수는 세상의 강포한 죄를 통제했다. (창 6:) 다윗을 극도의 정욕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었다. 세상에 급속히 변진 당대의 죄는 하나님의 손, 곧, 답소리 (베드로), 당나귀의 말(발람) 혹은 어떤 고난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II.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셨다.

1) 9 절과 10 절은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에 분명히 둘을 구분할 것을 가르친다. 이것이 성령의 지혜이다.

III.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죄의 소원을 통제하신다. (9) 그 날개는 에스겔의 그룹의 병거와 같다. (1:23-25).

성령은 우리로 죄로부터의 자유와 필요를 충족시키고 가시로 부터 자유케 하신다.

결론: 우리 목회와 선교사역에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만 한다. 목사 장로 집사는 세상에서 성령의 지혜를 사용해야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교지는 하늘 지혜를 대적하는 세상 지혜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야고보가 강조하는 위로 오는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 (약 3:13-18)

7 일곱째 이상, 네 병거의 이상 (속 6:1-5)

서론:

네 병거의 이상은 1-8 절로서 마치는 스가랴의 마지막 이상이다. 9 절부터 대관식이 나온다. 비록 대관식이 상징주의이지만 메시아 왕의 통치를 보여준다. (9-14) 순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을 평화로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가랴의 중심 메시지는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추구해야만 하는 부흥이다. 로마서 8:28 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성취한 선은 우리 본문에 두가지 사실을 말함으로서 영적 부흥을 가리킨다. 그들은 무엇인가?

I. 그것은 충만한 사역을 의미한다.

1)본문의 네 병거는 첫번 이상과 관련된다. 흰 말, 검은 말, 색깔있는 말의 활동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킨 시리아, 바벨론 에굽같은 열방을 가리킨다. 그곳이 8 절의 성취이다. 이것은 메시아의 번성을 가리키며 스룹바벨 앞에 높은 산은 평지가 되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두가지 일을 배운다.

1)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그림 속에 암시한대로 매우 절대적이다. 그의 일과 섭리는 강한 산에서 나오는 병거처럼 그의 사역과 그의 섭리는 주권에 의해 성취되어질 것이다

2)둘째, 우리는 하늘의 네 바람이 가리키는 성령의 역사를 관찰한다. 그는 구원과 심판을 수행하신다. 그는 바람처럼 일하시고 그의 사역은 절대적이고 충분하시다. 십자가의 사건은 성령의 지혜로운 역사를 통하여 충분한 참 구원을 주신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마음에 선하고 충분하다고 느낀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 성령으로부터 오는 참 만족을 즐긴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의 모든 원수를 이긴 비밀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본이다. 그가 사울로 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그를 죽이려는 위협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의 그릇된 장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자기 생애에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이 놀라웁게 일하심을 당신은 보는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사역을 하든지 충만한 마음으로 충만한 사역을 행해야만 한다. 인간의 장점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신뢰함을 구해야 한다.

II. 그것은 평화를 이룸을 의미한다.

1) 5 절에 대관식의 천사가 나온다. 이 일로 말마암아 회개자, 힐대아, 토비아, 예다야 그리고 요시아의 미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 특별히 새 순인 메시야는 세상으로부터 왔고 성전을 세우고 평화의 일을 세운다. (12 절) 그는 평화의 일을 채우시는 대제사장과 왕이시다. 현실적으로 그는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 그것은 3:10 의 성취이다.

2) 오늘날 우리 세상은 하늘의 평강을 필요로 한다. 사람, 가정 그리고 국가의 모든 평화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서 온다. 왜? 참된 평화가 새순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인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아는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주권을 따르는데서 나온다. 그래서 그는 주권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다. 그의 부하가 그의 주권을 권했을 때 그는 그 좋은 기회에 주인됨을 싫어했다. 왜? 그는 그 살아계신 참되신 주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 주를 섬길 수 있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평화의 길이다.

결론: 우리는 사역속에 충만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 그대는 개인 삶에 이것을 가져야만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가랴의 일곱이상 속에 놀라운 구속을 생각했다. 우리는 복, 우리의 개인적 삶과 목회사역에 풍성한 구속의 복 가운데 거한다. 더욱이 우리는 세상에 그 사실을 선포하고 싶어한다. 스가랴가 그의 마지막 부분에서

계시한 것처럼 우리는 그의 긴급한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완전한 구속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8)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슥 7:1-8)

우리가 점차적으로 새로운 일을 구할 때 주님은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베델 사람들이 주님에게 “내가 여러해 동안 행한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4)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다.(5-7)

I.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를 관찰한다.

(1) 구약에는 그림계시, 꿈, 기적, 우림 둠뎌 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일곱 이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기적, 부패, 정죄와 구원을 말한다. 상징주의, 그림 그리고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계시를 공급하신다.

예를 들어 홍해를 가로지르는 사건은 교회의 세례를 의미한다. 만나 내림은 크리스찬의 영적 양식,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계시를 받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다.(행 2:17)

역시 그는 선자자들을 통하여 계시를 주신다.

(2)그것은 선지자들에 의해 계시되었다. (7,12) 그래서 다윗은 갓과 나단에 의해 협조를 받았고 신약의 바울은 아나니아에 의해 도움을 받았고 소아세아의 일곱교회는 교회의 사자(목사들)에 의해 인도를 받았다. 그 때 교회는 교회의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세워진다. (렘 2:20)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목사들은 그들이 계시 위에 서서 계시의 선포자로 설 때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

3)그것은 성령에 의해 선포되었다. 모세의 법은 성령의 음성이고 성경은 성령의 음성이다. 오늘날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일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신적 인적 성격을 가진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검인 것을 배운다. 오직 이것이 참된 계시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II.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가?

또 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룰 것을 가르친다. 왜 복종이 그렇게 중요한가? 10-14 절에 의하면 불복종에 의해서 아름다운 땅은 광야로 변화되었다. 사울의 실패는 무엇인가? 그가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그의 탐욕을 통제 못했다. 그의 작은 불복종 때문에 그는 그가 욕을 구할 수 밖에 없는 불행한 상태로 떨어졌다. (삼상 28:18) 이스라엘의 파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복종이었다. 그들의 부흥은 이스라엘의 복종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은 이스라엘 속에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여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성경의 거울에 의해서 견고해져야만 한다.

9)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날 (슥 14:1-21)

서론:

마지막으로 성전 재건의 이슈와 14 년 동안의 영적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해결되었다. 현실적으로 스가라는 신약의 영광을 보았다. 본문은 그 날의 영광과 약속을 나타낸다.

I. 하나님은 세상에서 교회를 높이 세우신다.

1-7 절에 의하면 열방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자신이 싸우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가 감람산에 설 때 돌로 나누어져야 한다. 빛이 어두움에 비칠 때 환난 날에 빛이 세상에 비추일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생수가 터질 것이다. 풍성한 은혜가 신약시대에 교회에 임할 것이다. 특히 여호와와는 교회의 원수와 싸우시는 용사이시다. 에베소서 6 장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무기를 의미한다. 이런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완전한 승리 속에 어떤 때 어떤 장소라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승리자 이상임을 외쳤다. 21 세기 골리앗을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울 때 항상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다.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

II. 그 날에 하나님은 세상을 왕중의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스가랴 8 장에서 신실함과 평화로 이루어짐을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그 절정을 본다. 그는 보편적 세계의 왕이 될 것이다. (9-11) 그가 그들을 다스릴 때 어떤 정죄가 없는 민족이 될 것이다. (11) 거기에 아무런 가나안인도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유다를 공격하는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궁극적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혼란한 세상과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복종하는 민족에게 주어진 복을 즐거워해야만 한다. 정말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영접하는 개인 가정 사회에 그러하다.

III. 이것은 장막절을 지키는 약속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있는 날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16-21 절은 열방이 장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막절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다. 20 절은

말하기를 “여호와에 대한 거룩”이란 말이 만방들 위에 새겨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거룩의 전통은 참된 장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롬 12:1-2)

그러므로 우리는 참 장막절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흐름을 즐긴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세계의 능력을 경험한다. (요 7:38-39) 정말 우리는 이 귀한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번째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 날에 성령 안에서 더욱 놀라운 일을 본 것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릴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의 역사를 즐겨워 해야만 한다. (요 7:37-38)

결론:

스가랴의 이상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분명히 나타낸다. 목회사역에서 그 이상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안의 놀랍고 풍성한 영광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것과 동일한 광경이다. (사 6:)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회개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 비참함을 본 스가랴는 우리 목회사역의 기초이고 과정이고 결과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 1:14)

X.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1. **말라기가 받은 계시 (말1:1-14)** - 말라기는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첫째, “여호와와 왕이 시다” 는 뜻을 가진 말라기의 계시는 저 지평선 넘어 하나님 나라의 동이 트는 장면을 생각해 한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 기록을 마지막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영광스러운 메시아 예언은 다른 때보다 더 어두운 시기에 임했다. 둘째, 그 들의 죄는 외식이었다.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반문하며, 예배를 수 박 곁핥기식으로 드렸다.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8) 이 외식은 역시 우리 시대의 죄악이다.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퇴색시킬 때 외식하게 되어있다. 빛이 한 눈을 팔면 금방 어두움이 등지를 트는 것이 역사적 실상 이기 때문이다. 주님 시대에도 하늘 찌르는 바리새인의 경건은 외식에 갇혔기 때문에 구제, 기도, 금식, 전도, 교육, 그리고 연구를 모두 다 하는데도 독사의 자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마23:23)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주의 책망이다.

2. **왕의 요구 (말1:1-14)** - 구약 마지막 계시인 말라기를 통해 보여진 것은 신약에 강림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왕이신 여호와,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보여주는가? 첫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요구한다. 무조건 선택적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2) 조건적인 무반응을 보인 그들과 달리 우리는 부으신 그 사랑에 뜨거운 사랑으로 응답해야 한다. 둘째, 온전한 제사를 찾았다. 6-10절에 이스라엘의 가증한 제사와 달리 옥합을 깨뜨려 자신을 온전

한 제물로 바친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셋째 열방의 왕으로서 대접을 요구한다. 이스라엘이 사명을 잃고 민족주의로 치우쳤다해도 열방 속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치 않았다. 그 나라의 왕,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복음은 온 세상을 뒤덮었다. 그 왕께 순종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3.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 (말2:1-16)** - 본문은 경고를 무시한 제사장들의 불신앙과 타락상을 책망하면서(2,3,8,12) 회개를 촉구하였다.(8)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삶의 표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주의 언약을 사랑해야 한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평강의 언약이며 진리와 화평과 정직의 법이었다.(4-6)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와 맺은 언약이다.(7) 한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사랑의 증거이다. 둘째, 사람과의 언약을 사랑해야 한다. 제사장의 영향은 일반 백성에게 미쳤다. 어릴 때 맹약한 아내와 이혼했으며(16) 그 결과 궤사가 나오고(14) 경건한 자손이 생산되지 못했다.(16) 하나님과의 언약파괴는 사람과의 언약관계에 영향을 미친 증거이다. 가정파괴는 하나님과의 언약파괴의 증거이다. 왕 같은 제사장인 신자들은 이 언약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4. **언약의 사자의 강림 (말2:17-3:5)** -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행위의 둔한 상태(17)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첫째, 언약의 사자는 누구인가? 제

사장이 언약의 사자이나 여호와가 종말에 보내시는 언약의 사자가 있다. (1,7)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셨다. 그는 친히 하나님과 맺은 구속의 언약을 완수하시고?(갈4:4)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의 은혜 언약을 완수하셨다. 둘째, 언약의 사자는 두 가지 사역에 충실하실 것이다. 하나는 불과 잿물처럼 죄를 제하는 구원(2-4)과 다른 하나는 경외치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5) 그리스도의 이 두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 단번에 구원받은 우리는 전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히13:15-16)

5. **회개의 복 (말3:6-15)** - 타락의 길에서 돌아오기에 능장을 부린 이스라엘일지라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었다. (7) 어떻게 돌아갈까? 첫째, 죄를 알아야 한다. 그들의 영적 무지가 문제였다.(7,13,15) 어떻게 돌아가며, 어떻게 도적질했으며, 어떻게 대적했는가를 반문할 정도로 어두웠다. 특히 제사장으로서 십일조와 헌물 그리고 이웃을 돕는 일에 상습적 문제를 일으켰다. 자기의 타락을 진실된 마음으로 스스로 깨닫는 것이 복이다. 둘째, 돌아가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이키는 의지적 행동이 필요하다. 돌아가면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부으심을 느낄 정도로 넘치게 부으신다. (10) 무엇보다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유쾌한 날이 이르게 하신다.(행 3:19) 이 복된 일에 참여해야 한다.

6. **그 날의 역사 (말3:16-4:6)** - 말라기서는 “그 날(the day)”에 관한 계시(1,3,5,17)로 마친다.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고 조명하여 인도하신다는 사실이다. 첫째,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분이 오시면 자기 백성을 인치시고(16-17) 치료하시고(2) 회개에 의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3, 5-6) 섬기는 의인과 배반하는 악인의 구별로 나타날 것이다.(18,1)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실현된 이 사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둘째, 그 날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언약을 기억하며(4) 여호와를 경외하며(16) 엘리야처럼 대적하는 자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복음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6) 그리스도 초림으로 그 날이 온 것을 아는 우리는 모든 일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6. **불과 잿물의 사역 (말3:1-5)** - 말라기가 받은 메시야의 복음 사역은 두가지로 표현되었다. 하나는 불의 사역이다. (2) 불의 맹렬함처럼 불같은 심판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불을 던지러 오신 분, 불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순금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에게 의를 세우시는 불같은 사역이었다. 다른 하나는 잿물의 사역이다. 얼룩진 옷을 클리닝하듯이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씻는다. 죄사함을 통한 진정한 구원이 그를 통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두가지 사역

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

B. 이스라엘 귀환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서론: 이스라엘의 두번째 포로 생활이 첫번 애굽의 430 년 기간의 1/6 에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한 세대의 연단을 통해 눈물로 씨를 뿌린 소수의 선진들을 통해 지켜오던 신앙의 열매가 가나안에 돌아옴으로 이루어진다. 그 때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남겼다. 이 언약 백성들의 생활에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발견한다. 그 중 독특하게 쓰임받은 느헤미야, 에스라와 스룹바벨 그리고 스가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형상인 구속의 열매 곧 의인신의 이상을 여러 그림 계시와 설명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다.

1. 에스라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1) 성령이 하시는 일 (스 1:1-11) - 에스라는 출 바벨론 시대에 쓰임 받은 선지자이며 율법학자로서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 안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가? 첫째, 친히 시작하시는 성령의 역사 를 본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대로 때가 되자,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전건축을 명하신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

시작된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만드시 이루신다. (빌 1:6) 둘째, 성령의 사람을 일으키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하여 사람과 계획이 없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에스라처럼 성령의 사람과 성전을 건축하려는 감동받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5) 셋째, 참 성전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가야 한다. 신자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열납하시고 임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전 3:16)

2) 준비된 일꾼 (스 2:1-54) -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준비되었다. 본문은 어떤 준비된 자들을 보여주는가? 첫째, 이민 1 세 후예들을 준비하셨다.(1-2) 영적 지도자인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등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로 믿는 자들이 귀하다. 둘째, 노래하는 자를 준비하셨다. (41) 하나님 백성의 중심인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 대신 숫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찬양하는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셋째, 문지기를 준비하셨다.(42)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목자와 동방박사를 준비한 것처럼 주님은 자신이 친히 준비된 자를 통해 일하신다. 교회를 세우심에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준비된 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3) **거룩한 것을 쓰신다** (스 2:55-70) - 혼란 속일지라도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결한 것을 쓰시는 분 이심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첫째, 바르실래는 부정을 우려하여 보계가 분명치 않은 자에게 제사장 일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림과 둠뭇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다. (62-63) 하나님은 올곧은 신앙의 사람을 쓰신다. 둘째, 성전 건축을 위해 바쳐진 헌물을 곡간에 보관하는 일꾼을 준비하셨다. (69) 바치는 것의 시작과 바쳐진 것이 제대로 사용되기까지 철저한 거룩을 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도 성결한 사람과 방법으로 한 것만을 주님이 받으신다. 그러므로 거룩이 강조되어 언제나 자신을 살피야 한다.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구별해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거룩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야 한다.

4. **제단수축** (스 3:1-13) - 4 만여 명의 동원으로 성전 건축을 할 때 먼저 제단을 회복하여 번제를 드림은 일의 성취가 바로 되었음을 증거한다. 어떤 재건이었나? 첫째, 말씀을 따르는 재건이다. 모세 율법대로 말씀이 회복 되었다. 성전(교회)의 기반이 말씀이기에 (엡 2:20)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제단이 회복 되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은 예배의 회복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참 부흥이 일어난다.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와 절기의 번제를 드린 것이

바로 이런 원리에서 진행된 것이다. 셋째, 선행의 회복이다. 수직의 회복은 수평 회복으로 나가도록 되어있다. 그들이 회개하여 받은 은혜로 인하여 통곡하며 즐거워하는 소리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이며 은혜의 통로가 뚫리는 순간이다. 이삭의 우물 속에 찌꺼기를 제하는 것처럼 (창 26:12-22) 우리 시대에 무너진 가정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

5. 감당할 시험 (스 6:1-12) - 거민들의 고소로 성전 재건이 중단될 것처럼 보였지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은 주의 일을 더 흥왕케 하셨다. 본문에 어떤 증거가 보여지는가? 첫째, 다리오 왕이 왕실의 권위로 그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1-5) 왕이 조서를 내려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기구를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을 움직여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둘째, 경고와 위로의 조치가 취해 졌다. (11-12)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경비를 책임지고 제사에 필요한 물품까지 공급하라고 했다. 더욱이 방해하는 자에게는 엄중한 벌을 내리기로 했다. 신자 앞에 놓인 장애물은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감당할 시험과 피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고전 10:13) 장기적인 가난으로 고생하는 현실 역시, 자기 백성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

6. 준비된 사람 (스 7:1-10) - 진정한 성전 건축은 외면보다 내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실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우리가 지향할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에스라는 누구인가? 첫째, 그는 아론의 16 대 손이다.(5) 그의 조상 비느하스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으로서 그의 의의 한 행동으로 전 이스라엘의 역병을 중지시킨 일이 있었다. 그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구속 역사의 그릇을 준비하신다. 둘째, 그는 율법에 수고한 사람이다.(10)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식적, 체험적으로 깨달은 사람이다.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단한 그의 마음이 귀하다.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크게 받은 증거이다. 셋째, 자신부터 개혁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 먼저 자신부터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의 작정은 준비된 제물이었음을 증거한다. 그를 본 받아야 한다.

7. 한 사람의 불쏘시개 (스 7:11-28) - 한 사람의 결심은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다.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은 모든 정치권과 경제권을 동원하며 그 일을 자유롭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 아닥사스다를 움직여 철저한 보호를 받게 하셨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 받아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불드셨다.(11-22)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약속을 체험하게 된다.(마 6:33) 둘째, 말씀에 대한 한 사람의 헌신의 결단이 위대하다.

진정한 성전 건축인 영적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 작은 불꽃이 온 산을 태우듯이 내 중심에 있는 말씀의 불은 온 세계를 태울 수 있다. 부흥의 불쏘시개로 살아가야 한다.

8. **예배의 개혁** (스 8:1-20) - 에스라는 시작부터 말씀에 대한 헌신 뿐 아니라 제사에 대한 헌신에도 집중했다. 진정한 개혁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인데 그 특징은 예배자를 만든 것이다. (마 28:19-20) 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원히 즐기는 일 곧,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치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 귀한 일에 일할 제사장이 없었다. 그럴 때 에스라는 3 일 동안 자기 백성들을 살펴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일을 맡겼다. 레위인은 없지만 그와 관련된 명철한 자들을 찾아 섬기게 했다. (16-19) 그 후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21) 아무리 악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자 할 때 장소와 방법보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요 4:23)

9. **변화의 결단**(스 10:1-15) - 요한복음 4 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불행한 결혼생활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달라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결단은 전인에 영향을 미친다. 본문은 이방

여인과 사는 자들의 생활의 변화를 보여준다. 말씀개혁, 제사개혁 그리고 결혼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첫째, 에스라 속에 불타는 개혁 의지를 통해 일어났다. 한 영적 지도자의 소명에 대한 신실함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이다. 둘째, 백성의 중심에 생긴 순종의 결단이 변화를 일으켰다. 법계를 조용히 따르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체험을 한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무리들을 통해 악한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 셋째, 성령의 역사가 개혁의 핵이다. 성령만이 개혁과 부흥의 주체이시다. 다른 보혜사로 임하신 그 분은 개혁을 위해 세상에 보내심 받은 일곱 영이시기 때문이다. 놀라운 영적 변화를 위하여 나 한 사람부터 십자가 지는 결단을 가져야 한다.

10. **진정한 회개**(스 10:16-44) - 에스라 가까이 있는 중직들이 더 큰 죄를 범한 사실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알게 된다. 무엇이 회개인가? 첫째, 시간 내어 자기를 살피는 일이었다. 4 개월간 가족 중심으로 하나씩 점검했다. 회개는 생명의 역사가 직접 일어나는 스파크와 같다. 정성을 다해 총 집중하여 자기 죄를 살피는 자에게 반드시 소망의 길이 열린다. 둘째, 가까이 섬기는 자를 살폈다. 인정을 초월하여 예배의 책임을 진 성가대와 제사장들을 살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행동이 언제나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기록을 남겼다. 철저한 회개의 용단과 말씀 순종의 용단이 실제 회개함으로 나타나게 했다. 진정한 기쁨은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된 것이어야

한다. 이 생의 자량을 벗어나기 위하여 현실의 기적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기쁨을 항상 귀하게 여겨야 한다.

2. 느헤미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1) **느헤미야의 기도 (느 1:1-11)** - 에스라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이루었다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리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쓰임 받았다. 성전 재건뿐 아니라 그것을 감싼 성벽 재건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누구이며 어떻게 일했는가? 첫째,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2-3) 예루살렘 성벽의 훼파 소식을 들은 그의 근심은 선한 양심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안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는 증거이다. 둘째, 그는 책임지고 통회했다.(4) 문제 해결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알고 자기와 자기 조상의 죄를 책임지고 회개했다. 이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다.(5-11) 참된 회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근거할 때 일어났다. 회개하기를 힘쓰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본을 따라야 한다.

2. **하나님의 응답 (느 2:1-10)** - 수심에 잠긴 느헤미야를 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일은 어떻게 나타났나? 첫째, 경건한 슬픔을 통해 나타났다. (1-3) 느헤미야의 근심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이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고민과 근심을 포함한다. 둘째, 이방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나타났다.(4-5)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다. 에스더의 금식기도로 아하수에로 왕이 감동되고(에 5:1-3), 야곱의 철야기도로 에서가 감동된 것처럼(창 3:3-4)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지혜가 많으신 분이다. 셋째,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 (5, 7-8)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자기 심정을 열어 믿음으로 필요한 것을 요구하여 큰 배려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는 강청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믿음의 기도가 어떤 문제의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

3. 느헤미야의 지도력 (느 2:11-20) - 예루살렘에 도착한지 3 일 만에 느헤미야는 성을 둘러보고 현실을 파악함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시작했다. 어떤 방법으로 수행했는가? 첫째,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11-17)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하여 왕실과 인력과 재정 지원을 배려한 왕의 조서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을 알렸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며 주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하는 것이 형통임을 가르쳤다. 둘째, 인위적 수단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 일했다.(18) 그러나 느헤미야는 인간적 방법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헌신하기까지 기다렸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자원하는 산 제물을 항상 준비하신다. 셋째 반대자들을 단호하게 대처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갔다.(19-20) 아무리

반대자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 풍랑으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자원의 심령을 통해 끝까지 일하게 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한 요소들이다.

4. 재건하는 신앙 (느 3:1-32) - 느헤미야의 성벽은 7 개의 문(양문, 어문, 분문, 에브라임문, 옛문, 분문, 샘문, 마 문)과 망대들을 세우고 성벽 보수를 하게 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맡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성실 했다.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다. 첫째,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수리해야 한다.(1-2) 나의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회개와 믿음을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으려는 교묘한 사탄과 세상과 육체 소욕을 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성벽이다. (요 10:28-29) 절대 보호를 보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의 인도를 성실히 따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도 뺏을 수 없다. 새해의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항상” 보호를 믿고 평강을 누려야 한다.

5. 시험을 이기는 길 (느 4:1-14) -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도 시험이 몰려온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온갖 조롱과 위협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째, 그는 기도했다.(4) 실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하나님과만 상대로 문제를 맡기고 현실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감당할 힘을 얻거나 피할 길을 얻는다.(9) 둘째, 두려워 말라고 격려했다.(14) 열 번이나 공격하는 원수 의 목표는 절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 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킬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원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며 담력이 생긴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고전 10: 13)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쓴다면 새해에도 몰려오는 온갖 시험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6. 믿음의 역사 (느 4:15-5:5) - 믿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빛난다. 원수들이 여러 방법으로 성벽 중수를 막았지 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첫째, 한 손에 싸울 무기, 다른 손에 건축도구를 들고 일했다.(4:15-20) 하나님 의 뜻이 확증된 다음은 그대로 하는 것이다.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일 뿐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이다. 둘째, 흉년으로 생긴 형제들의 궁핍문제를 말씀의 표준을 따르게 했다.(5:1-5) 흉년으로 생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양식 문제로 생긴 원망을 긍휼로 풀어나가게 했다. 여호와 경외신앙은 긍휼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여 반드시 좋은 사건을 일으킨다. 바로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형통한다.

7. 섬김의 지도력 (느 5:6-19) -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중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을 보였다. 첫째, 형제의 사랑 을 강조했다.(6-9) 이자

놀이 때문에 생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못하게 했다.
모임에서 하나님 경외에 어긋나는 일임을 알게 하여 그들을 책망했다.
탐욕주의자는 참된 인도자가 될 수 없다. 둘째, 형제사랑을 무시 하는
자는 빈털털이가 될 것을 경고한다.(13) 사랑의 계명은 경외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신에게 돌아오는 특권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더 중하였기 때문이다. 총독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청렴결백한 본을 보인 것은 (15-16, 18)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에서 탐욕을 경계한 것과 같다.(행 20:33) 여호와 경외신 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바가 된다. 이런 섬김의 지도력으로
나 자신부터 무장해야 한다.

8. 불신앙을 만날 때 (느 6:1-14) - 성벽 재건을 계속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어났다.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을 주동으로 한 방해
공작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첫째, 침묵 정진했다.(10)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다섯 번이나 불러낼 때(4-5) 정면 돌파보다
피함으로, 유언비어(6-7)를 퍼뜨려 이간시키려는 꾀계를 침묵
정진으로 이겼다. 심지어 여자 선지자와 남은 선지자들을
뇌물로 매수했지만(14)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극복할 수 있었
다. 둘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았다. (10)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감을 갖게 하는 것 이 마귀가 노리는
목표이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즉시 떠나간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로 떨어뜨리려는 마귀를 대적하여 약속된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

9. 하나님 일이 미친 영향 (느 6:15-7:4) - 52 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첫째, 원수가 무력해졌다.(6:16) 파란만장한 일이 많았을 지라도 뜨거운 헌신을 통해 단 기간에 완공한 일은 원수들을 낙담시켰다.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보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와 손에 있기에 원수는 반드시 망한다. 둘째, 경외 신앙의 능력이 드러났다. (7:2) 어려움 속에 붙든 것은 하나님 경외 신앙이었다. 그 위력이 만천하에 알려져 원수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홍해 속에 마른 땅을 두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원수에게 절망을 안겨 주었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경외심을 더하게 하여 찬송과 감사의 길로 나가게 한 일과 같다.(출 14:-15 장 참조) 새해의 시간 속에 신자의 경외심으로 원수를 이기는 승리가 풍성하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10. 돌아온 광야 교회 (느 7:5-73) - 귀환한 백성의 명단을 보인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됨을 본다.(5) 예레미야를 위시하여 예언된 약속이 불리한 조건 속에 서도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된다.(빌 1:7) 둘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계보를 따라 총 42,360 명이 차례대로 확인되었다. 은사가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갖춘 것은 참 교회의 모습이다. 그들은 하나님 언약을 중심한 연합체를 형성한 구약의 교회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참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엡 4:13)

11. **부흥의 시작 (느 8:1-8)** - 수문 앞 광장에 일어난 큰 부흥을 보인 본문에서 우리는 부흥에 관해 어떤 교훈을 배우는가? 첫째, 준비된 기도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율법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이다.(1) 이것은 성도들이 은밀한 가운데 드린 기도의 은사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허락한 분위기이다. 둘째,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3)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기만 했는데도 감동을 받아 울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엡 6: 17) 셋째,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일어났다.(8-9) 백성들의 집단적 회개와 함께 에스라의 제자교육 방식으로 배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율법의 뜻을 해석해 주고 그들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했다.(7) 성령의 불은 말씀의 부싷들이 부딪칠 때 일한다. 말씀의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마 28:19-20, 딤후 2:2)

12. **부흥의 증거 (느 8:9-18)** - 역사상, 참 부흥의 흐름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 어떤 점에서 에스라의 부흥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같은가? 첫째,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12-13)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 기도한 초대교회처럼 말씀의 구체적인 지도가 계속 일어난 것이 부흥의 증거이다. (행 2:42-47) 성경을 생활화하려는 갈망과 실천이 일어난 것이 부흥이다. 둘째, 하나님의 계시에 충실하려는 행동이 따랐다.(14-18) 초막 짓는 일은 율법에서 명하신 그대로 행한 일이다. 포로이후 처음으로 성대하게 지키는 초막절은 말씀에 성실하려는 모습이다. 부흥은 성경대로 살아가려는 성실한 열심으로 나타난다. 셋째, 성회로 나타났다.(18)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부흥의 증거였다. 하나님이 좋고 그의 말씀이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 마음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13. 성령의 인도 (느 9:1-22) - 부흥은 금식성회를 중심으로 이방인과의 절교와 하나님의 경배를 통해 나타났다. 특별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 첫째, 부르짖는 기도가 일어났다.(4) 8 명의 레위 지도자들이 단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성령의 이끄심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시작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이다. 창조 때에 일하신 그 분(창 1:3)은 재 창조(구속) 때에도 동일하게 일하신다.(행 2:17-21) 둘째,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5) 일찍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광야생활 중 이스라엘을 성령으로 인도하셨다.(13) 20 절에 “선한 영”을 통해 광야에서 의식주와 함께 여행에 필요한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훗날, 그리스도께서 광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바울의 설명은 (고전 10:1-4)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여정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음을 보인다. 그 인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항상 따른다. 범사에 성령의 인도를 인정하며 따라가야 한다.

14. 신실하신 하나님 (느 9:23-37) -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억압 속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첫째,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이끄셨다. (32)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때로는 기적으로(21), 때로는 고난으로(29-30) 연단하여 마침내 언약 백성의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 둘째, 사랑에 신실하심으로 이끄셨다. 그의 진리와 함께 사랑으로 인도하셨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처럼 변덕이 많아도 한번 주신 사랑을 변치 않으시고 여러 방법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 마침내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주심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부로 만드신 것이다.(호 14:8)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15. 언약의 회복 (느 10:1-39) - 언약으로 인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그들이 지킬 내용을 보인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첫째, 영적지도자의 헌신의 중요성을 배운다.(10-27) 느헤미야를 중심한 방백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서명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헌신의 사람을 통해 성취했다.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가장 복된 생애이다. 둘째, 첫

언약의 내용이 다시 확인되었다.28-39) 결혼질서, 안식일 지키는 일, 십일조 헌납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확인되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새로운 무엇을 덧붙이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약속한 것을 회복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 받은 조목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일이다. (계 2:5) 첫 사랑의 언약에 헌신한 신자로 살아야 한다.

16. 거주자의 책임 (느 11:1-12:26) - 예루살렘의 새로운 거주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의 구체적인 명단과 명수가 언급된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 첫째, 백성의 지도자급들은 예루살렘성에 거주하게 하여 다른 성읍 사람들의 안녕을 책임지게 했다.(11:20-22)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둘째, 다른 성에 거주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살아야만 했다.(12:1-26) 이것은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 교회의 은혜를 겨냥한 그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한 삶을 힘쓸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속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특권을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책임이 있다. 우리 주님의 대 위임령에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17. 열납되는 봉헌 (느 12:27-47) -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공된 성벽을 봉헌하는 감격스러움이 어떻게 이루어 졌나? 첫째, 찬송과

감사중심이였다.(17-29, 36-38) 봉헌식에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는 일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증거이다. 둘째, 성결중심이였다.(17) 찬양대원들과 문지기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결에 심혈을 쏟도록 일상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만큼 성결 위주였다.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헌이다. 속기 쉬운 외형적 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적 성품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시 19:14) 성결 안에서의 화평을 구하는 헌신을 해야 한다.(히 12:14)

18. 의를 세우는 지도자 (느 13:1-14) - 봉헌식을 마친 후에도 의를 세우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느헤미야의 신실한 본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 의의 표준인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었다. (1-3) 모세 때 세운 법 질서를 그대로 현실에 적용했다. 암몬과 모압 그리고 발람의 길을 금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이 주목할 일이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둘째, 단호하게 의를 세웠다.(17)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행동을 묵과하지 않고 의의 잣대로 판단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대적자 도비야에게 성전 뜰의 방을 내주는 인정을 단호히 끊음으로 하나님의 대의를 세웠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의지(마 6:33)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1) 어디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19.진정한 개혁 (느 13:15-31) - 교묘한 일에만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일에 까지 의를 세운 귀한 일을 보여주는 본문에서 어떤 본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 안식일에 사사로운 일을 금했다. 백성 중, 안식일에 추수하고 짐 운반하는 것을 경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다. (15-18) 욱신의 안식보다 영혼의 안식을 얻는 예배에 초점을 두는 창조 질서가 그대로 이행하기를 원한 것이다. 둘째, 이방 결혼을 금지시켰다.(23-28) 대제사장일지라도 자기 딸을 산발랏에게 준 것을 본 느헤미야는 그의 직분을 박탈했다. 이스라엘의 성결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한 것 이었다. 셋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성실하도록 가르쳤다.(31) 소극적인 일로 마치지 않고 예배하는 적극적인 일에 힘쓰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3. 에스더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서론:

그 동안 구약 역사서의 전반부인 이스라엘의 역사속에서 왕권과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활동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의 형상 회복이 표현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외방지역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목적으로

이끄셨는가를 에스더서 속에서 관찰한다. 이것은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애굽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그림계시에 속한다. 애굽의 430 년의 바로의 억압 가운데서 우상숭배와 부패한 삶의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인 의인신을 나타내시려고 씨앗을 심고 돋우고 새싹을 길러서 때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바벨론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신정을 이루기 위하여 에스더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의와 인과 신을 이방 땅에서도 나타내셨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책 순서대로 나온 사건들과 성령의 설명을 따라 우리의 관점으로 정리하게 된다.

1. 열방의 왕권 (에 1:1-32)

에스더서의 주제는 열방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며 자기 사람들은 왕의 백성임을 밝히 보여준다. 본문은 어떻게 보여주는가? 첫째, 이스라엘만이 아닌 열방에서도 행사되는 하나님 왕권은 지금도 계속된다. 복음이 들어온 이 세상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왕권이 계속 시행되고 있다. 아하스예로의 왕권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왕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 왕권은 그림계시로서 신약의 절대 왕권인 유대인의 왕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 왕권임을 보인다. 둘째, 와스디의 교만과 아하스예로의 분노는 기회를 사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기어코 세우시는 섭리의 주이시다.

그릇되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사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릇된 것은 심판받는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그의 뜻을 따를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악조건 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낼 수 있다.

2. 섭리의 손 (에 2:1-18)

“주” 혹은 “여호와” 용어가 하나도 없는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강하게 보여준다. 그 섭리는 어떻게 보여졌는가? 첫째, 왕궁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즉, 폭군의 성대한 잔치, 왕명으로 왕후가 폐위 되는 일들이 제각기 단편적인 일들처럼 보이지만 극한 위경에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건지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아무리 절망적 자리라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길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전 7:14) 둘째, 그 손은 기적보다 더 능력이 있고 차원 높은 손길이다. 잔치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사건 당사자들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랍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신자에게 참 위로가 임한다. 믿음으로 나아가 그 손을 붙들 때 이전에 알지 못한 크고 기이한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렘 33:3)

3. 모르드개의 신앙 (에 2:16-3:6)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이 열방에 증거되었던 배후에 모르드개라는 신앙의 사람의 역할이 컸다. 본문은 그의 신앙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첫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사람에게 대한 성실로 나타났다. 아하수어로 왕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 신자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둘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절개있는 신앙을 가졌다. 이 점에 있어서 상관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다. 제 2 인자인 교만한 하만의 태도 속에서 여호와 경외 신앙을 대적하는 증거를 본 것처럼 보인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한 다니엘의 신앙과 같은 것이다. (단 1:7)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상대로 뜻을 정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이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4. 마귀의 꾀계(에 3:7-15)

어떤 점에서 하만은 마귀를 상징하는가? 첫째, 자신의 개인감정 때문에 전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는 악랄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약의 교회이다.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어떤 음부의 권세라도 무너뜨릴 수 없다. 둘째, 여호와 경외신앙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모르드개의 특이한 태도의 원인은 그의 여호와 경외신앙 때문임을 알고 그를 죽이려한 것은 그의 모든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마귀는 하나님 지식을 대적하며 그것을 무너뜨리려는데 능수능란하다. 셋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절대 권력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하만은 왕에게 뇌물을 바치며 온갖 술수로 왕의 허락을 받았다. 편법으로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어두움의 악령들의 치밀한 공격을 항상 예의 주시하여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

5. 사명감 (에 4:1-16)

에스더서는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왕의 분노, 왕후의 패위, 에스더 발탁, 모르드개의 경외 신앙 그리고 하만 손에 유대 민족이 죽는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셨다. 특히 4:14 에 보여진 모르드개 신앙은 백절불구의 사명감으로 표현되었다. 첫째, 자기 백성은 어떤 장애에서도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이다. 에스더의 도움이 없다면 다른데서라도 구원의 손길이 온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사형선거 받은 것 같은 상황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데 있었다.(고 후 1:9) 둘째, 왕후의 직책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자리라는 확신이다. 현실의 부귀영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섬기는 청지기라는 것이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기회는 복중 복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6. 기도의 변화 (에 5:1-14)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의 실천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첫째, 자신의 변화이다. 3 일 금식기도 중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던 중에 얼굴에 광채가 난 것도 자신도 모르게 (출 34:29- 35) 그의 영혼에 능력이 임한 것과 같다. 둘째, 왕의 변화이다. 수개월을 부르지 않던 왕이 자기에게 나아온 에스더에게 금홀을 내민 것은 그가 에스더의 영みに 매료당한 행동이다. 브니엘에서 기도한 야곱을 볼 때, 에서의 한 맺힌 살기가 풀려 눈물의 상봉이 일어 난 것처럼 기도는 원수를 녹인다. 셋째,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터이니 소원을 말하라는 왕의 배려는 에스더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만능의 열쇠라는 말이 진리이다. 하나님과만 상대로 부르짖는 은밀한 기도로 문이 열린다.(마 6:6) 반드시 구하는 자는 좋은 것 곧 복의 원천인 성령을 받는다.(눅 11: 13)

7. 믿음의 기도 (에 6:1-13)

한 날 한 시에 유대인들을 멸하려는 하만의 꾀계 앞에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기도가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가? 첫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려운 일을 해냈다. 믿음의 기도는 이 보다 더한 문제도 해결하며 큰 역사를 낳았다.(약 5:16) 둘째, 기도 후 모든 환경이 에스더 쪽으로 쏠렸다. 불면 때문에 왕이 궁중일기를 보았고 그 많은

기록 중 모르드개가 행한 내용을 보았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이다. 셋째, 하만이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을 살해할 날에 관해 왕의 재가를 받으러 왔다가 영접결에 모르드개 일에 협력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손이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손길이셨다. 요행이나 우연 이라고 말하는 찰나의 상황까지라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의 영향권에 넣으셨다. 기도의 위력이다.

8. 죽음을 없앤 죽음 (예 6:14-7:10)

에스더서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을 복음 빛 아래서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첫째, 하만의 꾀계처럼 마귀가 주의 백성을 한 날 한 시에 죽이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음심으로 마귀를 없이하신 것이 복음이다.(히 2:14) 둘째,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알면서도 마귀는 우리의 죄와 죄책과 옛사람을 빌미로 온갖 유혹으로 죄의 길을 가게 하여 영적 사망에 떨어뜨리려 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의 죽음은 죽음을 없애신 죽음이셨다. (롬 5:8)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히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 볼 때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연약과 질고와 죄와 저주와 사망이 해결되어 참 자유를 얻는다. 바울의 확신처럼 평강의 주께서 사탄을 나의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롬 16:20)

9. 반포된 새로운 법 (에 8:1-17)

하만은 죽었으나 그가 저질러 놓은 유대인 죽이는 법은 그대로 살아 진행되고 있었다. 그 때 에스더는 하만을 죽인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민족의 죽이는 법 철폐를 구했고 마침내 새 법 곧 한 날에 죽게 될 유대인이 구원 받고 높아지는 법이 반포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원수 마귀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마귀로 인한 옛사람과 사망과 저주를 모두 제하는 것이다.(갈 5:24) 성령을 보내 거듭난 마음에 새 법을 새겨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셨다.(렘 33:3) 예수의 죽음 부활 승천의 공로는 이처럼 우리 구원을 완벽하게 이룬 것이다. 유대인이 높아지듯이 거듭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장 높은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10. 성결한 싸움(에 9:1-19)

우리의 싸움 대상 셋은 사탄, 세상 그리고 육이란 사실을 본문이 보여준다. 첫째, 하만을 죽인 것처럼 사탄은 그 리스도의 죽음으로 정리되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중심한 생활을 가르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고전 1:23) 둘째, 그의 아들들을 모두 죽인 것처럼 세상과 육도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모두 죽었다. 이제 신자 앞에는 승리에 승리, 면류관에 면류관이 약속되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반드시 이길 자이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면류관을 주장해야 한다. 반드시 백마 탄 자의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 이와같이 유대인

모르드개의 청원에 따라 주변 원수는 모두 처리되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아무 손을 대지 않았다. 신자가 승리 신앙을 잘못 관리하면 명예, 탐욕이 작용하여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 게하시 그리고 발람처럼 말이다. 바울처럼 일체 순종함으로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한다.

11. 죽음에서 생명으로 (에 9:20-10:3)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즐거운 날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본문에 어떤 점이 복음의 성격을 보여주는가? 첫째, 죽을 부림이 살아나는 부림으로 바뀌어졌다. 복음은 언제나 최대의 기적을 만드는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을 자가 살아난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행 26:18) 둘째,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빌 4:6-7) 모르드개의 높아짐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를 보여준다. 모르드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림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이다.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이 놀라운 승리를 실생활에 누리기 위해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결론: 에스더서에서 억압하는 이방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항상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서 자신의 목적인 하나님 형상 회복을 향하여 그들을 훈련하심을 보여주신다. 일련의 사건들 곧, 염려, 위기감, 고통,

절망, 불평, 탄식 그 리고 긴장이 그들 속에 깊이 스며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셨음을 뚜렷히 보았다. 은의 찌꺼기를 제하려고 세공인이 은을 불 속에 넣을 때 순은이 되면 그의 얼굴이 은 위에 선명히 나타날 때까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빔어지기까지 그 수고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놀라우신 지혜로 행하심을 본다. 죄로 둘러싸인 세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 더 놀라우게 일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어 신정의 절정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C. 시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I.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1. 욥의 경건 (욥1:1-12) - 아브라함시대의 사람으로 추정되는 욥은 경건의 본이 되는 인물이다. 에스겔과 야고보는 욥을 본받으라고 했다.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첫째, 경건한 인격을 본받아야 한다. 2절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했다. 그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모습을 보인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공의와 공도를 행하는 인격을 욥에게서 보기 때문이다. 둘째, 작은 죄를 두려워한 인물이다. 자기 자녀들의 생일잔치에 마음에 지을 가능한 죄를 찾아 제사 드리는 경건의 수준을 보였

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항상 그러했다. 생활에 정착된 것이란 말이다. 셋째, 하나님도 인정하는 경건이었다.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였다.(8) 복음 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수준은 욥과 같아야 한다. 성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눈에 드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1차 시험 (욥1:13-25) - 욥의 고난에는 양면성이 있다. 한 면은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 허락하는 것이고 다른 면은 죄를 짓게 하려고 마귀가 던지는 유혹이다. 첫째, 소유물에 대한 시험. 네 차례의 긴급한 보고는 생각 만해도 아찔하다. 도둑이 와서 약탈했고, 벼락 맞아 죽고, 떼거리의 의도적 공격을 받았고, 열 자녀들이 잔치석에서 압사당한 것이다. 연거푸 당한 시련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둘째, 신앙의 태도. 재를 무릅쓰고 내려앉아 하는 말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지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지오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잡는 길이 그가 피하는 최선의 길이였다. 셋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말이 온전할 때 온전하다는 야고보의 말이 욥에게 해당된다. 불평과 원망하기 쉬운 입술을 지켜 감사와 찬송을 했으니 말이다. 경건의 훈련이 그를 견고하게 만든 것이다.

3. 2차 시험 (욥2:1-1-13) - 욥의 경건은 또 한번 드러났다. 강도 높은 2차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인가? 첫째, 불치병에 걸렸다. 악창으로 온 몸의 가려움증이 극심했다. 소유물 시험보다 더 예민한

시험이다. 그러나 욥은 재에 앉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폈다. 둘째, 아내가 경멸했다. 마귀는 아내를 통해 그를 찌른다.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는 말이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아내마저 신앙의 순전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다. 그때 욥은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가운데 하나같다”고 응수했다. 복도 받고 재앙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셋째, 친구를 통한 공격이다. 세 친구가 소문을 듣고 와 온갖 예의를 갖추며 했던 권고가 욥의 고통을 더하게 했다. 같이 금식하고 같이 있는 것이 위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전에는 그들의 권면이 도리어 큰 짐이 되었다. 어떤 시험 앞에도 살 수 있는 길은 주권을 인정하는데 있다. 이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4. 욥의 탄식 (욥3:1-26) - 욥이 생일을 저주한다. 왜 이런 약한 소리를 했는가? 첫째,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존재가 철저한 무능자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1-12)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 인생 밑바닥을 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기를 본 것이다.(시36:7) 둘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됨을 알았기 때문이다.(13-19) 동시에 그 빛 아래서 임마누엘이 최고의 행복임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할 수가 없다. 도리어 창조의 세계로 나아간다. 셋째, 일상생활 자체가 귀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평강과 안온과 안식이 이 연속되는 탄식과 아픔 속에서도 그 날의 사는 것 자체가 복임을 알게 된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는 주님의 경지에 들어간 것이다. 진리 안

에서의 욱의 탄식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5. 엘리바스의 1차 권면 (욱4:1-21) - 욱의 고난을 목격하고 함께 재에 앉아 동참하던 세 친구 중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욱을 처음으로 권면했다. 어떤 것인가? 첫째, 은밀한 중에 저지른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다. 과거의 경건과 선행에 가리워진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친다.(6-7) 드러난 의를 기준삼아 진실을 토하라고 말한다. 욱의 이성애 호소하여 은밀한 외식주의의 죄를 겨냥했지만 은혜의 안목이 부족했기에 욱을 진리로 이끌지 못했다. 둘째, 그는 신령한 체험과 인생 경험과 해박한 신학 지식으로 접근했다.(12-15)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욱을 위로하고 권면하기에는 부족했고 도리어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나갔다. 셋째, 그는 욱의 경지를 알지 못했다. 계시의 조명만이 실상을 밝히 보고 해결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 의와 은혜가 입맞추는 복음 안에서만 욱을 해결할 수 있다. 복음의 빛안에 거해야 한다.(롬1:16-17)

6. 엘리바스의 2차 권면 (욱5:1-27) - 엘리바스는 욱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실수를 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 같으면 전능자의 정책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에게 구하여 환난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한다. 그 기도응답으로 장수하다가 무덤에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미련한 짓을 하지말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진리지식으로 권했다. 역시 그의 권면은 하나님의 해아릴 수 없는 은혜를 간과하여 욱에게 적중하지 못하여 그의 괴로움만 더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

이 있다”(17)는 그의 말이 진리였지만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또 다른 차원이어야 한다. 진정한 교육과 진정한 카운슬링은 전적으로 성령의 몫이다. 복음의 권면자로 부름받은 신자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진리를 적용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그것은 골방기도로 성령이 역사 하실 여지를 남겨놓고 겸손히 기다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7. 욥의 변증 (욥6:1-30) - 엘리바스의 능숙한 권면은 문제해결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욥에게 도리어 무거운 짐을 더했다.(15, 21-24) 그 때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기의 분한과 재앙을 저울에 달면 바다 모래보다 무겁다고 탄식한다.(2-3) 자신이 당한 현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음식을 보거나 만지는 것도 싫어했다.(7) 그가 당한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한다. 바산의 황소에 눌린 것처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이 대속의 고난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욥은 경외신앙을 유지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10) 그리스도가 큰 고통 속에서도 성경을 이루려고 “내가 목마르다(요19:28)”고 말씀 하신 것과 같다.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말씀을 지킬 때 반드시 소망을 체험한다.

8. 인간의 실상 (욥7:1-21) -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참 위로가 되기 위해 성도의 고난을 사용하신다.(고후1:4-5)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떠했는가? 육체의 고통으로 불면에 시달리며 (4) 이리 뒤척 저리 뒤

척이다가 잠깐 사이에 놀라는 꿈을 꾼다.(14) 살은 썩어가고(5) 물결은 말이 아니었다.(5,8)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숨이 막히기를 원했겠는가?(15) 육체적 고난으로 잠 못이루는 밤이 정말 지옥같은 시간임을 당해 보지 않은 자는 모른다. 이런 중에서도 옅은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놓지 않았다.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의지한 것이다.(18)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 그의 기도는 은혜 받을 그릇이 어떠함을 잘 보여 준다.(21) 하나님 앞에 선 참 인간으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

9. 빌닷의 권면 (욥8:1-22) - 욥의 영적 경지를 이해 못한 빌닷은 여전히 율법의 잣대로 욥의 고난을 사정없이 비판한다. 그가 한 말은 진리였다. 전능자를 구하면 살려주시며 빌고 또 빌면 돌아보시고 미약하나 창대한 날을 본다는 말로 위로했다. 그러나 그 역시 갈대가 물 없이 자랄 수 없고 왕골이 진펄에서 날수 없음같이(11) 욥의 고난은 은밀한 죄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회개치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논리였다.(22) 욥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한 그는 위로보다 중압감을 더해 주었다. 율법의 의는 복음 안에서만 꽃을 피운다. 율법의 의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자기의 무력을 안 바울은 곤고한 자신을 탄식하였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찬송했다. (롬7:24-25) 형제의 고난을 복음의 빛 안에서 이해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10. 주권의 손 (욥9:1-34) - 모진 비판 속에서도 욥은 자아성찰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2)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창조주요 나와 관계없이 모든 일을 은밀한 가운데 행하시는 섭리주 되심을 깨달은 것이다.(2-10) 그 분 앞에 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한다.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이유 없는 고난으로 상처를 많게 하시며 숨쉬기가 힘들 정도의 괴로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했다. (17-18) 욥은 친구들보다 더 높은 진리 안에서 자기 실상을 보고 있었다. 또 무엇이랴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의 주인 됨을 알고 그만이 주시는 구원을 갈구했다.(34)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란 모든 일을 세밀한 사건까지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님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상태이다.

11. 비참에서의 기도 (욥10:1-22) - 본문은 괴로운 심정에서 기도한 욥을 보여준다.(1) 그의 곤고함은 어떠했는가? 첫째, 그는 고난을 허락하신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위해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했다.(2) 주 앞에 선 인생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공휼을 따라 그 이유를 알기 원했다. 그래서 자기의 결백을 겸손히 주장하며 진토 같은 인생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었다.(4-9) 둘째,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여러 가지로 증거했다. 사자의 공격을 받은 사냥감 같으며(16) 군대 침략을 당한 전쟁 포로 같으며(17) 겨우 살아난 갓난 아이 같으며(18) 무덤에 던져진 시체(18)같은 비참함을 토로했다. 셋째, 그런 중에

서도 욥은 겸손한 마음으로(15) 기도하기를 죽기 전에 자기를 구하여 영광 돌릴 기회를 달라고 했다. (21-22) 마치 죽기 전에 살려달라는 다윗이나(시41:13) 히스기야의 간구처럼(사38:16) 환난 날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다.

12. 소발의 단견 (욥11:1-20) - 역시 나아마 사람 소발은 경솔한 판단으로 욥을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욥을 허망한 사람이라 했다.(11-12) 겉모양만을 보고 자기 신앙지식과 자기의 경험의 빛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비취었기 때문이다. 또 그는 욥을 악인으로 단정했다.(20) 하나님과 죄와 언약에 관한 그의 지식은 모두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자유보다 짐이 되었다. 마치 비료를 너무 가까이 주면 식물이 타 죽듯이 선한 율법이 성령의 빛을 통과하지 않을 때 해를 끼칠 수 있다. 형제에 대한 권면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귄이 전제되어야 한다. 진정한 빛은 하나님 앞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요일1:7) 오직 계시의 빛 안에서 되어져야만 치유될 수 있다. 허황된 분위기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자기의 들보를 뺄 후, 형제의 티를 뺄 수 있다는 주님의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13. 욥의 자아발견 (욥13:14-22) - 욥은 고통 중에서도 어릴 때의 죄를 기억하며 “내 허물과 죄악을 알게 해 달라(23)”고 기도한다. 회개는 책임감으로 나타난다. 십자가 우편 강도가 같이 주님을 조롱하다가

“우리가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책임을 느끼며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 날 즉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욥은 진정한 영적부요를 체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고통 속에서 자아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인가? 1) 인생은 낙엽과 가시덤불 같다는 사실과 2)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진 인생은 나무보다 못하다는 사실과 3) 썩은 물건과 좀 먹은 의복 같다는 사실과 그리고 4) 하나님을 잃은 영혼은 전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당신은 이 경지를 맛보았는가?

14. 성령의 빛을 구하자 (욥15:17-35) - 엘리바스는 욥의 부친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인생경험이 많고 신령한 체험이 깊은 신학자처럼 권고했다. 그 권고는 위로보다 욥의 고통을 더할 뿐이었다. 그는 나무랄 데 없는 전통적인 진리를 소개하고 지혜자의 말을 전한다. 악인의 일생은 고통이며 강포자의 헛수는 작정되었으며 환난과 고통이 침략하는 왕처럼 홀연히 오게 된다고 주장한다. 마침내 그는 부요치 못하며 산업이 망하고 흑암에 처하고 하나님의 입 기운에 소멸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적응성있는 진리는 말하지 못했다. 온전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성령의 조명이 없는 정통 신학은 거듭난 영혼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성령의 조명을 겸손히 구해야 한다.

15. 은혜 안에서의 변화 (욥16:1-17) - 섭리적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그의 세 친구는 번뇌케 하는 위로자였다. 과녁삼아 쏜 화살에 적중한 희생물처럼 욥은 비참에 처했지만 그런 중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얻었다. 어떤 것인가?

첫째, 주님의 주인되심을 주장할 수 있었다. 고난 당하기 전, 제 잘난 멋에 살던 철부지한 인생은 하나님의 손아래서 연단됨으로서 자기의 주재권을 그리스도에게 양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둘째, 정결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일어난 증거이다. 진정한 거룩과 정결함은 인간 속에는 건더기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됨으로서만 얻어진다. 성령이 오신 목적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셋째, 정결한 기도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참 기도는 고난의 구덩이에서 골방을 찾을 때 배워진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생의 길을 가는 자의 체험이다. 이 변화를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16. 고진감래의 소망 (욥19:1-12) - 욥이 당한 고난을 더 자세히 묘사하는 본문은 주 안에서의 고생은 의미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첫째, 하나님의 무응답이 그를 괴롭혔다. 이것은 시편에 나온 다윗 고난의 특징이다. 그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의 무응답의 고난을 예견하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뽑힌 식물처럼 소망이 없는 자신을 보고 괴로워했다. 기독교의 신앙은 무소망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이다. 바울의 심각한 약점은 요긴하게 쓰임받는 강점이 될 수 있었다. 셋째, 군대가 침입하는 것처럼 중압감이 압도했다. 욥은 수치심, 외로움 같은 절대 고난을 인내와 수고와 견딤으로 이긴 것인가? 결코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주 안에서 고진감래를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17. 순수한 믿음 (욥21:1-16) - 욥에게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함으로 오는 고통이 있었다. 악인은 부귀와 장수를 누리며 잘 되는데 자신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중 하나였다. 그러나 욥은 자신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아 오직 그만을 의지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는 확신을 가졌다. 아삽처럼 온 종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원수의 조롱 속에서도 낙망치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소망으로 충만했던 것이다. 죄악 문화로 세속화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18. 원망을 이기자 (욥23:1-17) - 오래 탄식하던 욥은 원망하는 시련에 빠졌다. 어떻게 원망의 유혹을 이겼는가? 첫째, 하나님 보좌 앞에 호소함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했다. 이것은 사망의 근심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만든 거룩한 원망내지 탄식이라고 볼 수 있다. 원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된다. 둘째, 욥은 자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확신하면서도 자신을 정직자라고 주장하는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으로 난관에서 곧 벗어날 것을 확신했다. 셋째, 욥은 전후좌우에 보이지 않아 만날 수 없게 된 현실을 탄식했지만 은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연단하여 정금처럼 되어 나올 확신으로 충만했다. 하나님만을 따

라가며 그의 명령을 일용할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귀하게 여겼다. 경의 신앙으로 원망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

19. 욥의 깨달음 (욥24:1-25) -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욥은 전능자의 때에 무지함을 탄식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그 분의 의에 대한 지식을 소유했다. 첫째, 사람의 악행을 기억했다.(2) 경계선을 옮기고, 양떼를 빼앗고, 고아의 나귀와 과부의 소를 빼앗고, 빈궁자를 몰아내며 세상의 빈궁 자가 숨어 지내는 악행을 보았다. 악의 비참함을 살필 때 겸손해지며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린다. 둘째, 소자들의 고통을 헤아렸다. 들나귀 같이 광야에서 식물을 먹고 남긴 곡식을 빼앗으며, 악인이 남긴 포도를 따며, 의복없이 밤을 세워 추위에 떨며 바위를 안고 자는 소자의 고통을 알았다.(5) 고난이 이웃에게 눈을 돌리게 한다. 셋째, 고아의 옷을 전당잡고, 가난한 자의 옷을 불모 잡은 무자비한 악인 곧 광명을 배반한 자의 심판을 확신했다. 의의 하나님을 보는 눈이 뜨여진 것이다. 고난은 나쁜 것만이 아니다. 도리어 고난은 인간의 실상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련의 기회인 것이다.(9,13)

20. 온전한 진리로 나가자 (욥26:1-14) - 욥은 세 친구의 부분적 진리의 깨달음이 해가 됨을 말하면서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묻는다. 첫째, 온전한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욥에게 만족을 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뿐이다. 신자의 만족의 원천인 진리 지식에 있어서 차선책은 해를 끼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온전

한 자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쉽게 타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는 온전한 자리로 나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였다. (히6:1-2) 둘째, 욥의 연단된 인격은 창조주 섭리주 구속주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오직 예수 안에만 쉼이 있고 소망이 넘친다. 진리는 오직 예수뿐이기 때문이며 (요14:6) 그의 말씀(성경)만이 진리이고 우리를 거룩케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요17:17) 온전한 진리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21. 선한 양심의 능력 (욥27:1-23) - 욥의 순전을 지키는 삶은 그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표현이다. 본문에는 어떻게 말하는가? 첫째,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순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5) 선한 양심에서 나온 선한 결심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근거였다. 정말 그는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에스겔 앞에서 다니엘과 아브라함과 함께 욥을 교회의 본으로 삼으셨다. 둘째, 고난 속에서도 그는 은혜의 경지에 머물러 있었다.(6) 자기 평생 하나님의 의를 놓지 않겠다는 양심의 증거를 보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에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셋째, 반드시 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7-23) 선한 양심은 의의 길을 따라 간다. 고난 속에서도 욥이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을 볼 때 이미 감당할 능력을 받은 것이다. 선한 양심을 따라가야 한다.

22. 섭리를 믿는 신앙(욥30:1-15) - 욥은 자기 친구들의 상황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탄식한다. 친구들의 아버지는 자기의 경건만 못하며 그들의 경건 역시 욥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런데 그의 처지는 풀리지 않고 고생 구덩이에 떨어졌다. 이 때 욥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았다.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첫째, 11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힘을 토로했다. 연단을 거친 정금 같은 욥의 신앙은 수천년이 지난 후 신약교회의 경건의 모델이며 경건의 기둥이 되었다. 허다한 증인에게 둘러싸인 복된 자였다. 둘째, 친구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 섭리의 범위 안에 들어있음을 믿었다.(1-11) 성을 파괴하고 군사들이 몰려오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기 본분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호주머니 속에서 참 위로를 받았다. 섭리의 신앙에 참 위로가 있다.

23. 환난이 주는 복(욥30:16-30) - 욥이 당한 환난을 열거하는 본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 소망이 모두 무너진 상태(1), 뼈가 쭈시는 육체의 고통(2), 환자복 처럼 누추함(3) 그리고 티끌과 재에 앉아 기진맥진한 자리에 있었지만(4) 인생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배운 것이 복이었다. 둘째, 기도응답이 없어 바람에 휘날리는 영적 방황, 검은 가죽과 열기로 타는 뼈만 남았다. 자신은 불쌍한 자를 도와주었건만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신 사실로 탄식하며 애곡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전적 무능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순간에도 그를 헛되이 다루지 않으셨

고 그의 자상한 사랑의 손길로 정금처럼 빚어 가셨다.

24. 욥의 의의 수준(욥31:24-40) - 욥이 과거의 부요를 회상하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는 어떤 순전함이 있었는가? 첫째, 물질주의를 극복했으며 우상숭배를 금지했으며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원하는 것을 싫어했다. 심지어 자기 하인들에게까지 그의 순전을 인정받았다. 둘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큰 무리를 향해 의를 주장했다. 소송자가 없을 정도로 걸음마다 의로 가득 찼다. 농경사회의 일터인 밭도 그의 의를 안다고 할 정도로 의의 사람이었다. 마치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바울의 삶을 생각하게 한다. 탐욕주의를 경계하고, 이타주의의 삶을 살았으며, 모든 면에 일절 깨끗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면서 동시에 원수를 사랑하는 높은 수준으로 사셨기에 누구에게든지 허물을 찾으라고 도전할 수 있으셨다. 욥을 순전하게 만든 고난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25. 마음이 정결한 삶 (욥31:1-23) - 본문에 또 다시 나타난 욥의 삶은 얼마나 정결했는가? 첫째, 그의 개인적 삶이 정결했다. 눈과 언약을 세워 허탄과 꾀함이 없었으며 공평한 저울로 자기 걸음과 마음과 손을 깨끗이 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극성이 있는 죄악을 이겼다. 여인에게 유혹된 적이 없었다.(9) 둘째, 소자를 적극적으로 돌아보았다. 남종과 여종의 사정을 듣고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 주었으며 부모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고아를 적극적으

로 후대했다. 셋째,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다. 이런 경건의 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당한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더욱 더 두려워했다. 이 경외심이 욥을 정결하게 만든 것이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보는 자만이 정결한 마음을 갖는다.(마5:8)

26. 밤중에 노래하자 (욥34:31-35:16) - 역사 속의 교회는 무수한 고난의 밤을 맞았다. 영국의 퓨리탄, 프랑스의 위그노, 화란의 거지들 그리고 한국의 신사참배에 맞선 옥중 성도들은 모두 밤에 노래한 사람들이다.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역사도 세상 역사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 중의 노래한 자들을 통해 그의 뜻이 이루어졌다. 욥에 대한 엘리후의 말대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영혼의 밤, 건강의 밤, 시대의 밤, 환경의 밤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는 사람은 노래하게 된다.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도 고난의 자리에서 찬미할 때 기적을 체험했다. 육체에 기적이 없어도 먼저 찬미할 때 영혼의 구원이 일어난 것이다. 성도가 겪는 칠혹 같은 많은 밤은 값진 진리와 기도를 배울 수 있기에 정말 복되다.

II.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시편에서 하나님의 형상회복 곧, 구속을 생각하면 풍성한

열매를 만난다. 시편 5 권에는 많은 상징주의 많은 모형주의 그리고 언약 백성의 많은 경험이 녹아있다. 그 중에 메시아의 왕권 시 2:1-10, 메시아의 죽음 시 22:, 메시아의 계시, 시 119:33-40,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요소를 잘 표현하는 시 17:1-33 를 생각한다.

1. 메시아의 왕권 (시 2:1-10)

서론: 왕의 대관식을 보여주는 본문은 복있는 사람은 메시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임을 선포한다. (참조: 땅의 왕들 - 시 18:, 20:, 21: 45:, 72: 89: 101: 110: 132: 144:) 메시아는 땅에 언제 오시며 우리는 어떻게 메시아를 사랑해야 하는가?

첫째, 그는 환난의 때에 오신다. 1. 메시아를 대적하는 열방 - 1-3 절에 의하면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건지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열방의 왕이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꿇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2. 그러나 메시아가 그들을 철장의 권세로 부수신다. (4-6)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인 메시아의 계시의 과정에서 그는 자기 백성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필요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이시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메시아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를 두려움과 기쁨으로 (11) 그리고 친밀한 사랑(12)으로 섬겨야 한다. 1. **두려움으로 떨며 섬겨야 한다.** - 메시아의 백성은 여호와와의 경외에 관련된 경건으로 메시아를 섬겨야만 한다. 야레(yare)는 “두려움”, “공포”, “경건” 그리고 “극단적 두려움”, “ 경외심”을 가리킨다. 그것은 기쁨을 수반한 떨림을 의미한다.(빌 2:12) 메시아는 가장 위대한 경건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잠 1:7) 그리고 그것은 신약의 크리스찬의 믿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만일 그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된 것일지도 모른다.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시편기자가 행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 존경 그리고 경건으로 충만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왜 우리는 주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가? 이는 우리가 산 진리를 가지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두려운 응답을 가질 수 없으나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실체를 보며 이사야 6:2-3 절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싸인 스랍의 섬김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 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들은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았다. 그들의 두려움은 자기 부인에서 나왔다.(눅 9:23) 2.

사랑(입맞춤)으로 섬겨야 한다. - 실제로 여기 두려움은 메시아를 섬기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한다. 나삭(Nassak) (입맞추다)은 히브리어로 접촉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주체가 그들의 주께 양도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증거 혹은 존경의 싸인을 의미한다.(칼빈) 그것은 영원한 교제를 생각하게 한다. 그 아들과의 이런 친숙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와 연합하고 그의 풍성한 은혜를 즐길 수 있다. 그 때 우리는 메시아를 섬김에 따르는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비록 우리의 원수가 강한 능력으로 공격할지라도 그 아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들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다. 모세가 창 3:15 절에 말한 대로 그의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코이노니아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차적인 사역인 이 전쟁에서 주님과 그의 교제가 중요하다. 우리가 토기를 부서뜨리는 철퇴처럼 그의 사랑과 능력을 즐길 때 우리는 구속 곧, 메시아의 주요한 목적,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9)“를 세울 수 있다.

결론: 구속의 머리, 메시아는 그의 왕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역사적으로 그는 고난의 때에 세상에 오셨고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 그의 왕권은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수행되었다. 마침내 그는 세상 속에서 그의 능력있는 권위를 가지고 왕권을 세우실 것이다. 비록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사역

속에 그 왕을 섬기는 날에 산다. 이렇게 시편들은 메시아를 구속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다. 메시아를 두려워하고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자. 역시 그는 교제의 방법인 두려움과 사랑을 나타내셨다. 메시아의 떨림과 입맞춤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특징이다.

2. 메시아의 고난 (시 22:1-31)

1.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비참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출생의 요람 속에서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 그 사역과 함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그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라 일컬린 시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시편의 배경은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성령은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1200 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사실적으로 본문에 묘사했다. 시편의 구속은 그의 십자가의 구체적인 고난에 대한 영광스러운 빛을 비춤에 실패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대 의 설교자들은 시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다룰 수 있었다. 이제 시편 22 편에 있는 메시아의 고난에 관해 생각하자. (가끔 이것은 시 6, 13, 30, 31, 32, 39, 51, 69, 9, 102, 103 과 함께 탄식 시편으로 일컬린다.)

2. 시편 22 편은 우리에게 메시아의 수난에 대하여 무엇을 보여주는가?

첫째, 메시아 수난은 성령으로 표현되었다. - 다윗이 어떤 일로 심한 고난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능가할 수 없다. 성령이 그의 생애에 일어난 고난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한 수난을 암시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십자가 위의 그의 고난의 분명한 표현을 생각하게 한다.

1) 1 절에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한다. -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한 죄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버림을 당했다. (마 27: 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2) 12-14 절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라고 한다 -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행하

었던 무자비한 여러 단계의 행동이 여기에 묘사되었다. 그리고는 무지
 한 통행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셨다. 마 27:39-43 에 말하기를 “지나가
 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
 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
 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
 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
 도다 하며”라고 했다.

3) 그리고 15 절에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고 내 혀가 입천
 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요 19:28 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
 고 했다.

4) 18 절은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9:24 절은 말하기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
 을 하고“ 라고 했다.

둘째, 그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1) 16-17 절은 말하기를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했다. 그는 사자 이빨로 물어 뜯김을 당한 것 같았고 그의 마음 은 물과 솟밀처럼 녹아났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원수를 검, 들개, 사자, 황소의 뿔로 비유했다.

요한복음 19:32-37 절은 말하기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 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라고 했다.

2) 우리가 아는대로 2000 년전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의 죽음은 세상의 구속을 성취한 중심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교회는 그 사건에 집중해야만 하고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음으로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기억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가상 칠언으로 알고 있다. “다 이루었다. 아들이니 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사” 그 중 가장 중요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임종 직전에 하심으로서 구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선포하셨다. 요한은 그 사건을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 19:30) 고 한다.

동일한 사건이 다른 기자들을 통해 아래와 같이 묘사되었다. (눅 23:46, 마 27:50, 막 15:37) 비록 우리가 그 세밀한 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가 두 말씀을 마치고 나서 운명하신 것이다. 즉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곧 이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고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이다. 우리는 그가 성경대로 이 지상의 어느 지점에서 분명히 죽임 당하셨고 자기 죽음으로서 아버지의 계획에 따른 구속을 모두 성취하셨음을 확신한 다.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

셋째, 그는 그의 심각한 고난 속에 세 가지 확신을 가지셨다. -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시다. (22-23)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 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영생을 가지셨다. (25-26)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값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는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셨다. (27-31)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결론: 다윗은 그의 십자가와 영광과 관련시킬 때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다. 비록 우리가 그가 문자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했음을 우리가
실제적 고난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제물로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의 단 한번의 죽음이
자기의 택한 백성 속에 구원의 완전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셨다. 메시아 고난의 실체와 메시아 고난의 결과, 메시아의 고
난과 죽음은 하나님 형상회복의 원천이었다.

3. 성경의 생명성 (시 119:33-40)

- 33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 34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 35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 36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 37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
- 38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 39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 40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

서론:

1.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징주의와 모형주의를 통하여 언약 백성의 구속의 영광을 보며 그가 하나님께 행한 것같이 시편 기자가 성경을 찬양하는 성경의 탁월한 성격 곧, 성경의 생명성을 본다. 왜냐? 그는 하나님 형상회복의 원천인 영생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구속의 영광은 언약 백성의 윤리적 생활에 계시되어야만 한다.

2. 시편 119 편은 구속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인다. 그것은 성경 체험주의를 가리킨다. 그래서 필자는 이것을 성경 경험 (The experience of Scriptures) 혹은, 성경 실험주의(The Experimentalism of Scriptures)라고 부른다. 그 장은 하나님 말씀의 독특한 성격의 많은 증거를 포함하는 소위, 알파벳 시편이라 부르는 것으로 22 연으로 되어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저자가 다윗 혹은, 에스라 등으로 말하나 우리의 관심은 그 내용과 성격에 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구속의 성격인 성경의 생명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섯째 연만을 다룬다.

3. 영적 승리 생활에 도달함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즉시 결심한 것은 다메섹에서의 부름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영원히 그를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했다. 그의 첫번 열심은 그가 죽기까지 계속되는 사역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아는데로 시편 119 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함에 초점을 맞춘다. 영적 열심은 우리를 세상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든다. 동일한 경우가 본문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성경의 접촉을 통하여 많은 증거에 의해 성경의 가치에 관한 간증을 많이 발견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그의 생애의 제한된 시간에

결심을 하였다. 그 성도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 어떤 결심을 하였는가?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33 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했다. 그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무엇을 배웠는가? 에스라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에스라 7:10 절은 말하기를 “에스라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의 영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복종했다. 우리는 에스라가 취한 말씀의 자세인 구하고 복종하고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그러나 마가 요한은 많은 고통 때문에 선교여행에 그의 결심을 지키지 못했다. 그 일로 그는 선교 사역에 대한 결심을 포기했다. 후에 바울이 그를 자기 아들이라고 불렀어도 그때의 포기는 매우 슬픈 일이다. 특히 우리는 경건시간을 지키는 결심을 해야만 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런 결심을 지킨다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둘째, 온전히 그것을 지켰다.(34)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헌신했다. 헌신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다. 그 때 은혜가 따른다.(마 6:33) 우리의 결심은 나의 인간 의지에 의해서 되지 않고 나의 마음과 나의 선한 양심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때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고 충만한 소망과 위대한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본문을 정하고 해석하고 묵상할 때 그것이 살아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그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받아야 한다. 마음의 경외심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전인을 통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 인격의 중요한 자리로서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만 한다. 우리가 좋은 마음, 인내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좋은 토양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는 30, 60, 100 배의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그의 생활의 원천으로 그것을 받았다. (36)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 그가 그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확신할 때 그는 열심히 그것을 지키기 원했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 다니엘이 한 것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단 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결론:

그 성도의 건전한 태도를 배워야 한다. 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비록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시대에 리차드 뱁스터와 같은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오직 그의 생애에 한 교회를 가지고 싶어했다. 어느날 그가 가난과 죄로 가득찬

킨드민스터 마을을 찾아가서 거기서 목회를 했다. 그가 사역을 마치는 때에 그 마을은 착한 사람들로 가득찬 곳이 되었다.

4.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그림 (시 17:13-15)

성산에 머물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시 15:1-5) 2-5 절은 10 계명처럼 10 가지 자격 조항을 말한다. 그들은 무엇인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 리지 아니하리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선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사람을 가리킨다. 필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된 관점에 관해 생각한다.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가진 사람만이 성산에 확고히 설 수 있다. 시편 기자는 성산에 설 수 있는 자격조항을 10 가지로 말한다. 이것을 셋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첫째, 의이다. - 2 절은 의에 초점을 맞춘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의란 무엇인가? 히브리어 짜데크(Chadek)는 모든 방면의 옳은 것 곧, 구원의 정의와 의를 말한다. 그것은 절대기준을 가리킨다. 모든 영역에 절대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모든 덕이 세워지는 기초이다. 그것 없이 어떤 진실한 삶과 선한 생활은 의미가 없다. 외식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의가 없는 선은 선이 아니고 의가 없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를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 로마서 3:21-22 에 말하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의로 인정했다. 그 때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라고 했다.

본문이 의를 표현하기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 시작하고 의로 진행하고 의로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부터 오는 의의 광선을 비추실 것이다.

2. 둘째, 선이다. - 본문은 선을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선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캄보디아인들은 착하다. 대부분 아이들은 착하다. 우리 학생들은 착하다. 그러나 내가 의미하는 선은 사람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 마 5:16 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고 뱀전 2:12 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

그리고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21)고 권했다. 특별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열매이다. 우리의 관계속

에 30, 60, 100 배의 선한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은 우리가 희생적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행 12:24). 성령은 착한 영이다. (롬 8:26-27), 복음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 복음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선을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유없이 핍박을 받을 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만 한다.(눅 6:27-28) 이것이 참된 능력이다. 이 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확고히 설 수 있다.

3. 마지막, 신실함이다. - 본문에서 신실함은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의와 선은 신실함에 의존된다. 신실함이 없이 의와 선이 없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신실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본문은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고 성산에 확고히 설 수 있다. 성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진 하나님의 보좌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천국을 말한다. 이 세상에 천국은 어디있느냐? 그곳은 돈이 많은 곳인가? 명예나 권력이나 지혜가 많은 곳인가? 아니다. 오직 신실함이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다. 그대의 마음에 신실함이 없다면 천국의 은혜를 맞볼 수 없고 지옥의 고통 속에 살 것이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착함과 그리고 신실함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열매를 신실하게 구해야 한다.

결론: 우리가 생각한대로 성경의 생명성은 부활의 생명성과 동일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강력은 성경을 깨달음에서 일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세상에서 부활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때문에 놀라게 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표준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세가지 성품, 의와 착함과 신실함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접근할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볼 것이다. 만일 그 표준을 잃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가 절대표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성산에 확고히 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시편에 나타난, 그 형상을 보여주는 경건자의 삶을, 제한된 시편을 검토함으로 확인한다.

1. 다윗의 감사제 (시 56:1-13) - 감사의 시편인 본문은 다윗의 경험 속에 감사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다윗은 어떻게 감사제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12) 첫째, 고난당할 때 생겼다.(1-7)

블레셋에게 잡혀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특이했다. 원수가 종일 삼키려고 했고(2) 그들이 공격하는 모든 생각이 매우 악하여(5) 은밀한 모의를 실행하는 무자비한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다. 외부의 위협에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재 고난은 감사를 만드는 밑줄이다. 둘째, 기도할 때 얻었다. (9)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그대로 아뢰므로 은혜를 받았다. 자기 눈물을 계수하기를 바랄 정도로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정직하게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낀 것이다. 이것이 감사로 이어진 것이다. 셋째, 하나님 앞에 설 때 생겨진 열매이다. (13) 고난에서 구원받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곧, 생명의 빛 아래서의 삶을 살았다. 고난의 구덩이에서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였다. 감사 제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롬 12:1-2)

2. 새벽에 바쳐진 제물 (시57:1-11) - 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본 시편에서 우리는 새벽에 바쳐진 제물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운다. 첫째, 왜 새벽에 제물이 되어야 하는가? 굴에서 그가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한 것은 하나님과만 상대로 살겠다는 뜻이다.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증거한다. 둘째, 새벽에 무엇을 했는가? 영혼을 깨워야 한다. 영광이란 말은 영혼이란 뜻이다. 새벽은 우리 영혼이 인자와 진리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이것이 다윗의 작정이었다. (7)

누구든지 새벽 제물이 되기로 결심한다면 주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 어두운 시대, 계시의 빛 앞에서 그 분의 사랑과 진리를 풍성히 받고 새 힘을 얻어, 새 노래를 부르며, 새 역사를 이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윗처럼 영혼의 등불을 항상 밝히는 일에 힘써야 한다.

3. 다윗의 확신 (시 62:1-12) - 확신 시편 중 하나로 알려진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졌는가? 첫째, 하나님 만이 믿음의 대상임을 확신했다. (2) 반석, 구원, 요새, 피난처로 확신한 시인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이사야 (사 6:)나 베드로(눅 5:)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배운 공통된 확신이 그에게도 일어났다. 성령으로 눈이 뜨여져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진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입김같은 인생임을 깨달았다. (9)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다윗은 인생이란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존재임을 알았다. 속임수와 같은 인생임을 안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주께 토설한 것이다.(8) 큰 확신은 자신의 부패함을 아는 그릇에 담겨진다. 이것이 진정한 확신이다. 셋째, 참 능력은 하나님 뿐이심을 알았다. (11) 하나님과 자신을 바로 안 다윗은 실생활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깨달았다. 소년 때 깨달은 진리(삼상 17:45)가 고난 속에서도 더 깊이 배워진 것이다. 모든 생활에 진정한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알고 그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

4. 밤의 노래 (시 77:-1-20) - 아삽 시인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회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현실의 은혜를 구했다. (1) 그는 밤에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첫째,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2) 많은 고난을 당한 그는 주를 찾아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는 마음이 상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이 복되다. 그에게만 문제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괴로워 했다. (6-9) 그는 과거의 영적 고통을 기억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8-9)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그치고, 언약이 폐지되는 생각을 하며 괴로워 했다. 이 과정을 통해 그의 심령은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한 자리에 나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찢는 자는 놀라운 치료를 받는다. 셋째, 주께서 행하신 능력을 사모했다. (14) 이 은혜는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나타났다. 주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금도 간구의 음성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하시는 것을 확신한 것이다. 영혼의 밤에 신령한 노래를 배워야 한다.

5. 그리스도의 왕권 (시 45:1-17) - 왕의 결혼예식을 통해 왕권을 예찬하는 본 편은 사람의 예찬으로 마치지 않고 한 상징주의를 통해 참왕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6) 병거에 오르는 왕의 위엄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까닭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왕의 무기로 만민이 엎드러지는

것도 절대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인이 생명 안에서 왕권을 누림은 그 안에 기름부음이 있기 때문이다. (요일 2:27) 둘째, 주인이신 왕께 경배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11) 그리고 왕은 참 왕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권한다. 인간 왕은 단지 상징이다.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시인의 확신이다. 오직 주 예수만을 경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다. (마 4:10) 셋째, 영원히 만민의 찬양을 받으시는 왕이시기 때문이다. (17) 그 왕이 메시아의 왕권을 가리키는 상징인 까닭은 만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광과 찬양을 그 분에게만 돌려 드려야 한다. 이때 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6. 그리스도인의 판단 (시 81:1-8) -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는 본문은(1-2,8) 무엇이 바른 분별인가를 우리에게 보인다. 첫째,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 악인의 판단은 자기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 모두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의 모임에는 더욱 더 그러해야 한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타난다. 주의 광명 안에서만 나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작은 일에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가난한 자, 고아 같은 소자들을 다룰 때 억울하지 않도록 바로해야 한다. 작은 일에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셋째, 최종판단을

주께 위탁해야 한다. 악인의 무지 무각하고 애매모호한 태도에 반해 성도는 하나님이 일어나 판단해 달라고 겸손히 위탁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다.

7. 능력의 주를 찬양하라 (시 81:9-16) - 본문에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가 명령으로 나타나 있다.

첫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다. 8- 10 절에 보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함으로서 이스라엘의 제일의 임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탐욕과 향락의 우상에 미쳐있는 우리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신앙이 항상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네 입을 넓게 열라 하셨다. 8-12 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라고 가르치셨다. 가나안의 젖과 꿀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것이고 감사하라는 것이고(1 -4)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라는 것이다.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13 절에 청종하는 백성에게 밀의 아름다운 것과 반석의 꿀로 먹이신다 하셨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

.

8. 지존자 하나님 (시 83:1-17) -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야 한다.(18) 어떤 때, 어떻게 알게 할 수 있는가? 첫째,

원수의 극심한 공격이 있을 때 드러낼 수 있다. 원수의 환화와 간계, 그리고 주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연합(2-5)이 꾀해질 때 하나님은 자신이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셨다. 하만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전화위복으로 하나님의 지존자 되심을 만 천하에 드러내신 것과 같다. 둘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러낼 수 있다. 성도는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미디안과 시스라(9), 오렐과 스엠펙(삿 7:25), 세바와 살문나의 멸망(삿 8:5-21) 같은 승리를 구했다. 더욱이 자신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의해 모든 일이 판단 되기를 구했다.(13-15) 아무리 매일의 영적 전쟁에 원수의 공격이 강할지라도 지존자 안에서 즐거워 하고 그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도록 겸손히 간구해야 한다.

9. 복된 자 (시 84:1-12) - 성전을 찾은 순례행렬의 대표자가 부른 노래로 보는 본문에서 우리는 복 있는 자는 성전과 관련이 되었음을 발견한다. 첫째,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1-4) 주의 집, 주의 궁정, 주의 제단으로 명시된 성전은 생존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믿는 자의 왕되신 그 분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다. 거기서 열심히(3)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둘째,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이 복이 있다.(5-8)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과 통하는 교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순례자의 고달픈 삶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샘물같은 은혜를 받으며 큰 능력을 받는다. 눈물 골짜기를 가는 중에라도 복을 체험한다. 셋째,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9 -12) 해와 방패로 비유된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주 안에 거하는 복 받은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

10. 부흥의 조건 (시 84:4-7) -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며 부흥을 구하는 시인에게서 우리는 부흥의 필수 조건들을 발견한다. 첫째, 기도가 있었다. 6 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주의 은혜와 복과 승리를 구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언제나 사모해야 한다. 둘째, 죄인의 회심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한 죄인의 회개는 천하보다 귀한 일이다. 부흥주의자라고 평가받는 찰스 피니가 죄인의 적극적 회심에 초점을 맞춘 일은 수동적 태도로 치우친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하다. 셋째, 서로 죄를 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보여야 한다. 10 절에 보인대로 공훈과 진리, 의와 화평 그리고 진리와 의를 따른 죄 고백과 헌신의 모습이 일어나야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스겔의 환상 골짜기에 보인 여호와 군대처럼 부흥을 맛보는 신자로 살아가자.

11. 구원의 영광을 보라 (시 85:1-13) - 과거의 구원을 기억함은 현재의 구원을 바라보는 영적욕구를 갖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첫째, 누구를 구원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구원하신다.(9)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

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둘째, 어떻게 구원하나? 과거에 야곱의 포로를 돌이키신 하나님은 현재에 주의 인자로 구원을 받게 하시며 장래에도 구원의 큰 영광이 땅에 있게 하신다. 한마디로 그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 십자가는 그 분의 사랑의 최고 표현이다. (롬 5:8) 셋째, 어떤 구원을 이루시나? 풍성한 구원이다. 공훈과 진리가 충만하고 의와 화평이 입 맞추는 풍성한 구원(요 10:10)을 맞본다. 그리스도안에 농축되어 있는 풍성한 구원의 영광을 내 것으로 누리는 성도가 되자.

12. 은혜의 표징 (시 86:1-17) -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자의 표징을 가졌기에 원수가 부끄러워하게 되었다.(17)

첫째, 인생은 은혜 없이 못산다. 그 이유는 최선을 다해도 쉽게 피곤하고 궁핍해 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1) 물을 떠난 고기나 공기 떠난 새가 혹시 산다해도 주를 떠난 심령은 살지 못하고 절대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만이 은혜의 원천이다. 사유하기를 즐기시고(5) 풍성한 인자(13,15)가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다. 수가성 여인이나 실로암의 소경처럼, 어떤 문제가 있다해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구할 때 은혜를 받는다. 가만히 있어도 베푸시는 일반 은혜가 있으나 하나님께 진지하게 구할 때 주시는 특별 은혜가 있다.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그 가치를 알게 하려고 기도할 때 주시려고 제도화 시키

졌다. 시인처럼 은총의 표징을 구하여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체험해야 한다.

13. 시온의 거민 (시 87:1-7) - 고라 자손의 시편인 87 편은 히스기야 왕이 앓수르 나라를 이기고 난 후 드린 찬양이다. 바벨론으로 귀환한 백성의 수가 적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보인 본 시편에서 우리는 장차 나타날 신약 교회의 부흥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여호와께서 교회에 특별한 사랑을 쏟으심을 본다. 시온을 사랑한 것은 구원받은 자가 있기 때문이다. (1-3) 둘째, 하나님을 아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4 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일어날 것이라 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 17:3) 교회는 바로 이것을 위해 존재하고 이것이 모든 활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셋째, 범세계적 구원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 함(애굽), 바벨론, 두로와 구스(4-6)에서 지존자의 부름을 받는 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구원의 물결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대로 지금이 바로 그 시대이다. 큰 부흥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14. 부르짖는 기도 (시 88:1-18) - 믿음의 기도가 바른 기도임을 본문은 어떻게 보여주는가? 첫째, 기도상황. 흑암이 친구가 되는 상황이었다. (14-18) 스테반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어두움도 헛된 것이 아니고 진실한 기도를 드려 기이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의 세계이다. 둘째, 기도의 목적. 이 성도는 주의 성품을 온 세상에 알렸다. 주의 기사로 인하여 주를 찬송함으로서 주의 인자와 성실과 공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란 것이다. (10-12) 기도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이다. 셋째, 기도의 확신. 시인은 하나님과만 상대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 (13) “아침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앞에 달하리로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했다.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 놀라운 응답을 체험해야 한다.

15. 성도의 할렐루야 (시 89:1-18) - 다윗의 합창대장, 여두둔이 지은 시로 알려진 본문에서 우리는 유복자인 성도가 찬양할 이유를 발견한다. (15) 첫째, 주의 인자때문에 찬양한다. (1-2) 인자란 사랑, 자비, 선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이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노래 중 노래이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둘째 주의 성실때문에 찬송한다. (14) 그 사랑은 성실의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행동이 모든 언약의 기초이기에 다윗은 인자와 성실을 따르는 것을 기뻐했다. 이것이 우리 지위를 견고케 하기 때문이다. 셋째, 주의 권능 때문에 찬양한다. (6-13) 그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한 것은 그의 전능하심 때문이다. 창조자요 섭리주이신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임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16. 언약을 기억하라 (시 89:19-52) - 에단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탄식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다. 첫째, 에단의 고통. 하나님의 진노로(38-45) 원수에게 궤방을 당하는 민족적 수난(46-52)을 겪고 있다. 이것은 마치 성도의 영적 고통을 생각해 한다. 둘째, 고난의 원인. 언약파기로 인해 고난이 찾아 왔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물리치고 관을 땅에 던지시며 율타리의 보장을 모두 거두셨다.(38-45) 마치 엘리시대에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불순종할 때는 밖에 버려진 나뭇가지처럼 되어 버린다. 셋째, 언약회복의 길. 여기 나온 언약이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으로 기름 부으심의 보증 곧,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 언약은 영원한 보호, 영원한 승리, 영원한 회복을 보장한 것이다.(엡 1:13) 그리스도안에 있는 은혜언약을 맺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임을 확신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

17. 인생이 무엇이냐? (시 90:1-7) - 40 년의 광야생활을 포함한 120 세의 일기 속에 보인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을 배울 수 있다. 첫째, 인생은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도록 창조되었다.(1-2) 무에서 시작하였기에 하나님만을 거처로 삼을 때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생은 잠깐 있다가 돌아가는 티끌이다.(4-6,10) “흠으로 돌아가라”는 명령대로 인생은 지나간 어제며, 밤의 한 경점이며, 홍수가 쓸어간 순간이며, 잠깐 자는 순간이며 신속히 지나가는 화살 같고 아침 풀과 같다. 한마디로 수고와 슬픔으로 특징짓는다. 죄로 인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인자로 만족 하는 존재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함을 얻는 모세의 고백은(13-17)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보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인 것을 증거한다. 모세의 본을 따라야 한다.

18. 주를 찬양하라 (시 98:1-9) -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밝힌 본문에서 우리는 그 만을 찬양할 이유를 알게 된다. 왜 그를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할까? 첫째, 그는 구원자이기 때문이다.(1-3) 자기 백성을 향하신 구원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루심을 본 시인은 찬양한다. 죄로 부터의 구원하심이 모든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둘째, 그는 만유를 다스리기 때문이다.(4-8) 그 구원주는 온 땅을 다스리는 섭리주이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 거주하는 모든 것이 모두 그 분의 손에서 움직이는 것을 안 시인은 그 분께 찬송하는 것이다. 현재의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음을 아는 우리는 그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그는 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9) 역시 시인은 만유의 마지막에 의의 심판을 내다보고 그 분께 찬양한다.

친히 임하시고 모든 것을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실 그 분께 찬송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될 심판은 반드시 다가온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

19. **의인의 찬송 (시 92:1-15)** - 안식일의 찬송시로 알려진 본 시편은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는가? 첫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이다.(1-2)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송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창조와 섭리와 구원하심 속에 그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깔려있는 것을 내다 보고 영광을 돌린 것이다.(2-3) 우리의 삶에 의도적으로 그의 사랑과 성실을 찾아볼 때 감사와 찬양할 이유를 알 수 있다. 둘째, 악인은 망하기 때문이다.(6-7) 이와달리 악인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의 구원과 거기에 빠져 죽은 애굽의 패망은 모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셋째, 의인은 번성하기 때문이다.(12-15) 나아가 시인은 의인의 형통과 번성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결실이 풍성할 수 밖에 없는 의인의 길은 복되다.(12-14)

20. **왕이신 하나님 (시 93:1-5)** - 권위의 옷과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세계를 견고하게 하시는 왕이신 여호와는 무엇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첫째, 그는 세계를 다스리신다.(1) 나라와 족속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활동이 그 분의 손 안에 들어 있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게 하신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바울의 찬양은 그 왕의 다스리심을 본 데서 나온 것이다. 둘째, 그는 영원부터 계셨다.(2-4) 그 왕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그는 영원부터 계셨다. 그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더 크시다. 그 왕의 다스림을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 세상이 요란해도 그 왕의 다스리심은 지금도 계속된다. 셋째, 그는 거룩하시다.(5) 역시 그는 확실한 증거와 거룩함을 가지신 왕이시다. 그의 성품으로 온 세상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 왕의 거룩성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 일하신다. 영원무궁하신 그 왕께 자신을 즐거움으로 드려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21. 위대하신 왕 (시 95:1-11) - 크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 노래해야 한다.(1)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운 노래로 크게 외침은 그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죄에서 건지시고 진리의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둘째,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6) 그리고 그 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섭리주로서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백성은 그 분께 항상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활동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찾아온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그 분께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한다. 셋째,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8) 이 찬양과 경배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열매이다. 이스라엘이 트리바와 맛사에서 행한 일은 모두 교만에서 나왔다. 그 완악한 마음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크신 왕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인생관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이다.

22.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시 97:1-12) - 공평과 의를 기초로 삼은 보좌에 좌정하신 여호와께서 만유를 다스리심이 어떻게 나타났나? 첫째, 모든 자연법칙의 운행은 물론 만유 위에 자신의 의를 세우시고 세밀하게 심판하신다.(2-8) 구름, 흑암, 번개, 산들, 땅 그리고 하늘을 다스리심은 임재하심으로 자상하게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지구 온난화로 몸살을 앓는 중에서도 그 왕은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친히 다스리신다. 그 왕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뜻에 순종함이 진정한 지혜이다. 둘째, 언약 백성인 시온을 다스리신다.(8-12) 헛된 우상을 제하시고 자기 백성을 모든 난관에서 친히 구원의 손을 펴시어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그리고 의인을 위하여 광명과 기쁨을 구체적으로 허락하신다.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 만을 경배할 수 밖에 없다. 그 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23. 가난한 마음 (시 41:1-13) - 본 편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 관한 복을 어떻게 말해 주는가? 첫째, 그는 절망에서 구원을 받았다.(2) 원수의 맹공격을 받은 그가 설상가상으로 중병의 자리에 시달릴 때(9)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1 -4}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 병상에서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이다. 택한 자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다. 둘째, 그의 회개의 기도가 응답되었다.(4)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악담하던 원수의 궤계 앞에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이 끈고한 날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살피며 회개하는 자가 복되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때문이다.(마 5:3-4) 그는 원수가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무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24. 성도의 찬양 (시 89:1-18) - 다윗의 합창대장, 여두둔이 지은 시로 알려진 본문에 나타난 대로 성도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15) 첫째, 주의 인자 때문에 찬양한다.(1-2) 인자란 사랑, 자비, 선을 가리킨다. 하나 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노래한 것이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때문에 우리는 노래한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둘째, 주의 성실때문에 찬송한다.(14) 알고보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온 것이다. 변함없는 그 사랑의 행동이 모든 언약의 기초이기에 다윗은 인자와 성실을 따르는 것을 기뻐했다. 이것이 그의 지위를 견고케 하기 때문이다. 셋째, 주의 권능 때문에 찬양한다. (6- 13) 그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한 것은 그의 전능하심

때문이다. 창조자요 섭리주이신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임을 생각할 때 찬양이 나올 수 밖에 없다.

25. 언약을 기억하라 (시 89:19-52) - 에단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탄식 가운데 사모한다. 첫째, 무슨 고통인가? 하나님의 진노로(38-45) 그는 원수에게 궤방 당하는 민족적 수난(46-52)을 겪고 있다. 외적의 침략으로 포로가 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고통이었다. 둘째, 왜 고통을 당했는가? 언약파기로 인해 고난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물리치고 관을 땅에 던지시며 울타리를 모두 거두셨다.(38-45) 마치 엘리시대에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불순종할 때는 밖 에 버려진 나뭇가지 처럼 되어버린다. 셋째,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언약이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보증으로서 신약에 신자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취되었다. 그 언약은 영원한 보호, 영원한 승리, 영원한 회복을 보장한 것이다.(엡 1: 13)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을 맺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임을 기억하고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

1.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원천

1) **은혜언약 (구속)** - 하나님 형상회복의 원천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삼위일체의 천상회의에서 창조 전에 만들어진 구속언약은 모든 회복(구속)의 원천이다. 구약 성도는 그 원천을 즐겼다. 참된 회개를 통한 다윗의 죄사함은 그것에 의존했다. 시 51:1-19 절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다. 큰 죄를 범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회개했다. 그는 그의 상태에서 구속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첫째, 그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사로잡혔다.(1) 그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음을 알았고(1) 그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었다.(7)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의 앞에 자신의 죄를 점검했다. 둘째,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세밀한 죄를 알았고(3,4) 죄책을 가졌고(2) 죄의 영향을 알았다.(9) 그리고 그는 자기의 마음의 실상을 고백했고(6) 그의 거짓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다.(10) 셋째, 그는 신실한 생활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직한 삶을 결심했고(10)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11) 자원하는 헌신을 결심했고(12) 증인의 삶(13) 찬양의 삶(4) 그리고 산제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19)

2) **계시** - 시편 19 편은 계시의 예찬과 성경의 예찬에 초점을 맞춘다. 1-6 절은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를 보이며 7-14 절은 토라를 통한 구원계시를 분명하고 충분히 나타낸다. 필자는 그 시편이 성경의 경험주의 (experimentalism)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시편을 좋아한다.

모든 크리스찬은 매일의 생활에 하나님 말씀의 충족성을 경험해야만 한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성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이다. 성경이 귀한 성격을 가진 그의 간증처럼 우리는 우리의 양심 속에 동일한 고백을 해야한다.

첫째, 다윗은 “하늘” 혹은 “궁창”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1) 그리고 거기에 말씀과 음성이 없을지라도 하늘은 그의 숨씨를 선포한다.(2-4) 하나님은 자연과 양심을 통하여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풍성한 계시를 보인다.(롬 1:19-20) 다윗은 그의 영적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지식이 세상으로 충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로 필자가 우리의 인간 성품의 독특성을 알기 전에 위험한 질병에 걸린 일이 있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그 방면에 공부를 하며 살핀 결과, 300 여 종류의 약초를 연구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 속에 그의 풍성한 사랑과 진리를 숨기셨다는 사실이다. 아담의 죄가 들어 온 후 우리는 그 실체를 볼 수 없으나 성령의 거듭남으로 우리의 눈은 열려졌고 그 실체인 사랑, 착함 그리고 신실함을 그들을 통하여 발견한다. 다윗은 구원의 빛 안에 자연의 빛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 역시 구속의 빛 안에서 자연의 빛을 본다.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놓인 일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둘째, 다윗은 확신하기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기록된 계시는 성경이고 인류가 의지해야 하는 말씀의 효과와 특징을 선포했다. 여기, 증거, 규례 그리고 교훈으로 표현된 율법은 성경 66 권을 가리킨다. 역시 그는 성경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정직하며 순수하다고 확신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지혜롭게 순수하게 하며 영원한 계시의 단맛을 맛보게 한다. 시편기자는 성경 경험주의자이다. 그는 성경의 특성인 생명성을 경험한 것이다. 히브리서 4:12 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다. 그는 말씀과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말하는 것을 알았고 즐겼다. 시편기자는 말씀의 묵상의 세계에서 불, 냉수 그리고 밝음을 경험했다. 마치 엠마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의 성경의 설명을 들었을 때 일어났던 것과 같다. 그것이 성경의 경험주의이다. 모든 크리스찬은 개인의 경건의 삶 속에 이런 경험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이다. 모세처럼 우리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만족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런 맛을 본다면 하나님의 중대한 생각을 알게 된다.

더욱이 그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성경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의 묵상과 관찰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구원이 계시를 의존하는 사상에서 나음을 확신해야만 한다. 성경은 특별계시이다. 우리는

계시의 빛 아래 앉아야만 하고 의의 치료의 광선을 즐겨야 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실제 생활이다.

2. 하나님 형상회복의 통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게 하셨는가? 그 시인은 이것을 두 가지로 보여준다.(1) 그리스도 안에 내주함으로서 된다. 다윗 왕의 대관식을 암시하는 본문은 복있는 자란 메시아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2:1-12) 누가 메시아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를 사랑하는가? 그는 언제 우리에게 올 것인가?

첫째, 그는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오신다. 1-3 절은 그가 열방가운데 왕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심을 보여준다. 실제로 역사는 그가 혼란의 때에 이 땅에 오셨음을 보인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소동했다. 마 2:2-3 은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라고 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4:24-26 은 말하기를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했다. 그들이 원수의 펄박 가운데서 시편 2:1-3 절을 인용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동일한 상황이 일어났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딤후 3:1-5)” 라고 했다.

만일 우리가 고통의 곤경 속에 머물러 있다면 믿음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때 우리는 성령안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 수 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와 그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왜냐? 그 나라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참 메시아로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4-6)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메시아이시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메시아를 사랑하는가?

A **우리는 두려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11-12)** 그의 아들 메시아와의 친숙함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바울은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라고 강하게 권면했다.

나는 개혁주의적 신자들이 모든 것을 잘 비판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매스 터 키를 가진다. 그래서 그들은 강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워야 한다. 실제로 그는 두려움 때문에 골방에 숨지 않는다. 오히려 지옥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원수와 맞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다. 사마리아 인이 산 속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모두 피해갔으나 그 사람은 그를 붙잡히 여겼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붙잡히 여겨“ (눅 10:33) 여기 “붙잡히 여김”(연민) 이란 말은 어떤 심각한 상황에 처한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붙잡히 여김으로 심장이 터지는 상태를 가리킨다. 모든 치료를 위하여 모든 소유를 허비하는 마음을 가졌다. (눅 10:35) 그는 자기 희생의 고려함 없이 그를 치료하는 책임을 졌다.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그래서 개혁주의적 크리스찬은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처함 상황을 책임져야만 한다.

B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서 된다.**

시편 150 편들의 서론으로 일컬리는 1 편은 복있는 사람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한다.(3)

복있는 사람은 죄를 떠나야만 한다.(1-2) 그는 생각 속에 악인의 꾀를 떠난다. 그리고 죄인의 길을 떠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눕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죄와 싸우는 삶이 복이다.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불복종을 위한 반역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분리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상 욕망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약 1:15) 죄는 악한 상태 교만한 상태를 만들기에 죄인은 교만한 사람이 된다. 그 결과는 파멸이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다.

복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소극적으로 그는 죄와 싸울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이란 무슨 뜻인가? 묵상하다는 것은 탄식하며, 비통해 하고 웅얼거리며 말하는 것을 뜻한다. 생각하고 연구(관찰, 해석,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암탉이 새끼를 부화하기 위하여 알을 품는 것처럼 묵상은 성경 곧, 그 말, 그 아이디어 그리고 그 교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한다, 많은 열정과 많은 시간을 드려 그것을 해석하고 마음에 적용하는 것이다. 마치 베뢰아

교회가 사도에 의해서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 상고했다. (행 17: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말씀 안에 거함은 영혼 속에 기쁨을 만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을 즐거움을 가리킨다. 복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떤 환경이든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때 우리는 불타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시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을 알게 된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코람테오(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와의 두려움을 알고 경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임을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요가의 묵상은 어떤 좋아하는 생각에 집중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말하여 자기 반성에 이른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단어, 아이디어, 개념을 묵상하고 그들을 나의 생각과 관련시켜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진리를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다. 그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어떤 진리가 분명히 확인되도록 조명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 생활에 어떤 때든지 공급하신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이는 번성하고 성공하며

승리를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충족한 마음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것을 가리킨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가지고 싶다면 목상의 세계로 지금 나가야한다.

반대로 악인은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산다. 그들의 삶에 메 마름이 찾아온다. 1)
그는 생활의 공허(헛됨)를 가져올 것이다. 2) 그는 억압받는
느낌(죄책) 을 가져올 것이다. 3) 그는 의인의 회중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4) 그는 영원한 파멸을 가져 올 것이다. 비록 그들이 건강,
번성, 성공 그리고 안전한 죽음 속에 산다 할지라도 악인은 영원히
파멸당할 것이다. 본문은 절망에 떨어질 때 하나님을 갈 망하라는
진리를 가르친다.(5,11) 첫째, 갈망의 동기(3,4) - 원수가 그에게 “ 네
하나님이 어디있느냐?고 물을 때 시인은 그의 눈물을 주야의
음식으로 삼았다. 고난이 갈망의 동기이다. 둘째, 갈망의 내용 - 그는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 즉, 살아계신
하나님, 반석으로서의 하나님(9), 생명의 하나님(8)을 갈망해야 한다.
역시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1) 적어도 그는 세 곳이나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6)
셋째, 갈망의 결과 -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를 받게 된다.(7-8)
그는 폭포 소리와 바다의 파도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영적 어두움 속에서 나왔다. 그것이 우리를 우리 삶에 행복하게 한다.

결론: 시편 속의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우리에게 다른 곳보다 더욱 분명한 열매를 나타낸다. 그것은 하나님 형상 회복에 관한 모든 그림 계시가 설명한다. 우리는 그 안에 풍성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시편은 구약의 로마서 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발견한다. 토라의 중요한 내용, 의, 인, 신이 그 속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 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을 얻도록 가르친다. (요 15:5, 10:10)

III. 잠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서론:

일곱부분으로 편집된 잠언의 구조(1:1, 10:12, 2:17, 24:23, 25:1, 30:1, 31:1)는 우리로 구속적 생활을 잘 이해하도록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복음의 빛 아래서 이런 생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의 생활 속에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활동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기 전에 점진적인 형태로 계시된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을 가진 변화 곧, 구속적 영광의 회복은 언약 백성의 생활에서 신적 성품을 나타냄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품 즉, 의, 인, 신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내야만 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보아야만 한다. 그런 관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고후 3:18) 그의 전능성과 전지성 곧, 절대 성격이 이 성품에 근거를 두었다. 바울 신학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 곧, 새사람의 형상은 세 가지 요소 즉, 의, 인 그리고 신이 모든 구체적인 생활에 나타나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구속적 생활의 회복이 윤리적 생활을 강조하는 구속의 적용적 요소를 강조함을 의미한다. 그것이 구속적 윤리 즉, 윤리적 피조물인 인간의 윤리적 관계에 표현되어야만 하는 구속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

“잠언 속의 구속적 윤리”라는 제한적 주제는 지혜의 교훈이 구속에 뿌리내림으로 나타난 지혜의 생활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리, 사람의 교리, 구원의 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의,인,신의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I. 잠언의 하나님

잠언에 여호와라는 말이 89 회, 하나님이란 말이 5 회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언약 백성에게 주신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신실히 지키시는 분임을 증거한다. 잠언의 주님은 언약의 주이시고 완성하시는 주시다. 그래서 어떤 잠언들은 (22:17-24:22) 적용적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용함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윤리적 열매는 교리를 분명하고 풍성하게 만든다. 잠언이 나타내는 여호와 경외는 지식과 지혜의 기초이다. 그것은 우리를 복음의 믿음으로 이끌며 우리를 더욱 풍성하고 더욱 강하게 한다. 잠언 속의 하나님은 구속 생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 생활이 인간 성품의 거울에 나타남으로서 하나님 의 속성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II. 잠언의 인간

잠언의 사람은 어떠한가? 물론 그것은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형상을 나타낸다. (창 1: 26-27) 그래서 그것은 몸 중심의 생활이 아닌 영혼 중심의 생활 혹은, 육 중심이 아닌 영 중심의 생활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의존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마음을 지켜야 한다.

여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건전한 마음(sound heart)의 다른 표현이다.(잠 4:23)

영혼은 지혜를 듣고 소유하고 그것과 연합될 때 건전해진다. 잠언 속의 인간의 자화상은 영혼 중심적 관점 에 의해서 인정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구속적 윤리가 언약 백성 곧 그리스도인에게 제 한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지혜에 속한다. 잠언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백성의 형상의 빛 안에 잠언을 해석한다.

잠언의 인론과 신론의 특징은 참된 지혜인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나타난 지혜의 여인이 바로 선재하는 분 창조주, 섭리주,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이란 점이다. 6 장의 지혜는 누구인가? 그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복음에 나타난 실체이다. 실제로 그 지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14 과 함께 말씀(로고 스)을 가리킨다. 잠언의 윤리적 그림은 본래 그리스도 안에서만 표현된다. 그리스도가 없는 선함과 윤리는 인간적 윤리 속으로 떨어질 것이고 다른 종교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잠언은 간음한 여인의 유혹을 극복하는 방 법이 지혜를 소유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임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우리를 지혜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의 온전한 믿음으로 이끈다. 그 지혜는 구속적 생활에 구속주, 섭리주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III. 잠언의 구원

잠언이 말하는 죄는 절대성을 가진다. 성경의 구원은 자율적이 아니고 타율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다. 그래서 잠언의 복과 윤리는 구속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잠언의 번성과 보호는 구속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생 속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된 장수생 활은 영생 곧 하나님을 아는 것(요 17:3)에서 생산 되어진다. 잠언이 구약 계시일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IV. 잠언의 구속생활

온전한 구속은 구속적 삶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생활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잠언의 내용이다. 이것은 사도적 윤리생활과 깊이 관계된다. 성령은 잠언을 통하여 풍성한 구속적 생활을 나태내는 것을 계획하셨다. 다시 말하면 언약백성의 생활이 그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모세 속의 구속은 언약백성 안에서 잠언의 생활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잠언의 장수는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신령한 복(엡 1:3)과 그리스도 안의 절대 견인(롬 8:38-39)인 복음 안의 영생과 관련된다. 언약백성이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야만 하는 의, 인, 신을 보이는 방법은 지혜를 사랑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수의 목적이고 방법이고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생의 또 다른 표현이다. 지혜는 구속적 생활을 기대한다.

이런 잠언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생활에 잠식되고 표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 의, 인, 신이 어떻게 잠언 속에 표현되는가를 다음 구절을 통해 생각함으로 우리의 목적을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1)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잠 4:10-19)**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어떤 것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첫째, 의인의 길은 돈은 해처럼 빛난다.(10-13) 의인의 길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가리키며 그 결과, 돈은 해처럼 낮의 광명처럼 밝아진다고 했다. 장래의 밝음을 무엇으로 보장하는가? 바로 의인의 삶을 살때 가능하다. 그 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힘써 지키는데 있다. 둘째, 악인의 길은 어둠에서 살아간다.(14-17) 악인의 길은 사특한 자의 첩경이라 했다. 악행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며 불의와 연합된 삶을 힘쓴다. 19 절이 보인대로 “어둠”때문에 넘어져 깨져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스도 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기는 삶을 누리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2) **네 마음을 지키라 (잠 4:20-27)** 마음을 지키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어떻게 지킬것인가? 첫째, 마음을 지키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잘 지키면

생명이 되고 네 몸의 양약이 된다고 하셨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우리 마음을 통해 나타내시기에 어떤 의미에서 거듭난 신자의 마음을 생명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타나고 마귀로 채워지면 마귀의 열매가 나타난다. 둘째,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마음을 잘 지키려면 두가지를 힘써야 한다. 지체를 악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야 한다.(24-27) 입은 궤혈에서 멀리하고 입술은 사곡에서 멀리하고 눈과 눈꺼풀은 바로 보며 발은 첩경을 평탄케 하고 모든 길을 든든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의 문에서 떠나지 말고 잘 지켜 나가야 한다. 말씀에 착념하라는 것이다.

3)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라 (잠 5:1-14)** 여기 “음녀”란 남녀간에 일어나는 음행을 가리키며 동시에 거짓 교혼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지혜를 따르는 길이다. 지혜를 따라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음녀의 유혹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꿀과 기름처럼 매력을 끄나 마침내 썩과 칼 같으며 사지와 음부로 떨어져(5) 무디게 만든다.(6) 둘째, 음녀의 유혹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7-14 에 보면 존영, 수한, 재물, 수 고, 육체에 아주 치명상을 가져 온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 성령의 은혜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셋 째, 어떻게 지혜를 따를까?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며, 근신을 지키며, 입술로 지식을 지키며,
말씀을 버리지 말아 야 한다.

4) **부부의 정절문제 (잠 5:15-23)** 본문은 부부생활의 정절이 얼마나 복된 지를 보이기 위해 음녀를 경계하 라고 가르친다. 어떻게 음행의 죄를 이길 수 있나? 첫째, 부부의 정절을 지킴으로서 (15-19) 이긴다. 부부의 성적 관계를 샘으로 비유하여 “네 우물을 마시우며, 네 도랑물을 밖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며, 네 샘을 복되게 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라”고 말한다. 주 안에서 맺어진 언약을 선택 양심으로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창세 전 의 경륜을 믿고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늘 힘써야 한다. 둘째, 음녀유혹을 피함으로(20-23) 이긴다. 음녀의 유혹의 특징은 훈계를 멸시하고 미련의 껍데기를 고집한다.(23) 소돔 고모라의 롯의 가정이나 노아 홍수 심판전의 상황 처럼 마귀는 언제나 가정을 파괴한다. 공공연한 음행문화가 만연한 현실에서 가정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전도며 선교하는 것이다. 자극성이 강한 이 죄를 이기는 최선의 길은 요셉처럼 피하는 것이다. (창 39:7-10) 건강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성령충만한 자로 살아야 한다.

5) **유혹에서 자유하려면 (잠 7:13-27)** 다시 잠언을 통해 음녀유혹의 형태와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첫째, 음녀의 유혹방법, 말씀으로 시험한 마귀처럼 경건의

모습을 띄고 유혹한다. 14 절에 서원제를 드렸다고 하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한다. 예언적 암시를 보이면서 유혹하며(15) 모든 잔치의 풍성 함을 약속하고 유혹한다. 경건의 모양은 보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단 교훈을 벗어나려면 참경건의 맛을 알고 그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 둘째, 유혹에 넘어진 자의 결과, 먼저 자살 행위가 일어난다. 소가 쇠사슬에 매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매우 치명적이다. 화살이 간을 뚫는것 같고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같은 일이 일어난 다. 셋째, 유혹을 이기는 길, 말씀을 잘 듣고 주의해야 한다. 음녀의 유혹은 우리 주변과 우리 속에 항상 깔려있다. 한번 빠지면 끝장이라는 의식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6) **지혜의 외침에 응답하자 (잠 8:1-21)** 본문은 지혜의 외침에 대한 응답을 요구한다. 왜 지혜의 외침에 응답해야하나? 첫째, 지혜란 가장 가치있는 교훈이기 때문이다.(10-11) 금, 은,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을 지혜로 비유 한 것은 그 가치성을 보인 것이다. 세상이 좋아하는 보화는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지만 지혜는 현세나 내세에 항상 가치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허비하는 헌신은 당연한 것이다. 둘째, 지혜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2-3)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루어 짐은 그 속에 준비된 풍성함이 엄청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받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외치며 골방에서 속삭인다. 여기에 회개와 믿음의 응답만 하면 준비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기도의 수고를 드러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간절한 외침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그 복을 소유해야 한다.

7) **창조자인 지혜 (잠 8:22-36)** 본문은 지혜의 두 방면을 의인화시켰다.(27) 첫째, 지혜를 선재자라고 했다. (22- 26) 요한복음 1:1-3 절에 나온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이 지혜였다.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고 자존하신 분 이시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22) 는 구절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바로 이 지혜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소유함은 그리스도를 소유함이며 이 지혜를 순종함은 그리스도께 순종함이다. 둘째, 지혜를 창조자라고 했다.(27- 31) 여기 묘사된 지혜는 만물의 기초이며 만물을 친히 만드신 분 이시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가장 선하게 만드신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아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골 1:15-17) 선재자요 창조자인 지혜에 귀를 기울여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창조의 생애를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8) **지혜의 초대 (잠 9:1-18)** 지혜의 간절한 초청(1-9)과 미련한 계집의 부지런을 떠는 유혹(13-18)은 우리 생활에 항상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때 지혜자는 바른 선택을 하기위해 실상을 잘 알아야

한다. 첫째, 지혜는 지 식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경외라고 말하면서 그를 두려워하며 사랑하라고 권한다. 집을 짓고 상을 갖추고 정중하게 우리를 초청한다.(사 55:1-2) 거기에 응할때 준비된 풍성함이 모두 내 것이 되어 가장 아름다운 향연을 즐기게 한다. (계 3:20) 둘째, 그러나 음녀의 초청도 대단한 열심이다. 미련한 계집이 감언이설로 꼬인다. “도적질 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17)라는 거짓 약속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불의의 생활이 더 재 미있다고 유혹한다. 그러나 이 길을 따르면 멸망한다. 어찌다 넘어졌으면 즉시 회개하고 그 지혜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준비된 생명과 장수의 복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 지혜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 그 안 에 마련된 은혜의 맛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한다.

V. 솔로몬의 잠언 (잠 10:1-22:1 25:1-29:27)

1) 진실한 관계를 이루자 (잠 10:1-17) - 본문은 하나님 관계(3, 6-7), 사람 관계(1, 4-5, 8-14), 물질 관계(2, 15-17)에 대한 진리를 밝혀준다. 그 중 두가지만 생각한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갈급한 영혼 위에 은혜주 시는 우리 하나님은(3) 의에 주리고 목마른 영혼을 찾으신다. 그래서 덤덤한 마음은 타락한 것이고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잊지말고 겸손히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힘써야 한다. 둘째, 입술을 경계해야 한다. 미련한 입은 패망하고(8,10) 지혜의 입은 생명샘이다.(11) 명철자의 입(13)과 참 지식을 간구하는

입술(14)을 소유해야 한다. 사탕발림의 말 한마디가 헤롯을 죽게했지만 부정한 입술을 깨달은 이사야나 바른 한마디의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는 반석위에 세워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1) **의인의 입 (잠 10:18-32)** - 잠언의 의인은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경외하는 삶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삶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말이기엔 언어 생활의 특징을 본문은 보여준다. 첫째, 의인의 말은 가치가 있다.(18- 21) 그것은 치료하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때문이다. 악인의 말은 악영향을 미치나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아서 (20) 누구에게나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며 덕을 세운다.(21) 둘째, 의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24) 악인은 영적 게으름으로 여호와 경외를 할 수 없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소원을 구하여 응답을 받는다.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23) 셋째, 의인의 말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27-32) 의인 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때문에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는다.(27, 28) 의인의 입술을 갖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 **정직한 자 (잠 11:1-15)** - 일상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에서 정직은 생명과 같다. 진실, 의, 정직은 여호와 경외심의 기초이며 표현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본문의 말씀들은 어떤 방면의 정직을 보여주는가? 첫째,

물질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할 것을 보여준다. 1 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현금생활이나 정직한 세금보고나 성실한 직장생활은 모두 이 의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둘째, 모든 문제가 정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환난을 당할 때 정직자는 구원을 받고(8) 정직자의 축원으로 성읍이 잘된다.(11) 이것은 하나님이 정직자 곧, 의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정직할 수 있기에 정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잘 받아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3) **상급과 징벌 (잠 11:16-31)** - 본문은 의인의 상급과 악인의 징벌이 어떠함을 보여준다. 첫째, 의인의 마음 -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기도 하시고 징벌을 내리기도 하신다.(20) 무엇보다 모든 행동의 뿌 리인 우리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근거를 둘 때 소망이 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어떤 마음인가? 진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리고 착한 마음(23)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힘쓸 때만 가능하다. 둘째, 의인의 원리를 계속 따라감으로 주의 약속을 체험해야 한다. 덕, 근면, 인자를 추구함(16,17), 의를 굳게 지키며(18-21) 절제하는 삶(22-23), 그리고 재물을 잘 관리함(28-30)에 의인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러할 때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푸른 잎사귀와 열매를 맺히는 감람나무처럼 변성하게 될 것이다. 복음 안에 더

온전케 된 의인의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모신 마음을 늘 지켜가야 한다.

4) **훈계를 좋아하는 자 (잠 12:1-20)** - 여호와 경외 본위로 사는 신자는 훈계를 사랑한다. 훈계란 “책망, 징 계(1)”란 뜻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교훈뿐 아니라 교정시키려는 책망으로 채워져 있고 그 책망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기에 의인은 성경에 목을 멘 사람으로 살아간다. 본문에도 미련한 자는 짐승같아서 훈계를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지만 지혜자는 훈계를 감사히 받는다고 했다. 왜 훈계를 좋아하는가? 첫째, 훈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임을 알기에 주의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는다.(히 12: 8-9) 둘째, 훈계를 받을때 문제가 치료되고 새로움을 입어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의 진단이 정확할때 바른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지적은 그 자체가 치료의 시작이다.(3,7) 훈계는 거친 짐승의 마음으로 소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1,10) 하나님의 훈계를 기꺼이 받아 들여야 한다.

5) **의인의 상급 (잠 12:21-28)** -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이 받을 상급이란 어떤 것인가? 첫째,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21)고 했으며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다(28)고 했다. 둘째,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요 기업이라고 했고 바울은 교회가 받은 풍성한 복 중 하나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이라 했다.(22,25, 엡 1:18) 셋째, 이웃에게 기쁨을 준다. 의인의 또 다른 상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23 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했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름을 받는다(24)고 했으며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케 한다(26)고 했다. 이 의인의 상급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써 경주해야 한다.

6) **의인의 재물관 (잠 13:1-13)** - 의인은 세상을 등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 관계로 얽힌 세상 안에서 경건을 지키는 자이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물질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갖고 살아간다. 첫째,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6) “부지런한 자가 풍족함을 얻는것”이 창조의 원리이다. 재물의 풍족함을 누릴 뿐 아니라 아굴처럼 그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믿을 때 다스릴 수 있다. 둘째, 불로소득을 경계한다.(11) 또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는 것”을 알고 자기의 손으로 일하여 얻은 재물을 좋아하고 그 길을 따른다. 이 것 역시 경건을 본질로 한다. 은혜라고 해서 노력과 수고없이 얻으려는 자세는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다. 셋째, 재물보다 경건이 우선임을 믿는다.(8) 재물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지만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기에 경건의 우선 순위를 따른다.(마 6:33)

7) **지혜의 자증 (잠 13:14-25)** - 잠언은 신약서신처럼 진리의 능도가 짙다. 한 구절 속에 구원과 생활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잠언을 대할 때마다 두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첫째, 말씀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계명의 권위를 두려워하며 따라야 한다. 수직관계는 자연스럽게 수평관계로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의 힘이 모든 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말씀이 말씀을, 지혜가 지혜를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친히 증거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 세상의 생명, 참포도 나무, 생수, 참떡 등으로 주장하심은 누구나 주목하고 받을 최대의 증거이듯이 지혜는 지혜를 증거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여호와 경외 신앙으로 이끈다. 이것은 결국 참지혜인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따를 길이다. 생명의 샘인 지혜자의 교훈을 겸손히 따라야 한다.

8) **미련과슬기 (잠 14:1-19)** -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 14:12) 첫째,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치는 존재이다. 태초부터 인생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대로 진행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밖에 없게 이끄신다. 그래서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선언했다. (롬 11:36) 둘째,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지 않은 것은 패망이다. 이 것을 잘 아는 잠언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선택한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임으로 진정한 지혜자는 무 손일이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밝힌다. 주의 뜻이면 이것 저것을 하리라는 말을해야 하는 것이다.
 십자가 의 잔을 옮기는 것을 원하였지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겐새마네의 기도가 하나님 백성의 기도여야 한다. 사 람이 다
 인정해도 어떤 길은 멸망의 길이 있다. 아무리 악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9) **복을 누리자는자 (잠 14:20-35)** - 사람들은 무엇을 더 많이
 받아야만 된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이미 받은 복을 계수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첫째, 영적 부요를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 로서 누릴 수 있다.(20-24) 부요자는 (1)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공홀)(21), 선을 도모하는 자(선)
 (22), 입술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수고)(23) 자기
 재물을 허비할줄 아는 자(구제)(24))에게 친구가 많이 생기고 (20)

복이 임하며 (21) 인자와 진리 (22)의 놀라운 유익이 찾아온다.(23) 둘째, 여호와 경외를 배움으로 누릴 수 있다. 경외신앙 곧,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생명의 샘 (27), 견고함 (26), 그리고 왕적 영광 (28)이 따른다. (창 1:28) 그러나 이 신앙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삶의 영광은 빈껍질처럼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이미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정은 경외심을 지키기 위해 수고함으로 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10) **생명길을 경영하라 (잠 15:1-18)** - 생명길이란 생명을 길에 비유한 말인데 요 14:6 에 예수님을 길이라 했고 마태복음 7: 13-14 에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놓였다고 말한다. 첫째, 생명길은 두가지 특징 을 갖는다. 하나는 온유이다. (18)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는 말씀대로 생명을 가진 자는 온유로 나아가야 한다. 다른 하나는 근면이다. 19 절에 게으른 자는 가시 울타리가 길에 있지만 정직한 자는 대로가 있다고 했다. 이것도 역시 생명의 길을 아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은혜 이다. 둘째, 이 길에는 경영이 필요하다. 22 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 하느니라”고 한 것은 그 길은 수고를 통해 얻는 길임을 보인다. 셋째, 생명길을 바로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우시는 은혜가 있다. 21 절에 명철한 자는 미련한 길을 바르게 하며 23 절에 맞는 인생을 산다고 했다. 딱맞는 인생은 바로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진다.

11) **피조물의 영광 (잠 15:19-33)** -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준귀의 앞잡이니라” (잠 15:33)

기독교의 최고의 덕이 겸손인 것은 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교훈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허락한 길 이다. 어떤 점에서 겸손이 최고의 덕인가? 첫째, 여호와 경외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 상대로 지어졌다 하여 하나님과 구분없이 안하무인식으로 사는 것은 빛이 바랜 옷과 같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코 생겨지지 않는다. 둘째, 참된 지혜가 나오는 출처이기 때문이다. 참된 지 혜란 모든 생활방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가리킨다. 교만은 “자기, 자기” 하다가 제대로 꽃 하나 피 어보지 못하고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한다. 셋째, 피조물의 준귀함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겸손이 피조물의 면류관임을 아는 자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신분을 잘 알아 언제 어디서나 겸손일관하여 약속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2) **하나님의 주권 (잠 16:1-17)** - 인생을 바르게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하나님이 바른 경영을 원하심을 알아야 한다.(15: 22,16:1) 바른경영은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계획을 가리 키며 철저하게 하나님 경륜의 근거인 그의 사랑과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 둘째,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여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심을 알아야 한다.(1)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경영을 믿어야 한다. 로마서 8:28 절에 보인 대로 우리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경영을 통해 이루 어가기 때문이다. 오려운 사지에 떨어진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있다.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는 우리는 그의 뜻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 주께서 말씀을 보내어 주기를 기도해야한다.

13) 겸손의 도 (잠 16:18-33) - 겸손의 도를 가는 자란 어떤 자이며 겸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첫째, 겸손의 도를 가는 자란? 18-20 절에 겸손에 대해 말하며 21-25 절에는 지혜에 대해 말하기를 겸손이란 마음의 지혜로움을 가리킨다고 했다.(21) 겸손한 자란 지혜를 생명의 샘으로 삼는 자이며 (22) 지식있는 입 술을 가진 자이며 (23) 양약과 꿀송이와 같은 선한 말을 가진 자이다. (23) 겸손이란 생명의 길이며 (25) 여호 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반응이다. 둘째,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면 겸손한 마음은 성공의 선봉이요 겸손은 일어섬의 앞잡이라는 말이 다. 교만한 자의 정복(탈취물)보다 겸손한 마음이 더 복되다. 성령받은 신자는 성령의 인도로 겸손할 수 밖에 없다. 이 겸손의 도를 따라야 한다.

14) 여호와와의 경영 (잠16:1-3) - 구원받은 신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본문은 삶의 과정에 주어진 나의 걸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가? 첫째, 마음으로 무엇을 경영하여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 지혜로운 경영을 가진 자는 말로 표현되고 걸음으로 나타난다. 즉, 생각의 기능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자기 길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굴복 시킨 자가 지혜자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하는 겸손의 삶을 권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영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둘째, 말의 응답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 주의 뜻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성령에 감동됨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환경의 적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말과 걸음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걷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굴복시키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

15) 인자와 진리 (잠16:4-6) -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주 일어나는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첫째, 인자로 속한다. 모든 죄가 인간적 사랑으로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죄는 하나님만이 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대속의 공로를 믿고 적용해야 한다.(요일1:9) 십자가의 공로 속에 그의 사랑과 진리가 요약되어 있다. 사랑과 진리의 총화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죄에서 자유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여호와 경외가 죄를 이기게 한다. 죄사함은 죄를 범치않는

거룩의 상태로 나가야 한다. 성화는 오직 여호와 앞에 서있는 거룩의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효능은 영원히 단번에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이다.(히10:12) 그리스도안에 완성된 절 대 효능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서 완전 사함받는 특별 은혜를 받아야 한다.

16) 교만의 위험성 (잠16:116-20) -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특징은 겸손으로 나타나지만 그 경외심을 버린 자는 교만함이 특징이다. 교만은 얼마나 위험한가? 첫째,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18) 거만으로 표현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교만하면 절대 패망이라는 공식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교만이 모든 죄악의 뿌리이며 모든 악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최고 덕목이 겸손이라고 하는 정 의는 성경적이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구속을 이루셨듯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계로 인도할 수 있다. 겸손을 즐거워하는 신자로 살아가야 한다. 둘째, 교만하면 얻은 승리마저 빼앗긴다.(19) 교만하면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생겨도 마침내 망한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겸손한 마음 안에 보존되고 아름답고 열매로 나타난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이다. 셋째, 말씀에 착념할 때 겸손해진다.(20) 겸손의 자리를 지키는 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말씀에

착념할 때 생긴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은 바로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겸손의 영이시다. 그의 말씀을 겸손히 따라 가야 한다.

17) 마음의 연단 (잠 17:1-14) -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 17: 3) 순수한 은금을 얻기위해 그것을 도가니와 풀무에 넣어 불순물을 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호와께 경외하는 자를 마음의 연단을 위해 반드시 고난의 구덩이에 넣으신다. 그 고난을 통해 진정한 경외신앙을 알게하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된 것은 고난당하기 전 그릇 행한 것이고 고난 후 바른 길로 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욥의 애매한 고난은 그를 정금처럼 만드는 기간이었고 요셉이 당한 고난은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도구가 되게 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허락된다. 연단을 받게하려는 것이다 . 일부러 고난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이지만 주 를 위해 받는 섭리적 고난은 어떤 것이든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킨다.

18) 마음의 즐거움 (잠 17:15-28) - 신자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가정과 사회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일임을 본문은 어떻게 보여주는가? 첫째, 가정 생활에서 지혜자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며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라고 했다. 신앙의 본으로서 제자화된 모습이다. 신앙의 본으로서의 부모 역할을 잘

보여준 것이 다. 둘째, 사회생활에도 공의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재판할 때 의를 세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15,23,26)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하신 이유는 그의 권속들이 모두 공도와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요구이다. 셋째, 가정과 사회에서 의의 생활은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 문에 마음의 즐거움을 간직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모든 생활에 하나님나라의 의를 세울 수 있다.

19) 거룩한 덕담 (잠 18:1-12) -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이

신자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덕을 미치나? 첫째, 자기를 살펴야 한다. 언어생활의 불결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 이사야가 맞본 최초의 체 험이었다.(사 6:5) 자기의 마음 상태가 말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 말씀으로 고르게 해야 한다. 말씀의 점검으로 여과를 거쳐 분별있는 말을 해야 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 을 해야 한다.(엡 5:3) 그러자면 말씀 목상이 없이 불가능하다. 셋째, 덕있는 말을 해야 한다. 최고의 덕담은 복음 을 말하고 복음 생활을 격려하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를 선택사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이다.(벧전 2:9) 하나님 과의 관계에서 받은 위로와 권면과 책망을 우리 형제에게 그대로 해야 한다.

20) **여호와와의 뜻 (잠 19:15-29)** - 잠언의 다양한 내용은 마치 잘 짜여진 옷감처럼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중 심하여 사랑과 공의와 진실과 공평이 모든 방면에 조화를 이루어 나타난다. 자녀교육, 가정생활, 사회생활 전반에 하나님 경외 신앙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21 절에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확증한다. 이 말은 계획을 세울때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중심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 이고 사람이 아무리 요란한 주장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임을 믿고 현실을 그 분의 때에 맞추어 조심해서 사는 것이 참 지혜이다. 그에게 참 평안이 있고 인생의 살맛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롬 8:28)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 와 진실이 언행심사에 나타나기를 구해야 한다. “주여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주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

21) **술 취함의 교훈 (잠 20:1-15)** - 성경은 포도주를 약 (딤후 5:23)으로는 허용하지만 술 취함은 엄격하게 금한다. 술에 인박이지 않는 자를 집사로 세우라고 했고 술은 마음이 곤고한 자의 것이기에 왕은 금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잠언에서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첫째,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기에 거기 유 혹된 자는 지혜가 없다고 말한다. 마음은 그의 말쑥과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겸손하게 된다. 둘째, 술 취하 는 것은 하나님

예배의 지혜를 둔하게 한다. 술 취함으로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가 죽임당한 나답, 아비후의 경우를 생각할 때 신약 제사장인 신자는 더욱 더 술 취함을 금해야 한다. 성령충만을 받아 바른 정신으로 감격스럽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엡 5:18) 여호와 경외 신앙자는 성령 은혜에 취해 사는 매력있는 사람이다.

22) 입술의 열매 (잠 18:13-24) -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21-22) 언어 사용은 하나님 형상 중 중요한 기능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 말하는 사람을 만들어 자신의 뜻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말은 어떤 성격을 갖는가? 첫째, 생사가 말에 달렸다고 말한다. 인생의 생사를 가늠하는 복음을 말로 전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이다. 말로 전도하게 하시고 말로 성장하게 하셨다. 약한 입술이 바른 말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해야 한다. 둘째, 마음이 말로 표현된다고 했다. 심령이 병을 이긴다는 말씀대로(14) 하나님 말씀에 이끌린 마음에서 나온 말이 자기도 치료하고 이웃도 치료한다. 보혈로 씻음받은 정결한 마음에서 덕을 세우는 말이 되게해야 한다. 셋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한 말을 할 수 있다. 사도행전의 약속된 성령 부으심은 말의 은사인 예언으로 표현되었다.(행 2:17) 성령에 이끌린 말을 하기위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23) 용서 생활 (잠 19:1-14) -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자의 영광이니라”(11) 일상에서의 용서란 어떻게 이루어질까? 첫째, 분노를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치 않는 마음은 용수철처럼 솟아올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먼저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에 야고보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가르친다.(약 1:19) 둘째, 여호와 경외신앙을 힘써야 한다.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라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 하나님께 일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백 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배은망덕하는 죄를 범하는 셈이 된다, 셋째, 용서는 더 큰 용서의 영광을 얻게 한다.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한없이 용서할 처지에 있다. 여기에 풍성한 은혜가 따른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약 2:13)

24) 영혼의 등불 (잠 20:16-30) -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와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잠 20:27) 사람들이 영혼이란 말을 많이하지만 하나님 외에 영혼의 문제를 결코 다룰 수가 없다. 영혼이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 영혼을 마음, 영, 속사람 등으로 달리 표현하면서 영혼을 살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개역성경에는 이 영혼을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지만 NIV 역에는 하나님이 영혼을 찾으시는 것으로 번역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영혼을 사람의 몸을 밝히는 눈으로 비유하면서 눈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면 어두워질 수 있음을 지적하셨다.(마 6:22-24) 다윗은 주의 말씀을 발의 등이요 빛임을 알고 밝은 영혼을 가지려면 말씀의 빛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 119:105)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만이 밝은 영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는 날마다 자기 영혼을 말씀의 빛 앞에 정직히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에 최우선권을 둘 때 밝음의 삶을 살 수 있다.

25) 심판대 앞에서 살자 (잠 21:1-14) - 잠언에 나온 교훈이

지도자를 교훈하는 내용이 많은 것은 실제적 정치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가진 신자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르치는면이 더 강하다. 첫째,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다. 터진 붓물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권세가 있으나 여호와 경외하는 왕은 바른 왕권을 행사하여 참 자유와 형통을 체험한다. 진리가 있는 곳에만 참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방종하기 쉬운 권력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자가 걸어야 할 길이다.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하는 공부나 일이나 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위해 항상 만왕의 왕의 심판대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임해야 한다.

26) 뿌린대로 거둔다 (잠 21:15-33) -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첫째, 의인은 의를 즐거워하지만 죄인은

불의를 기뻐한다.(15) 의인은 공의를 즐거움으로 삼아 홍왕을 체험하지만 악인은 불의를 즐기다가 마침내 저주를 받는다. 911 테러같은 멸망이 홀연히 찾아온다. 둘째,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 안에 거한다.(16) 악인의 회중과 의인의 회중이 있는데 의인은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살지만 악인은 망한다.(시 1: 6) 교회는 성령의 조명 안에 살기를 힘쓰는 밝은 회중이다. 셋째,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망한다. 연락, 술, 그리고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17)은 육적 쾌락에 심취한 자의 위험함을 경계한 것이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씀과 통한다. 경외 신앙을 가진 의인의 보장 받는 길을 걸어야 한다.

27) 미련에서 벗어나라 (잠 27:14-21) -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14)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은 적응성을 간과한 무의미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때 복을 저주로 취급하여 복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지혜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취급될 때가 많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접근하여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는 지혜로운 행동이 따라야 한다. 상황에 맞는 축원이 되지 않으면 오해하여 도리어 욕을 당할 수 있다. 아무리 축복하는 일이라도 아침에 큰 소리는 경우에

맞는 것이 아니다. 아침에는 작은 소리로 축원하는 적응성있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진리의 도는 폭탄 터 뜨리는 방식보다 때에 맞는 유익을 주려는 배려에 진지함으로 걷는 길이다. 미련에서 벗어나 지혜의 길을 걸어야 한다.

28) 바른 일꾼 (잠 22:1-16)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하리라.” 여호와 경외신앙이 교육을 통해 전수됨을 본문이 어떻게 보여주는가? 첫째, 마땅히 행할 길 곧, 성경을 가르쳐 배우고 확신에 거하게 해야 한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하기 때문에 성경교육으로만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둘째, 가르치라고 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함, 그리고 의로 교육함으로 표현된다. (딤후 3:16) 정보전달만이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본을 보이면서 적응시켜야 한다. 셋째, 아이 때에 가르쳐야 한다. 영육의 유치기에 말씀의 틀을 잡고 말씀으로 양육함이 지혜이다. 그 결과는 장래에 진리를 떠나지 않게 된다. 나 자신이 먼저 성경을 깨닫고 본을 보이며 나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바른일꾼이 되어야 한다.

29) 온전한 지혜 생활 (잠 22:17-29) - 지혜자의 생활이 어떠해야하는가? 첫째, 지혜자의 말씀과 지식은 여호와 경외신앙을 가리키며 그 자체가 생명이다. 지혜의 가르침은 개인적 형태로 나타나기를 “지혜와 나(일인칭)”의 관계로 설명했다. 제자도의

방법은 항상이란 것이다. 말씀이 개인의 마음에 보존되고 입술로 표현될 때 아름 다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가르침, 기록,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진리에 응답해야 한다. 지혜의 생활은 기록된 말씀에 착념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노와 울분을 품은 자와 동행 하지 말라는 이유는 행위의 분을 따름으로 영혼이 울무에 빠지기 때문이다. 자기 산업에도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근심한 사람이 존귀하게 된다. 셋째,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지혜의 삶은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돌보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소자를 하나님이 신원하시기 때문이다.(20-21) 이것이 참 경건이다.(약 1:27)

30) 탐욕 (잠 23:1-14) - 모든 죄악의 뿌리인 탐욕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길이며 큰 용사보다 더 낫다. 어 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는가? 첫째, 탐욕이 헛됨을 알아야 한다. 탐욕은 칼을 목에 둔 것과 같고(1-3) 마침내 모든 것을 토하게 되어 있다.(6-8) 바벨탐이 무너지듯 탐욕의 마지막은 허사이다. 둘째, 탐욕을 경계하고 불로소득을 조심해야 한다. 쉽게 되는 것보다 진실한 수고를 통해 진실한 열매를 얻으려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마귀의 술책 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수고없이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셋째, 적극적 방법으로는 재물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 며(4-5) 소자에 대한 사랑을 가지며(10-11) 훈계에 착념해야 한다.(11-12) 그래서 바울은 바른 교훈에 착념치 않 으면 저절로 교만하여 부패한 마음이 되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탐욕을 좇아가도록 되어있다고 말한 것이다.
(딤후 6:3) 육체소욕의 정체가 탐욕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든 영역에서
주로 인정하는 삶 만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탐욕과 싸우는 참
용사의 길을 걸어야 한다.

31) 아굴의 잠언 (잠 30:1-17) - 아굴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배울
경건의 본인가? 첫째, 그는 계시를 아는 자였기 때문이다.(5-6)
말씀의 순수성, 명백성, 구원성, 권위성을 확신하는 건전한 성경관을
소유한,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 마치 개혁자들의 성경관을 그림으로
보는 것 같고 성경 체험주의자의 샘플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하다. 둘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7-9)
그리스도인의 자아상과 진실한 삶과 균형있는 삶(빌 4:13)을 평생
소원으로 삼았다. 주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정신과 통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일로 삼은 본이다. 셋째, 그는
불효하는 무리, 교만한 무리, 탐심의 무리를 미워했기 때문이다.(11-
17) 거짓과 탐욕을 경계하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보여준다. 바울의 신앙을 생각해 하는 그 신앙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생긴 것이다. 아굴의 확신으로 살아야 한다.

32) 악인의 행통 (잠 24:1-22) - 하박국 선지자나 시편 37 편의
시인처럼 악인의 번성으로 생긴 갈등에 관해 잠언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첫째, 악인의 행통은 장래가 없다고 말한다.(1) 악의

번성과 배은망덕한 자의 형통은 일시적이다. 믿지않는 자의 모든 형통이 무너지는 까닭은 좁은 길을 가지않았기 때문이다. 넓은 길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길이기에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멸망이다. 둘째, 시기하며 괴로워하여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계한다.(19-20) 자기 집을 지혜로 세우기를 힘써야 한다.(3) 이 말은 말씀과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는 말이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리이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세상 최고의 부요가 부럽지않는 확신의 자리이다. 그리고 소자들을 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믿는 의인은 이웃 소자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힘쓰는 사람이다.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심을 알기 때문이다.(합 3:19)

33) 맞는 삶 (잠 24:23-34) -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지혜의 삶은 모든 방면에 꼭 맞는 생활이다. 세 방면에 그러해야 한다. 첫째, 판단의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외모보다 중심을 보고 판단하며 (23-25) 적절한 말과 적절한 일의 균형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둘째, 원수에 대한 적응성을 가져야 한다. 상황이 극에 달할 때 적응성을 잃기 쉽다.(28-29) 원수를 대할 때도 복수물을 따르지 않고 그를 축복하고 용서함으로 더 높은 차원의 복을 체험할 수 있다. 스테반의 용서의 기도는 초대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였으며 그를 죽이던 사울이 사도가 되는 기적이 생긴 것이다. 셋째, 환경의 적응성을 가져야 한다. 게으른 자의 환경을 보고서도 교훈을 얻는

것이 지혜자이다. (30-34)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지혜자는 악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다.(17-18) 복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 꼭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34) 슬기자의 처신 (잠 25:1-14) -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개인의 마음을 통과할 때 효과있는 열매가 나타난다. 어떤 방면에 효과가 나타나는가? 첫째, 왕적 다스림에 나타난다.(2-5) -일을 살피고 꿈과 높은 마음을 소유하며 의로 견고하게 하려한다. 남을 다스리는 자의 일차적인 일은 자기 마음을 말씀에게 양도하는 일이어야 한다. 둘째, 합당한 삶에 나타난다.(11-13) 경우에 합당한 말, 슬기로운 자의 책망, 충성된 사자는 모두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난 결과이다. 지혜자는 세상의 알팍한 체세술을 능가한 경건한 처세술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은 여호와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인격에까지 그 영력으로 무장하여 그 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정예배 시간을 이런 현장으로 만들 수 있다.

35) 의인의 혀 (잠 25:15-28) -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혀는 세가지 방면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겸손의 혀를 갖는다. 마음에 크신 하나님을 알기때문에 자연히 겸손하여 인내하며 부드러운 말을 갖는다.(15,23) 겸손과 인내의 말을 한다는 것이다. 조금한 말때문에 손해보는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겸손한 말을 배워야 한다. 둘째,

진실의 혀를 갖는다. 거짓 증거와 거짓을 의뢰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는 진실의 혀로 나타난다.(18,19) 솔직한 말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거짓이 될 수 있다. 진실의 영의 기록인 진실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여 진실한 말만 해야한다. 셋째, 화목의 혀를 갖는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화목의 언어이다.(20,21,24) 경제적 풍요를 맞볼 때 방종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은혜받는 일에 힘씀으로 은혜로 고르게 하는 말, 곧, 겸손, 진실, 그리고 화평의 언어 생활을 해야한다.

36) 목시가 없으면 (잠 29:15-27) - 목시란 다른 말로 계시이다.
계시란 하나님이 베일을 벗겨 열어 보여주는 것을 가리킨다. 믿음과 행함을 포함하는 율법, 곧, 성문화된 계시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밖에 없다. 자기 할 일을 알게되니까 규모있는 삶을 살게된다. 계시를 모르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첫째, 영적 어두운 삶을 살게된다. 계시는 명료하고 충족하며 구원의 능력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목시를 모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치인생이 되어버린다. 둘째, 목시가 없으면 방종하게 된다. 이유는 기준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이를 징계할 때도 임의로 하다가 빗나가고 개인 삶에도 임의로 판단함으로 교만으로 치우쳐 육체소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특별계시인 성경 앞에 바로 서서 성령의 밝히시는 은혜로 항상 계시가 가득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37) 언덕사 (잠 26:17-28) -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는 야고보의 말대로 입술에 파수군을 세운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말에 덕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덕있는 말을 할까?
 첫째,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다툼을 간섭하거나(17)
 희롱하거나(18-19)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는 모두 교만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온유한 말이
 나온다.(23-27) 둘째, 성령 안의 기도생활을 힘써야 한다.
 거짓말(28)과 아침의 말(28)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진실한 기도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셋째, 덕 위주의 삶을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과 칼과 몽둥이 그리고 불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도 이웃을 고치고 치료하는 말을
 해야한다. 선교사이기 전에 선덕사가 되어야 하며 선덕사가 되려면
 언덕사가 되어야 한다.

38) 현실에 충실한 삶 (잠 27:1-13) - 어떻게 신자는 미래보다
 현실에 더 충실할 수 있나? 첫째, 현재를 겸손히 살아야 한다.(1-2)
 안개와 같고 풀과 같은 인생은 신속히 지나간다. 그 다음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한 날의 괴로움을 그 날로 족히 여기고 지금있는 그
 자리부터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 둘째, 작은 욕적 욕망을 제해야 한다.
 분노와 투기는 현재의 충성을 저하시킨다.(3-4)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의 책망을 잘
 받아야 한다.(5-6) 사랑의 면책과 친구의 권고를 잘 받을 줄 알아야

한다.(5-6, 9)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책망을 잘 받을때 양약을 체험한다. 비존이란 명목아래 현실을 등한히 여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함을 지켜나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39) 작은 일에 성실하자 (잠 27:22-27) - 전원적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본문은 작은 일에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첫째, 먼 곳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다. 면류관과 재물에 마음을 두기보다 현재 자기 일과 자기 양떼와 소떼에 마음을 두고 작은 일에 성실할 때 큰 것을 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미련한 자는 항상 미래와 과거에 마음을 두지만 지혜자는 철저히 현실을 살핀다.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미련할 뿐이다. 미련은 절구 속에 넣고 찼어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잠언은 땅 끝에 가있는 미련한 마음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나에게 맡겨진 식구부터 성실하게 믿음으로 돌보며,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생활에 성실함으로 마음의 샘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야한다.

40) 의인의 담력 (잠 28:1-18) - 의인으로 인정받아 의를 이름에 부름받은 신자는 사자같은 담력을 가져야 한다.(1) 세상이 매우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부흥을 위해 맹수같은 거짓교훈과 싸웠다고 고백한다.(고전 15:32) 어떻게 담력을 가질 수

있나? 첫째, 하나님의 보호의식 때문에 담대한다. 그러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두려움이 있는 까닭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식에 잡혔기 때문이다. 다윗의 골리앗 앞에서의 담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왔다. 둘째, 성령이 지배하는 임마누엘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되어진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바울은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굴하지 않고 도리어 그 환경을 복된 역사로 바꾸는 담력을 가지고 일한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내 것으로 삼기위해 나의 할 일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것 뿐이다.

41) 구제의 삶 (잠 28:19-28) – 잠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삶의 다양한 방안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잠언의 여호와 경외신앙은 복음 안에서만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그 중 이웃구제에 관해 어떻게 말하는가? 첫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자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다.(27) 가난한 자란 영육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무엇보다 복음을 알게하고 누리게하는 것이 구제의 중심이어야 한다. 둘째, 바른 구제란 하나님 앞에서 하며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하도록 갚아주신다. 공홀이 심판을 이긴다.(약 2:13) 셋째, 구제에 무관심한 자에게 저주가 많이 임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소자를 도우라고 맡긴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 목표로 움직이는 삶은 결국 자기를 관리하는 최상의 길 중 하나이다.

42) 소자를 섬기는 사람 (잠 29:1-14) - 여러 관계생활에서 복된 길을 보여주는 본문은 소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가르친다. 첫째, 13 절에 가난한 자와 포박한 자가 섞여 살아도 하나님의 자비는 한결 같으심을 보여준다. 이것은 일반은혜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배려이다. 가난한 자로 표현된 신자에게는 악인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따른다. 거둡남과 죄사함과 영생을 소유한 자는 선택된 자기 백성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자라지만 마침내 선악간 심판을 받는다. 섞여있는 동안 악인을 옳은대로 돌리기려는 수고를 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다. 둘째, 14 절에 왕이 소자를 신원할 때 권위가 세워짐을 가르친다. 소자를 무시함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은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교회 생활에 소자가 용납되도록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낮은 마음으로 살 때 영권이 세워진다. 진정한 리더쉽은 소자를 섬기는 마음 위에 주어진다.

43) 여호와 경외 신앙 (잠 23:15-35) - 악인이 잘됨을 보고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에 흔히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 갈등은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합 3:13-17) 시편기자도 그러했다.(시 73:) 이때 마음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큰 시험에 빠지기 쉽다. 잠언의 지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첫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실상에 무지했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야 미끄러운 가운데 두어 줄지에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둘째,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신다.(17)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이 밝혀줄 때 깨달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주변에 아무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경외 신앙이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악인이 모르는 신령한 세계를 보며 사슴의 발처럼 모든 문제의 산들을 밟고 다니게 하신다는 것이다.

44) 미련의 죄 (잠 26:1-16) - 일정한 견해가 없는 어리석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미련함이란 첩면피와 같이 악에 연단되어 고정된 상태를 가리킨다. 왜 미련한 삶을 경계해야 하나? 첫째, 미련은 망령된 행동을 만들기 때문이다. 여름에 눈 오는 것이나 추수때 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쉽게 배반한다. 한 그릇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버림 당하였다. 둘째, 미련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다.(3) 말에는 채찍이 필요하듯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따른다고 한 것이 그 뜻이다. 영적 미련은 하나님 은혜를 대적하는 디오드레베의 죄를 범케 만든다.(요삼 1:9-10)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성령의 길을 막는 분쟁주의자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 미련은 영적 나태로 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13-15) 세상 일에는 부지런하면서

영적 일에 게으른 자는 소심하여 일을 만들며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육적 근심에 빠지게 된다. 성령받은 신자는 근면한 사람이다.

결론: 잠언의 비성경적 해석을 좋아하는 현대의 흐름은 요나단
에드워드가 언급한 것처럼, 잠언을 크리스찬 생활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완전히 퓨리탄적 해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생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상태
곧, 구속적 윤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속에 근거를 둔 견고한 생활을 세워나갈 수
있다.(골 2:6-7) 더우기 우리는 잠언의 경구 속에서 여호와
경외신앙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보며 그것과 긴밀하게 연합된
진리의 기둥, 하나님의 성품인 의,인,신이 어울어져 구속적 윤리의
꽃과 열매를 나타낸다. 이것은 율법조항에서 조화를 이룬 것보다 더
실제적인 모습 곧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한 실체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삶을 통해 그 적용된 진리가 나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구속의 영광, 언약의 영광 곧,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영광이다.

VI 전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전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인생 전반에 걸친 두드러진
생활 방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본다. 해 아래의 죄인이 전적

부패한 인생으로 절대 허무적 존재임을 전제로 하고 시작한 전도자는 해 위에 사는 경건한 자의 삶 곧 가장 가치있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의인신을 기준삼아 인생의 전반적인 삶에 그 가치를 논한다. 마침내 전도자는 그 실체이신 메시아 곧,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을 암시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도서의 1: - 4: 그리고 8:-12: 을 통하여 생각한다.

1.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전1:1-11) - 전도서는 단순한 독백이나 허무를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중요성"을 노래한다. "일의 결곡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12:13)는 결론을 읽기 전에는 그 목적을 잘 모른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인생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솔로몬의 경험적 설교를 통하여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워보자.

첫째, 해 아래 있는 인생은 허무를 맞보며 사는 존재이다. -
전도자의 자신의 프로필을 설명한 솔로몬은 즉시 “모든 것이 헛된 사실”을 탄식하듯이 말한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 그러나 이것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는 아니고 단지 한 면일 뿐이다. 인생은 한 면만을 보면 언제나 허무로 끝난다. 그래서 어떤 이는 현대인을 평할 때 "허무의 강변에

앉아 허무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라고 했다. 하나님과 그 분께 드리는 경외를 모른다면 응달의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전도자는 허무를 느끼는 여러 방면을 소개한다.(1) 세대의 변화가 허무를 느끼게 한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고 땅은 여전히 있도다” (4) 변화무쌍한 세상을 생각할 때 인생은 허무를 느낀다는 것이다. 세대의 변화는 인생의 한계성을 점점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2) 변치 않는 것이 허무를 느끼게 한다. 변화하는 것 때문에도 허무를 느끼지만,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허무를 더 느낀다.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그 바다로 흐르되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5-7) 태양의 일몰을 보라. 아침에는 희망을 느끼지만 저녁에는 서글픔을 느낀다. 이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년월일의 변화가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것의 반복일 뿐이다. 바람의 움직임을 보라. 팜스프링의 팔랑개비는 풍력의 위대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바람의 움직임은 이리 돌고 저리 돌아가지만 여전히 같은 일의 반복일 뿐이다. 물의 흐름도 허무를 느끼게 한다. 샘물이 시내를, 시내가 강을, 강이 대양을 이룬다. 또다시 그 물은 햇볕으로 수증기가 되어 구름을

이루고, 구름은 비를 이루어 땅위에 쏟아 붓는다. 같은 일의 반복일 뿐이다. 결국 재미 없는 것이 인생이다. 어거스틴의 고백대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허무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둘째, 해 아래 있는 인생은 그 자신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 허무를 되씹는 인생은 권태로운 반복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전도자는 이것을 바라보고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9)고 말한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 하는도다” (8) (1) 눈의 만족이 없다. 안목의 정욕이 발동해도 진정한 만족은 얻지 못한다. (2) 귀가 만족하지 못한다. 귀를 즐겁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온갖 것을 다 동원하여 귀를 즐겁게 하려 하지만 여전히 만족을 얻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련된 소리를 듣기 전에는 진정한 참 만족이 없는 것이다. (3) 눈과 귀는 결국, 모든 기능의 중심인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Calvin이 말한대로 소 우주같은 사람의 마음은 해 아래서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 (4) 어떤 이들은 후대에 물려주면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애를 쓰지만 그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전도자는 말한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10-11)라고 한다.

셋째, 오직 인생은 해 위의 것으로만 만족을 얻는 존재이다. -

진정한 만족은 해 아래는 없고 해 위에 있다. 전도자가 여기서 허무를 노래한 이유는 바로 위를 쳐다볼 때만이 소망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치기 위함이다. 9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자의 주장은 바로 해 위에만 새 것이 있음을 가리킴이다. 정말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올 때만 만족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맛보고 영원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위로부터 나아 한다. 거듭나는 것이 바로 새로움을 얻는 첫 길이다. 다음에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속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새로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골로새서 3:1-3) 새 것이 없는 세상에 살지만 “날로 새롭도다” 라는 바울의 경험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2.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 (전1:12-18) - 전도자는 지혜로서 하늘 아래 것을 살핀즉 괴로운 것과 수고뿐이며 모든 지식과 지혜의 활동이 바람잡이처럼 허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18)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없는 지식과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아가는 것만이 바른 지식 곧 생명임을 우리는 믿는다.(요17:3) 하나님 없는 지식과 지혜가 왜 헛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복된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 하나님 없는 지식과 지혜가 헛되다. - 전도자는 자신이 지혜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12, 16) 그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허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증거가 아니다. 더욱이 그의 증거가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증거라는 사실이기에 우리는 그 결론 앞에 겸허해야 한다.(1) 지식이 헛되다. 12-15절에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궁구했다 한다. 궁구란 말은 연구하고(to study), 탐구했다(to explore)는 말이다. 대단한 수고이다. 정말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그 막대한 연구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모든 지식은 허사라는 것이다. 왜 허사인가?가면 갈수록 모르는 것이 많고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로 마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 짐작 한다. 1) 물질계 연구도 신비로 끝난다.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이다. 어떤 원리만을 아는 정도이다. 법칙과 원리를 따르지만 전혀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너무나 신비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 행위의

모든 끝은 허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2) 정신계의 지식은 더 무한대이다. 인간 심리를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이지, 그 깊이와 교묘함을 어떻게 분별하겠는가? 멀쩡한 사람이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이런 세계를 알면 할수록 더 겸손할 수 밖에 없다. 3) 영계의 지식은 더욱 더 미묘하다. 마귀와 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천사의 존재, 하나님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구 잡이로 규정한다고 일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성경이란 법칙과 기준을 따라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서 알 뿐이다. 그래서 성경에 바른 진리 지식에 착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지혜 역시 헛되다. 솔로몬은 그 자신이 지혜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헛되다는 것이다. 미친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것도 헛되고 미련한 것을 경멸하지만 허사로 마친다고 했다. 약1:9-10에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지혜라 했다. 이 모든 일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연관된 지혜가 될 때에야 비로소 허상이 실상으로, 허사가 실사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만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 -

우리는 본문에서 지식과 지혜가 모두 허사라는 것만을 보면 안된다.

허무한 지식과 지혜 이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지식과 지혜의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고 했다. 여기서
 “알다” 라는 히브리말 “야다” 는 지적인 앎 정도가 아니고 체험적
 앎을 가리킨다. 정말 이것은 성령님이 열어주심으로 알려지고
 행동화하는 체험적인 지식이다. 전도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와
 지식의 실상을 알 때, 허사라는 체험을 했다. 동시에 그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의
 지식행위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요셉은 행정능력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 만드는 기술로 쓰임 받았다. 신약의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될 때, 그의 지식과 지혜가 생명의 불을
 지피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혜와
 지식임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을
 내렸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인 것이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자. 그러나 이것의 중심이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 성령의 계시에 근거한 지식이 되게 하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는 불쏘시게가 될 수 있다.

3. 그리스도안에 두신 즐거움 (전2:1-11) - 하나님 없는 지식과 지혜가 허사이듯이 해아래서의 모든 즐거움도 하나님을 떠나 내세와 관련을 갖지 않을 때 아무 것도 아님을 전도자는 증거한다. 그래서 전도서 2:11절에 보면 “ 그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고 했다. 그러나 그리스 도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평안은 세상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이다.

첫째, 전도자가 살핀 즐거움의 범위가 어디인가? - 전도자는 지식과 지혜만을 연구하고 살핀 것이 아니라 모든 방면의 즐거움을 살폈다. 2: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라 했다. 모든 쾌락을 시험 적으로 살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물론 그 자신이 내린 결론이 아니라 성령의 결론이다.(3절에도 내 마음에 궁구하 였다고 했다) 그가 시험한 쾌락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3-11절에 보면 육체의 즐거움, 일의 즐거움, 소유의 즐거움, 예 술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을 연구하였다고 한다. 어떻게 연구했나? 1) 육체의 즐거움 - 3절에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 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 이 쾌락인지 알까하여” 라고 한다. 2) 일의 즐거움 - 사업을 크게 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다.(4절) 개인 비즈니스가 돈버는 목적도 있지만 그 자체가 즐거움이다. 하나님이 일하는 즐거움을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3) 소유의 즐거움 - 다음에 솔로몬은 소유의 즐거움을 살폈다. 집을 세우고, 포도원을 만들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수목을 심고, 못을 파고 노비를 많이 두었고 소와 양떼를 많이 두었다. 은금을 쌓고 골동품 수집가처럼 보배를 쌓았다. 4) 예술의 즐거움 - 예술방 면의 즐거움을 연구했다.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좋아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5) 마음의 즐거움 - 10절에 보면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모든 수고를 들여 얻은 분복이라고 한다. 나의 감정, 의지, 지성의 모든 방면에 진정 즐거운 것이라면 온통 그것을 다 해 보았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허사라는 것이 다. 헛된 결론을 잘 아는 우리들은 이런 일시적인 즐거움을 상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한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안에 있는 즐거움만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세상 즐거움의 관찰은 결국 허사로 마친다는 전 도자의 주장은 하나님의 주장이다. 우리가 알 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이면에는 영원한 즐거움에 대한 갈망을 요구하시 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한다.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 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고 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안에 두신 즐거움을 볼 수 있어 야한다. 밋모에서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마음이 하늘의 즐거움 으로 가득 찬 사람 인 것을 발견한다. 1:9절에 환난과 하나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했다.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다. 우리도 교회에 올 때, 봉사할 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한다. 이 즐거움을 모르면 그는 헌신할 수도 없고, 먹으나 마시나 다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해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안에 두신 그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그 영원한 즐거움이란 어떤 것인가? 1)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이다. 죄 사함 받은 자의 즐거움이다. 거듭나서 새생명을 가진 자의 기쁨이다. 2) 그것은 확신의 즐거움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롬5:5)(벧전1:8)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약속된 특이한 즐거움이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다. 이 땅에서 벌써 천당을 누리는 즐거움이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이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섬길 수 있어야한다.

전도자의 경험 많고, 연구 많은 활동으로 내린 쾌락의 결론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런 경건의 즐거움을 사모하자. 목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리스도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4. 지혜와 우매 (전2:12-18) - 전도자는 지식과 지혜, 즐거움을 연구하였는데, 여기서는 지혜와 우매,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 연구하였다. 대개 정 반대 것을 비교할 때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다. 이런 비교 연구에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 하나는 이들 이 일반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바람을 잡는 일이란 점이다. 그래서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이로다” 는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지혜 와 우매는 왜 같은 것인가?

첫째, 지혜와 우매의 길에는 모두 고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 전도자는 이것을 비교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인정했다. 1) 빛과 어두움의 차이를 인정했다. 성경은 빛과 어두움의 대칭개념은 영적 질서를 말할 때 종종 사용한 것이다.(요1:4-5, 요5:24, 롬13:12, 행26:16-18) 2) 밝은 눈과 소경의 차이임을 인정했다. 아무리 빛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듯이, 지혜는 우리에게 게 밝음 속에 다니게하고 우매는 어두움 속에 다니게 한다는 것이다. 공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 머리 좋고 나쁜 것의 차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그러므로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면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우매하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안에서의 구원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한다. 15절에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는 전도자의 확신으로 우리는 내 가 서 있는 현주소를 분명히 알고 용기를 가져야한다.

둘째, 그들의 명예가 후대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

16절에 “지혜자나 우매자가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 버린지 오랜 것임이라...” 는 말씀에서 지혜자나 우매자의 명예가 후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에 헛되 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내기위해서 온갖 수단방법을 안 가린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명예가 물거품 같은 것을 모르고 착각 속에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이생의 자랑” 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 사울 왕은 자기 이름 내 는데 급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보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역사적 유산이나 유물도 다 사라 지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왜냐? 후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남는 명예를 위해서 수고해야한다.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기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현실주의자들이어서 영

원 세계의 명예와 상급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90%가 보상주의를 믿지않는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이다. 이것은 전도서의 말씀의 진의를 몰랐기 때문이다. 진정한 명예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 실상을 잘 알고 영원한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야한다.

세째, 그들 모두 죽음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둘이 큰 차이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현재의 고난이나 미래의 명예가 다 사라지기에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호 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16)고 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인생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같은 처지에 떨어진 인생이기에 바람을 잡는 것이란 말이다. 솔로몬같은 지혜자의 죽음을 보라. 그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었기에 그 이름이 빛날 뿐이다. 그래서 주님은 솔로몬의 입은 옷이나,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면서 진정한 참 지혜를 가르쳐주셨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는 단지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꾼에 불과했다. 만일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못한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를 보면, 겉모양은 같은 죽음이지만 전혀 다른 죽음을 본다. 한편은 어리석음으로 마쳤으나 한편은 늦게나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낙원에 들어갔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인 것이 다. 해

아래서의 일반인 것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안에 있는 자는 특별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안에서의 삶이 진정한 지혜자인 줄 믿고 그 안에서 감사, 찬송하며 면류관을 주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5. 인간 수고의 참 의미 (전3:18-26) - 한 동안 우리민족은 노동을 좌악시하거나 일 안하고 놀고 먹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부러워 하는 철학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노동을 복이라고 말한다.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주님은 일거리를 축복으로 주셨고 만물 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 타락 후에도 하나님은 노동과 해산, 가정 생활의 사랑과 복종은 여전히 제하지 않으시 고 그대로 남겨 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전도자의 허사가” 에서도 그리스도안에서의 노동은 그 어느 하나도 헛되지 않은 즐거움이요, 축복이요, 영원히 남는 것임을 믿어야한다.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하면 헛되 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첫째, 인간 수고가 허사라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한다.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에 대하여 전도자는 두 가지로 정리한다. 하나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사용치 못하고 후대에 그대로 물려주는 것을 생각할 때 헛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가 드린 수고가

우매자의 손에 넘어가 나의 목적과 소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소원과 프로젝트가 나의 계획과 달리 다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모든 지혜, 지식, 재주가 다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전도자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수고를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의 지식과 지혜와 재주는 모두 의미가 있으며 영원히 남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과 같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방언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을 목표로 할 때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메여 수고하는 교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교회와 함께 고생하는 것은 모두다 축복으로 나타나며 영원한 것으로 남기 때문이다.

둘째, 심령의 낙을 추구함으로서 헛된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해 아래의 수고가 헛되지만 여기에 소망의 수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심령의 낙이다. 마음이 낙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했다. (24절)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에도 120세의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를 맞보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 했다.(14)

다른 시편에도 나의 진정한 만족은 주님뿐이라고 한 것(16:)은 바로 이런 의미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 성령의 교통을 최고의 낙인줄 믿는다. 이 성령의 교통이란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 말세의 두 증인처럼 우리는 예언할 사명을 받았다. 모세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원수를 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권세를 받았는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교통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오늘날 시므온 같은 사람은 많다. 돈으로 그 능력을 사서 한 몫 볼려는 욕적 욕심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기 커녕 도리어 마귀가 충만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세례요한처럼 심령의 강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함으로 가장 의미있는 삶을 살다가 주앞에 서는 자가 되자.

세제, 하나님을 즐기는 삶을 통해 헛된 수고에서 해방될 수 있다.

심령의 낙은 적은 목표라면 하나님을 즐기는 것은 큰 목표이다. 소요리 문답 일문에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라고 했다. 26절에도 하나님을 즐기는 삶은 심령 천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럴 때 주께서 더 맡기시고 천국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심지어 악인의 수고로 쌓은 것까지도 떠맡기신다 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교회 직분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즐기는 생활라고 볼 수 있다. 수고로 가득 찬 세계를 산다해도 우리는 참

의미를 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안의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큰 수고를 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 받은 우리들은 열심히 주안에서 많은 수고를 하자.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철든 인생(전3:1-11) -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만드셨다. 청지기직은 단지 주인의 권리를 따르는데 있다. 건강, 물질, 재능, 직업, 시간의 청지기이다. 특히 시간의 청지기로서 “세월을 아끼면서” (엡5:16)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전도서에도 “때” (time, season)라는 말을 많이 언급한 이유는 기회 인식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데 있다. 기회 인식이란 철든 인식을 가리킨다. 왜 성도에게 기회인식이 그렇게 중요한가?

I. 만사의 때가 작정되었기 때문이다. 1절에 만사의 때와 목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 감을 말한다. 롬8:29-30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시작과 진행의 순간 순간이 하나님의 작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한 것은 시간의 청지기직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혼인할 사람이 그 날을 기다리듯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때에 민감해야한다.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처럼 기회와 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한다. 본문에 “때” 라는 말이 28회 이상 나온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시킬 때, 혈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 댈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 할 때가 있다고 한다. 역사의 시작이나 마지막이 정한 때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무수한 고난도 의미가 없는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만사가 주님의 정한 프로그램에서 돌아간다는 말이다. 바로 이 경륜 때문에 교만이나 태만이 아닌, 겸손한 마음과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어 시간의 선한 청지기로 알차게 살아가기 바란다.

II. 만사가 주님의 손안에 달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왜 기회인식을 가져야하는가? 만사가 주님의 손안에서 되어가기 때문이다. 경륜을 세우신 주님은 자신의 손으로 친히 이루시는 역사의 섭리자이시다. 골1:16-17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이 그 안에 함께 었느니라 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섭하심을 바라봄으로 현재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한다. 섭리가 운데는 하나님의 협력하심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다 해 놓으시고 마치 우리의 협력으로 한 것처럼 하신다는 말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영광에 동참케 하는 그 분의 배려인 것이다. 여전히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고 했고, 11절에는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아름답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으며, 사람의 시종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주권, 주재권을 겸손히 인정해야한다. 이것이 기회인식이 있는 사람이요 철이 난 인생이다.

III. 영원을 향하고 가고있기 때문이다. -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주권을 믿는 사람은 가만있지를 못한다. 때와 목적이 분명할 것이다. 더욱이 영원 세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인식을 가지게된다. 세상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 지금의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 바로 영생의 사모심이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의 기회가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믿음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고(롬10:9-10), 현재의 충성이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며(계2:10) 현재의 영적 투자가 영원의 기업을 형성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를 충성하는 철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복된 삶 (전3:12-22) - 성경은 복이란 말로 가득 찬 복책이다.
창조하시자마자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안식일을 복 주셨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안에서 완성되는
천당을 복의 나라로 설명하기를, 자금이후로 그리스도안 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고 했다. 우리 본문 12-13절에도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함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최고의
상태를 복이라고 정의한다. 그런 전도자는 무엇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가?

첫째, 기쁨으로 사는 생활이 복된 삶이라한다. - 전도자는
12절에서 한 평생을 기쁨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 했다. “사람 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는 말씀에
“기뻐하는” (to be happy)것 이 가장 복된 삶이 라고 지적한다. 이
기쁨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세상적 행복이나 기쁨을 말하지
않고 영적 기쁨을 가리킨다. 영적
기쁨이란 하나님에 의한 영혼의 만족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13절에도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줄을 또한 알았도다”고
했다. “항상 기뻐하라” 는 바울의 영적 기쁨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 기쁨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어지는 기쁨이다. 하나님을 알 때 그 앞에서 경외를 배우게 되고(14)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산 교제로 큰 기쁨을 얻는다. 이 교제는 기도응답으로 오는 기쁨이다.(요16:24)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 그리고 이 기쁨은 성령 충만함으로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다. “순전과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며” ,(행2:46)라는 표현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였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고 욕심을 가져야한다. 풍성한 식물이나 포도주의 넘침에서 오는 기쁨보다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더 좋아해야 한다. 이것은 기도할 때 찾아오고, 성경을 묵상할 때 찾아오고, 십자가지고 섬길 때 찾아온다.

둘째, 선을 행하는 생활이 복된 삶이라 한다. -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2)라는 전도자는 복된 삶이 바로 선행인 것을 지적한다. 더욱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선은 더욱 더 그리운 것이다. 그래서 재판석에서 악이 시행되는 것을 본 전도자는 탄식한다.(16) 그런데 이선은 이 세상의 선과 다르다. 영적 선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 곧,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더 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14) 이루는 것이 선행이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선(아름다움)이 나타났다. 만물 창조를 마친 후
 주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고 구속을 이루실 때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달게지셨으며, 심판의 보좌에서
 나온 “할렐루야” 응답은 주님 뜻의 온전한 성취를
 선포함이었다.(계19:)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도 그것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만족을 주지만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뜻
 가운데 치료하고 세워주고 궤메주고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다.

세째, 자기 수고에 만족을 누리는 생활이 복된 삶이라 한다. -
 기쁨과 선을 행함이 내면의 복이라고 한다면 자기 수고에 만족함이
 외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나의 하는 일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한다.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고 했고 22절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라고 했다. 영적 일에
 대한 수고가 복이란 말이다. 우리는 나의 은사에 만족해야한다.
 우리는 교회생활에 수고함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해야한다. 교회봉사가
 재미있고 순종이 재미있고 기도가 재미있어야한다. 지혜자는 반성이

있고 평가받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죄에서 돌아서고, 현재의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아 수고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생활 (전8:1-17) - 전도서 8장은 여러 가지 교훈과 반성으로 되어있다. 1절에 “지혜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는 말은 사나운 얼굴이 밝은 얼굴로 변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역할이라고 한다. 이런 지혜를 소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 전도자를 통해 들어보자.

첫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게된다. - 2-8절에 보면, 왕 앞에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말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가르쳤다. “왕 앞에 급거히 물러가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3)”, “지혜자 의 마음은 시기(적절한 때)와 판단(규정)을 분별하나니(4)” 지혜자는 하나님의 경륜(administration)안 에 있는 인간을 보기 때문에 복종의 지혜를 따름이 행복인줄 안다. 장래도 모르고, 생기도 모르고, 죽 는 날도 모르고, 전쟁을 피할 방법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 이 지혜인 줄 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남편, 직장에서는 상사, 나라에서는 임금,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복종하도록 철저히 가르친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권위에 대한 복종을 배우게 함에 있다.(엡 5:18절 이하 참고) 에베소서 4:3절에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교회 머리인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다. 복종은 그리스도인의 주된 임무이고 몸을 세우는 근본 수단이다.

엡5:22-24절에 나오는 부부 관계에서의 복종과 6:5-8절에 나오는 상전에 대한 복종은 모두 권위에 대한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한다. 남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함이라 했고 상전에 대한 복종일지라도 주께서 친히 다 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각종 권위를 반대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인 것이다.

둘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일반제도의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9-10절에서 전도자는 변칙하는 상황을 내다보면서도 주님의 주권을 찬양했다. 백번의 악을 범해도 장수하는 일이 있다고 말한다. 14절에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고 했다. 의인이 잊혀진바 될 때 의를 행할 의욕을 잃어버리기 쉽다. 그리고 이런 변칙을 주심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받을 확신을 가지며, 동시에 “그리하지 않아도 절할 수 없다”는 주권 신앙을 따름이 지혜인 것이다. 주님의 주권이 세워질 때 능력이 임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머문다.

또다시 전도자는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는 자리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한다. 그래서 11-13 절에 전도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된다”는 확신에 넘쳐있다. 사람의 먹고 마시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의 가치를 알고, 현실에 충실할 때 이것이 복이다. 여호와 경외는 예배로 표현되고 찬송으로 표현되고 기도로 표현된다. 바울은 감옥에 있다할지라도 그런 찬양과 소망에 넘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환경이 문제되지 않 았고 도리어 감옥에 갇힘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리이다. 이런 지혜가 마구 솟아나는 곳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리이다.

영적 즐거움 (전9:1-10) - 오늘 9장에서 전도자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오는 “영적 즐거움” 을 누리는 것이 복되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알 때 기쁨이 있지만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어 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의 대상과 영역을 다른데 두기 때문에 문제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즐거움이란 어떤 것인지, 즐거워해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를 영감 받은 전도자를 통해 듣기를 원한다.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손아래 있는 그 자체를 즐거워해야 한다.- 1-6절까지 전도자는 “일반” (common destiny)이란 말을 4 번 사용했다. “모든 것이 일반이라(2) “ , ” 결국이 일반이니(2) “ , ”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2) “ , 그리고 3절에도 ”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same destiny)은 “이라 말했다. 평범한 생활을 누구나 다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래 있음을 아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래서 1절에 “네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아래 있으니” 라고 했다. 하나님은

모든 선악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기에(2) 우리는 하나님의 손아래 있는 그 자체를 즐거워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지 못했을 때는 두려워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의식할 때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왔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주의 손의 창조는 믿는데 주의 손이 지금도 그 일을 간섭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 전신갑주 를 다 만들어 주셨는데도 입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다. 취하여 입기만 하면 그 풍성한 승리는 내 것이 된다. 순종하고 사모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다.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쉴 수 있다. 이것 이 우리의 영적 즐거움이다.

둘째, 지금 내게 생명 있음을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한다. -

전도자는 매우 현실주의자이다. 3절에 하나님의 손안에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마치 바울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들린다. 여기서는 인생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다. "부레익 고장난 기차가 경사진 길을 달리는 것 “과 같다. 그러므로 현재라는 시간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야한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더 낫다고 한다. 이유인즉, 산 자는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

고 다시는 상도 못 받고 잊혀진바 된다고 한다. 7-8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한 것은 지금이란 시간에 생명 있음을 감사하고 즐기라는 뜻이다.

세속주의, 쾌락주의를 권장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주신 현실의 삶을 감사함으로 임하 라는 말이다. 바울이 “세월을 아까라” 고 할 때, 현실이라는 것에 진정한 기회가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말이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만이 현실을 바로 살아간다. 주님은 미래잔치

의 소망을 약속하시면서 현재의 깨어 있는 삶을 요구하신 이유가 그 날을 바라보는 자마다 흰 의복을 입고, 향 기름을 바르게 되는 것이다.

세째, 가정 생활에서 즐거워 해야한다. 전도자는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현재라는 삶을 즐거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정생활을 즐기라고 했다. 9절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했다. 이것은 가정생활에서의 즐거움이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의 중요한 영역인 것을 가리킨다.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가정생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짓이다. 가정 건강이 하나님 교회의 건강이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교회란 가정의 부부와 자녀관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왜 가정 생활의 복종과 사랑을 말했는가?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한 생활이며, 교회생활의 구체적 적용이기 때문이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전9:11-18) -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물고기도 물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며, 아무리 잘 나는 새도 공기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은 어느 한 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진리를 배우는 것이 특징이다. 아브라함, 다윗,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심정으로 살았다.(엡2:8-9)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겸손과 신실을 배울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시편 기자의 자리에 나간다. (시73:25)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그것을 세우려고 한 사상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개혁자들의 확신이었다. 오늘 전도자는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노력과 자유로운 활동을 체험하고 연구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철학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그것은 무엇인가?

첫째. 은혜 안에서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전도자는 인간 노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 11절에 빠른 경주자, 유력자, 지혜자, 명철자, 기능자라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뜻이다. (롬8:28) 성경에는 “시기와 우연”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많이 보여준다. 우연히 쏜 화살이 번복한 아합 왕을 맞춘 것도 하나님의 허락인 것이다. 세겜 사람을 호기심에서 보러나갔던 다나의 봉변과 대 살상은 야곱을 부수시는 주님의 손이셨다. 낚시한 고기의 입에 한

세겜 동전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예정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를 제하고 서는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지혜로 무슨 일을 이루었어도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고백이 바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방식 제 일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확 신해야한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의 겸손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한다. 겸손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고,

겸손은 은혜 받은 자의 열매이다.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한다.
의도적으로도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하고, 섭리적 고난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슥3:11) 성산에서는 모든 교만을 반드시
끊어버리신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란 다.

둘째, 작은 일일지라도 신실하게 행한다. 여기서 전도자는
은혜가운데 산다하여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무위도식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가리킨다. 은혜는
진정한 수고가 들어갈 때 은혜다워진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수고가
필요하다. 성경연구에도 수고가 필요하다. 수고와 노력과 고생을
빠버린 은혜를 갈구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절하면 쉽게준다고 약속한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작은 지혜로
나라를 구한 사건을 보이면서 작은 일에 신실하라고 가르쳤다. 한
여인이 시세라를 죽여 나라를 구하거나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게 함으로 (삼상25:28) 범죄를 막은 것은 이 여인의
지혜였다. 잠언에 작으나 지혜로운 것, 서넛이 있는데(잠30:24-28)
개미는 준비에, 사반(바위 너구리)은 방어에, 메뚜기는 자발적인
연합에, 도마뱀은 왕궁부요를 누리는 지혜를 보임으로서 작은 일에
대한 신실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기 바란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삶이 우리의 길이다.

세제,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한다. 이렇게 은혜의 삶은 겸손을 만들고 지혜의 삶은 작은 일에 대한 신실함을 만들고 이 둘은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삶이 지혜이며 은혜의 삶이기 때문이다. 왜냐? 오늘 15-16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혀준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구했어도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기억치 않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헛되게 한다. 마리아의 옥함을 깨뜨린 헌신은 바로 이런 자리에 있었기에 위대한 것이었다. 바울의 말처럼 그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확신하고 몸소 그렇게 한 것이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나오는 것을 잘 깨달았기에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살며 작은 일에 신실하게 사는 자이다. 이런 삶은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함으로 나아간다. 바울의 권고대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선덕사의 지혜 (전10:1-20) -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우는 선덕사로 부름받는다. 그래서 베드로는

벤전2:9에서 “구원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라고 했다. “덕”이란 유익이란 뜻이다. 진정한 덕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적용된 복음의 삶을 가리킴으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 덕이고 했고, 우리 주님도 “발을 서로 씻기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오늘 10장에 나오는 여러 잠언은 해 아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장 복된 삶,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여 지혜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잘 말해준다. 그 중, 우리는 덕을 세 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만 생각하려한다. 선덕사는 무슨 지혜가 필요한가?

첫째. 그는 공순한 침묵이 필요하다.(1-6) - 이미 우리는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7:15)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생각하는 지혜를 생각했었다. 또다시 전도자는 인생의 우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애매한 고난이든 실수든지 난관을 만날 때 침묵의 자세를 가르쳐준다. 이것이 선덕사의 지혜인 것이다. 1-2절에 보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파괴한다 고 했다. 우매자에게 높은 지위를 들려주면 우매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5-6절에 주권자가 우매하여 우매자가 큰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고. 종들이 말을 타고 방백들이 땅에 걸터다닌다고 했다. 그래서 주권자의 분노 앞에서 공순 하라고 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공순(Calmness)하여 침묵하면 큰 허물도 가볍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는 것이 선택사가 배워야 할 지혜이다. 구스 내시가 읽은 사53:7-8절의 말씀에 보여진 잠잠한 어린양은 침묵의 관이었다. 십자가를 지는 침묵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자세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쉬는 침묵이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침묵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구속을 맛보고 이 은혜로 우리 주변을 새롭게 하는 자로서 살아 가자.

둘째. 그는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8-11) - 선택사는 장래 일을 내다보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의 근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요14:1-3) 선택사인 그리스도인은 앞의 것을 미리 준비하는 자다.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지고, 담을 허는 자가 뱀에게 물리고, 돌을 떠내는 자가 상하고, 나무를 쪼개는 자가 위험

을 당한다.(8) 힘이 더 들지 않도록 무딘 철 연장을 갈고(10), 뱀에 물리기 전에 방술을 행하라(12)고 했다. 선택사는 미리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자면 근면해야 한다.(15-19) 어린 왕과 아침에 연락하는 대신은 화가 있는 나라이지만 귀족의 아들인 왕과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먹는 나라는 복이 있다(16)고 했다. 우리는 선택사로 일을 잘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미리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세제. 그는 은혜로운 말이 필요하다(12-20) - 그리스도의 선택사는 말로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많다. 그래서 말을 소금처럼 은혜로 고르게 해야 한다.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의 영향은 전혀 다르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12) 입의 말은 우매요 끝은 광패이며(13)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나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14) 그리고 20절에도 심중에서도 왕을 저주치 말고 침방에서도 부자를 저주치 말라 공중의 새와 날짐승이 그것을 전파한다고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에 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 나가자.

선택사는 덕으로서 주변을 은혜롭게 만드는 자이다. 그러자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덕으로 충만해야한다. 침묵정진을 배워야한다. 문제를 알고 미리 예방해야한다. 남의 상처를 치료하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한다.

네 식물을 물에 던지라 (전11:1-8) - 다니엘의 예언대로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은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눈을 들어 받을 바라볼 때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육적 기아와 천연재해로 인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영적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크리스찬 허무주의를

강조하는 전도자는 구제에 대한 교훈을 말함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있는 신본주의 사람임이 더욱 돋보인다. 1절에 네 식물을 물에 던지는 것은 구제하는 일이다. 주님 가르치신대로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란 어떤 것인지 전도자를 통해 들어 보자.

첫째, 구제할 이유 - 왜 우리는 구제해야하는가? 성경에 의하면 자기 생존 비결이 구제이라 한다. 받았으면 나누어주는 것은 자연의 원리이며 영적 원리이다. 모든 것이 다 주고 받음으로 시작된다. 3절도 구름에 비가 있으면 쏟아진다고 했다. 오래 고이면 썩어 버린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은 삶의 진리이다. 그리고 구제는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이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라, 은혜 받고 나타난 결과가 구제였다.(행2:42-27) 자신이 받은 것을 소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에 찢절한 자가 없다고 할 정도였다. 은혜를 받기 원하는가? 나누어줄 목적으로 그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주신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하고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거두어 가심을 볼 것이 다. 더욱이 전도자는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구제해야한다고 한다. 2절에 보면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구제할 이유를 발견한다. 구제의

긴박성을 가리킨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좋은 날이 아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때가 바로 기회인 줄 알고 부지런히 구제해야한다. 4-6절에 우리는 바람이 부는 길과 아이 벤 자의 태 속의 아이의 뼈가 어떻게 형성되는 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식물을 물위에 던져야한다고 했다. 받는 인생보다 주는 인생의 목표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둘째, 구제의 방법- 그러면 어떻게 구제할까? 본문 1-2절에 “너는 네 식물을 물위에 던지라 여러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눠줄지니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구제 방법을 발견한다. (1) 은밀하게 해야한다. 물위에 던지라는 말은 은밀하게 하라는 말이다. 마태복음 6:6절에도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만이 은밀하게 할 수 있다. (2) 자신의 것으로 해야한다. 자신의 것, 자기의 은사, 자기 희생과 각오를 가지고 구제하라는 말이다. 전깃불보다 촛불이 되어 수고가 따른 사랑이어야 의미가 있다. (3) 하나님의 심정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한다. 일곱이나 여덟에게 던지라는 말은 많이 주라는 말이다. 많이 구제하는 자가 정복자다,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민족을 위해 주었고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의 복음화를 그렇게 원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현금할 때 우리는 구제의 방법을 따라서 은밀하게, 자기의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

어 주어야한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기 위하여 구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런 정복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바른 구제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약속을 현실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구제하는 인생의 복을 누려야 한다.

구제의 결실 (전11:1-8) - 다니엘의 예언대로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에 눈을 들어 받을 바라볼 때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 육적으로 기아와 천연재해로 인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들, 아니 우리 주변을 바라보더라도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모른다. 허무주의 일색을 강조하는 전도자는 구제에 대한 교훈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의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있는 신본주의 사람임을 보인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제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허무로 꽉 찬 세상에서 가장 의미있는 일 중 하나를 제공받는다.

1. 구제할 이유 (2) - 왜 우리는 구제해야하는가? 2절에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못함 이니라”고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제의

이유를 본다. 1) 구제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받았으면 자연히 나누어주는 것은 자연의 원리이며 영적 원리이다. 고이면서 켜는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2)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라, 은혜받고 나타난 결과가 구제하는 것이었다.(행2:42-27) 자신이 받은 것을 소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요1:에 안드레-베드로- 빌립- 바돌로매- 12명-120명 3000명- 기하급수 -20억으로 늘어났다.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숫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영향이 계속 파급된다. 3) 특히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이다.(2)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주었을 때 부지런히 구제해야한다.(4-5) 풍세를 보고 파종하고, 구름을 보고 추수한다. 바람의 길, 아이 벤 자의 태의 형성과정을 알지못한다. 만사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 그래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할 인생을 살겠다는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야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것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다.(고전10:3-33)

2. 구제의 방법(1,2) - 그러면 어떻게 구제할까? 본문 1-2절에 “너는 네 식물을 물위에 던지라... 일곱이나 여덟에게 네 식물을 던지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3 가지 구제의 방법을 발견한다. 1) 구제는 은밀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물위에 던지라 - 은밀하게하라.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하라” 과부의 두 렵돈을 하나님이 값으신다. 2) 구제는 자신의 식물을 던지는 것이다. 자신의 것을 던지라. 자기의 은사를, 자기의 희생과 각오를 던지라는 것이다. 전깃불이 아닌 촛불이 되라.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한다. 3) 구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누어 주어야한다.- 일곱이나 여덟에게 던지라. 많이 주라는 것이다. 많이 구제하라는 말이다. 이것이 정복자의 심정이다. 모세의 경우, 자기의 생명을 민족을 위해 주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 헌금할 때 우리는 구제의 방법을 따라서 은밀하게, 자의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한다.

3. 구제의 결과 (1) - 장래 일을 모르는 우리들은 기회 주어졌을 때 그 때가 구제하는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구제할 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약속을 받게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구제를 보신다는 것이다. 여러날 후에, 시간의 여유가 있다. 조건적으로 생각해선 안되지만 도로 찾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다. 요셉을 보라, 그는 많은 것을 주었다. 그러나 다 찾았다. 스테반 집사님을 보라. 그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을 때 주님은 훗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주님은 당신의 심장을 원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 식물과 심장을 드린 것이 주님에게 드린 것이다. 우리 교회는 나의 식물을 나의 많은 이웃에게 힘에 넘치도록 나누어주는 천국의 전달자가 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적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야 한다.

결실의 날을 예비하라 (전11:9-12:8) - 우리는 결실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허무를 바로 이해하고, 구제를 통한 결실을 기대

해야한다 “네 식물을 물위에 던져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던지라” 오늘은
우리 장래의 영원한 결실을 위하여 젊은 날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사람들이 현재의 삶이 영원을 결정한다는 것을 바로
안다면 정말 정신 차릴 것이다.

현재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징계를 당한다. 어떻게 청년의 날에 결실있는
삶을 준비할까요? 어떻게 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결실을 얻게되는가?

1. 현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므로 준비하라.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든다. 그것을 알때 결실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성경에서의 심판은 셋으로 정리된다. 1) 이 생에서의
심판, 섭리적 심판이다. 벨사살처럼, 벼락 맞아죽고, 교통사고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2) 죽음후의 심판, 나사로와 부자는 죽음
후의 낙원과 음부에 갔다. 3) 마지막날의 심판, 백 보좌 심판, 염소와 양의
분류가 일어난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을 골라내는 마지막 심판이다.
수 많은 심판의 최종심판이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신본주의로 산다. 그 결과 결실을 얻는다. 성령의 열매인가? 육체의 열매인가?(갈5:22-23) 우리의 모범인 바울은 자비량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주야로 일하면서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힘썼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영원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2. 죄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므로 준비하라. - 그리고 결실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이 죄악에서 떠나야한다. 10절, 죄악에서 떠나라고 한다. 1) 근심에서 떠나라 육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2)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 것이 악이다. 영혼과 몸을 망친다. 우리 개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기주의를 파하고 살아가기 바란다. 이는 우리의 이기주의는 자기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아주의가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탕자의 비유에서의 자율주의, 자아주의를 보라. 아담의 죄악이었다. 사탄은 이것을 언제나 노린다. 마지막의 특징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자유방임주의, 극도의 이기주의로 전락한다. 결실있는 인생은 이런 이기주의와 싸워 나가는 사람이다. 이민 교포들 중, 마약퇴치, 가정상담소,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것을 나누어주었을 때 만족이 있다. 만족이 있는 것은 주님을 잘 믿을 때 되어진다.

3. 창조자를 중심한 삶을 살므로 준비하라. - 전자가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후자는 적극적인 활동을 가리킨다.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한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창조자를 중심한 삶을 살라는 말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구인가? 창조자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인생은 슬픈 인생이다. 헛된 인생, 그러나 창조자 중심의 인생은 의미있는 인생이다. 우리의 근본을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이다. 안식일은 창조자를 기억하는 날이다. 매일 뜨는 태양, 해 달 별은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이다. 그 창조자는 성부 성자 성령하나님이시다. 현재라는 시간에 정신차려 그를 장 섬기라는 말이다. 1절에 곤고한 날, 낙이 없다고 하기 전, 젊은 날, 재앙 전에 기억하라. 3-8절에 16가지 육체적 묘사가 나온다.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이다. 1) 신체의 변화(1-5)- 1. 집 지키는 자 (떨며) 2. 힘있는 자 (구부러짐) 3. 땀돌질하는 자(적을 것이며) 4.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쇠하고(눈) 5. 길거리 문들이 닫히며(귀) 2) 신체활동의 변화(6-12)- 1. 땀돌소리가 적고 2. 새의 소리에 깨어나며 3. 음악하는 여자가 쇠하며 4.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5. 길에서 놀람 6. 살구나무가 꽃을 피 7. 메뚜기가 짐이 됨 8. 원욕이 그침 (조문자의 행렬) 9. 은줄 금줄이 깨어짐 10. 바

위가 우물 안에서 깨어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시 90편의 모세 기도 속에서 보인 대로, 이런 날이 속이 온다는 것이다. 죽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는 더 늙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말씀에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하고, 바른 소망

속에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있다는

자세로 살아가라. 죄악을 멀리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분을 중심한 삶을 살고 현재라는 이 시간에 그를 잘 섬겨야 한다.

인생의 본분 (전12:9-14) - 우리 인생을 가장 든든히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인다. 인생의 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가장 보호받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는다.

1. 인생의 본분 - 12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 했다.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나서 인생의 본분을 말하기에 의미가 있다. 모든 지혜를 알고 나서 인생의 근본을 말하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본분이란 “전체의 의무”(the whole duty)라고 NIV에 말한다. 나무뿌리가 뽑히는 일처럼 인생의 뿌리가 뽑힌 사람은 불행해진다. 근본을 모르는 교회는 풍조에 흔들린다. 그것을 안하면 그것은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되고 생명과 직결되는 근본이 있다는 말이다. 그 본분은 무엇인가? 두 가지다. 1)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다. 경외(두려워하라), 사랑을 동반한 두려움이다. 시2:11-12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삼키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한다. 또한 그것은 긴장과 같다. 근신과 깨어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주인에 대한 두려움 시험치는 자의 긴장처럼 두려움을 여러분의 가슴에 잃어져서는 안된다. 그의 명령을

순종함이다. 경외심은 자연히 그의 명령의 순종으로 연결된다. 그의 말씀이라면 어렵게 여기는 것이 순종이다. 눅5:에 베드로의 그물 던짐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 그 결과 고기를 많이 낚았고 신령한 지식을 얻었다. 이런 경외함과 순종함이 나의 뿌리, 나의 배경, 나의 기초, 나의 지정의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알 때 나온다.(14) 그래서 이 본분을 행치 않는 자는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는 자이다. 혈육을 의지하는 자,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흔히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잘 한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과 순종이 있을 때 그는 근본이 있는 사람이다. 교회는 이런 근본이 든든할 때 견고해지고 부흥하고 결실한다. 가정은 이런 근본이 부모에게 먼저 자리를 잡을 때 바로 되고 잘 되어간다. 엘리야 한사람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영력 안에서의 갑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는 한 사람은 수천 수만의 군대와 수천 수만의 천군천사보다 더 강할 수 있다. 존 낙스처럼, 한국의 박관준 장로처럼 이런 투지가 있는, 근본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2. 인생의 본분을 어떻게 이루는가? - 그런데 인생의 근본을 한번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켜나가고 파수하고 보호해야 한다. 인생의 근본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화초가 뿌리가 썩거나 뽑히면 결국 죽어간다. 어떻게 이 뿌리를 잘 보존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음으로 된다.(12)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목자는 하나님이다.(시23:)

요10:의 목자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런 사랑의 목자가 자기 양을 잘 알고 꼴을 주신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근본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딤후3:16-17을 따라 1) 때로는
교훈으로 임하기에 가르침을 잘 받고 묵상해야한다. 2) 때로는 경계로
임하기에 경계를 받고 조심해야한다. 3) 때로는 책망으로 임하기에 채찍으로
찌른다. 4) 때로는 의로 교육하기

에 우리 인생의 기둥으로 삼아야한다.(10)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다. 근본을
아는 자는 기록된 말씀에 착념함으로서 거기서 나오는 은혜받고 살아가는
자이다. 사람은 음식의 힘으로 사는 줄 안다.(마4:4)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한다. 사람은 정신의 힘으로 사는 줄 안다. 육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사로잡아야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지난 시간,
멜리사의 한 사건을 읽으면서 마음의 짐이 생겼다. 토산이 익지 않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가?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치료가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료받는다. 엘리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치료되었다.“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를 믿음으로 나아가라. 경제의 치료, 건강의 치료,
마음의 치료를 말씀으로 받았다. 요21:의 베드로처럼 주님에 대한 사람들

아는 자로 살아가야한다.. 이 사랑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인생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근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결실의 달에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것을 이웃을 위해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 더욱이 너희 인생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기 바란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결실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 형상회복의 요약: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신앙은 구속의 흐름처럼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진다. 구속사의 흐름 속의 핵심 언약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님 형상의 영광의 빛줄기는 찬란하게 빛난다. 구약의 그 형상은 신약의 성취된 형상과 본질상 같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모세가 보았던 그 형상의 영광은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났고, 창 21:2 절의 영광의 성령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탄생의 요람,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던 주님,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 안에서 그 완성이 나타났고,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그 형상은 온 땅 위에 심판의 빛으로, 치료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빛, 자기 백성을 변화시키는 빛,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성품화하는 강력으로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의 그 형상은 연속성을 가진다. 이와달리 옛언약과 새언약을 비교할 때 비교될 수 없는 불연속성의 요소가 나타나듯이 신약의 하나님의 형상과 구약의 그 형상은 대조를 이루는 영광임을 사도들은 보았다. 의문의 글의 영광은 일시적, 예전적이었으나 신약의 형상은 영원적, 완성적이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머물 수 밖에 없고 머물시를 힘써야만하는 그런 영광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형상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가는 경험을 증거한다. 겔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고 현재의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마치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심히 좋아더라는 고백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심히 영광스러운 영광, 곧 그 실체의 영광이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의인신이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선교는 전 영역권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 서도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해야한다. 그때 우리는 창세 전에

삼위일체 회의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완성된 형상을 가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참된
신부로서의 준비를 바로하는 것이다. 그러면 완성된 하
나님의 형상에 관해 신약의 계시는 어떻게 나 타났는가?
우리는 각 부류의 성경 계시 속에 그 영광의 광채를 보아야
한다. 그 때 우리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참고도서

Calvin, John, *True Christian Life*

Calvin, John *The Eternal Truth in All Time*

Williamson, G.I. *Essay of Reformed position*

Williamson, G.I. *Westminster Confession*

Frame, John, *Christian Life*

Frame, John, *The Apologetic for the Glory of God*

Kline, M.G. *Kingdom Prologue*

Kline, M.G. *The Glory in the Midst*

Joel Bekey, *Puritan Theology*

Vos Gerrhardus *Biblical Theology*

Adams, Jay, *Pastoral Theology*

Poythress Vern *God centric interpretation*

전 화 령 (White Young Jeon)

캄보디아 교육선교사/ 캄보디아개혁신앙연구소장

(CEMF & CRFI president)

- Biblical Theology (O.T), Expository Preaching and Puritanism
- D. Mi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CA, USA (1996)
- M.Div., Hapdong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outh Korea (1981)
- B.A., 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South Korea (1978)
- Taught in International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in Cambodia (Chairman of Old Testament)
- Taught in International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USA (Preaching Professor)

책제목: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신학과 신앙 (1 권)

발행일: 2020 2.16

발행소: 캄보디아 개혁신앙연구소

편집: 메리 루, 미국 가정상담전문가

